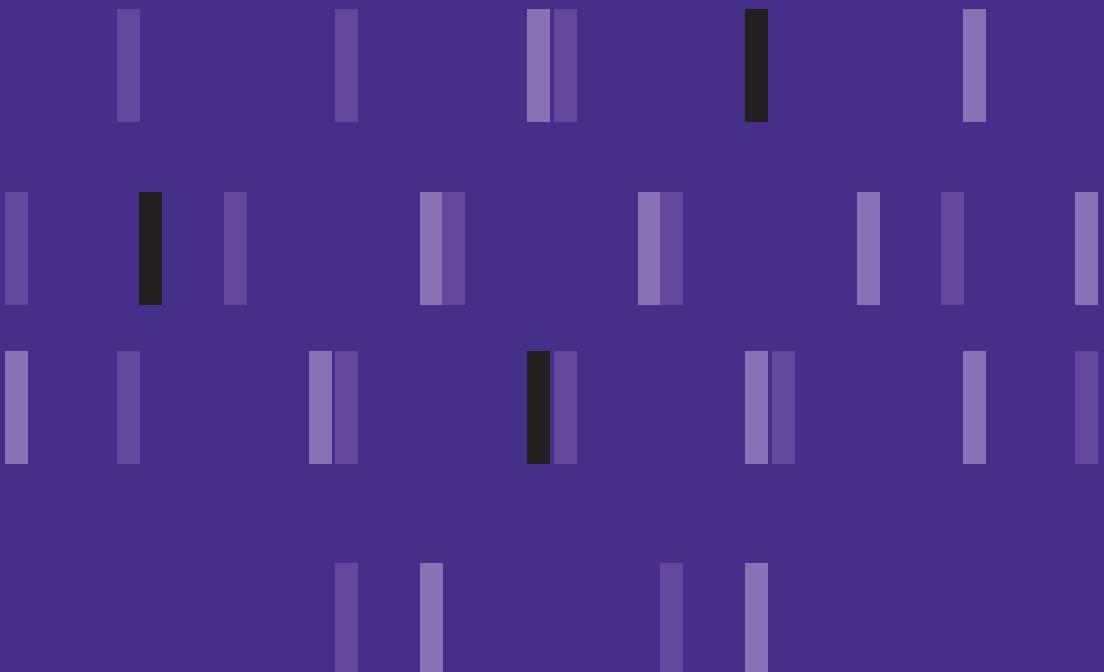


경기 문화유산 세계화 기초조사 연구

세계유산 편

1



일러두기

이 책은 2017년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유산 세계화 사업에 의해, (사)ICOMOS 한국위원회가 제출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경기도 문화유산의 기초조사 학술용역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도요지'와 '요지'로 혼용했음을 알립니다.

연구책임자: 최재현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책임연구원: 김숙진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연 구 원: 홍현철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박종관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이상현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동주 (백제고도문화재단 책임연구원)

정수희 (건국대학교 박사)

연구보조원: 정학성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한승우 (건국대학교 사학과)

I. 한옥절충형 기독교 유산 기초조사

1. 구성유산 및 유산의 범위	8
2. 유산 개요	10
1) 한옥절충형 기독교 유산의 역사와 특성	10
2) 안성 구포동성당	12
3) 고양 행주성당	15
3. 유산의 핵심가치	18
1) 한옥 교회의 세계유산 등재 적용 가능한 기준	18
2) 탐월한 보편적 가치(OUV)	20
3) 유산의 진정성, 완전성	21
4. 보존상태 및 대상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6
1) 안성 구포동성당	26
2) 고양 행주성당	27
5. 관리체계 파악 및 보호, 관리방안 제시	28
1) 안성 구포동성당	28
2) 고양 행주성당	29
6. 국내외 유산과의 비교연구	30
1) 국내 유산과의 비교	30
2) 국외 유사 유산에 대한 비교분석	41
3) 비교연구를 통한 유산의 특징	48
7. 세계유산 등재 방향성 검토 및 제언	50
1) 세계유산 등재 조건	50
2) 연속유산으로서 등재할 경우	52
3)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입증의 방향성	56
4) 보존 관리 계획 수립의 방향성	57
8. 참고문헌	59

II.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기초조사

1. 구성유산 및 유산의 범위	64
1) 구성유산의 현황	64
2) 구성유산의 범위 및 현재 조사방향 기준	65
2. 유산 개요	67
1) 기본 개요	67
2) 역사적 배경	71
3) 선행 연구 및 조사 현황	76
3. 유산의 핵심가치	80
1) 등재기준의 적용	80
2) 탐월한 보편적 가치(OUV)	82
3)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82
4. 보존상태 및 대상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85
1) 조사 대상 도요지의 선정	85
2) 조사 대상지의 분포 및 분포 특성	86
3) 조사 대상지의 경관 평가 항목과 조사 방법	88
4)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입지 및 경관분석 결과	90
5. 평가 의견 및 보존, 관리 방향 제시	167
1) 경기도 광주시 도요지의 입지 특성	167
2) 경기도 광주시 도요지의 경관 평가	168
3) 보존 관리 측면의 방향 제시	171
6. 국내외 유사 유산과의 비교연구	172
1) 국내 유산	172
2) 국외 유산 : 일본	174
3) 국내외 유산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187
7. 세계유산 등재 방향성 검토 및 제언	190
1) 세계유산 등재 조건	190
2) 연속유산으로서 등재할 경우	192
3)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입증의 방향성	194
4) 보존 관리 계획 수립의 방향성	196
8. 참고문헌	198

| .

한옥절충형
기독교 유산
기초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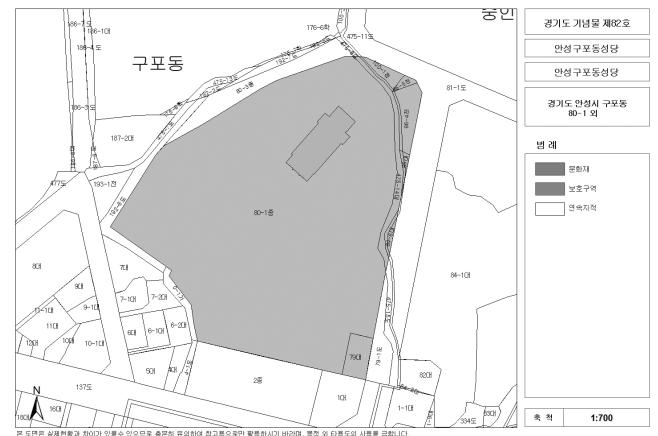
구성유산 및 유산의 범위

현재 경기도 내에 남아있는 한옥절충형 기독교 유산(이하 한옥 교회)은 안성 구포동성당과 고양 행주성당 두 곳이다.



경기도 지도와 유산의 위치

안성 구포동성당은 경기도 안성시 혜산로 33(구포동 80-1) 일원 4필지 12,111.9m²(약 3.644평)이며, 이중 11,433.6m²가 문화재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안성 구포동성당 문화재 보호구역 지적도 (출처: 문화재보존관리지도)

고양 행주성당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로 행주산성로 144번길 50(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94)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1,094m²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양 행주성당 문화재 보호구역 지적도 (출처: 문화재보존관리지도)

1) 한옥절충형 기독교 유산의 역사와 특성

(1) 역사적 배경

기독교는 17세기 초 중국을 통해 학문적으로 한국에 수용되었다가 18세기 후반 종교로 발전하였다. 당시 신분질서의 붕괴와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성리학을 대체 할 새로운 지도사상이 필요했고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동 속에서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신앙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기독교는 근대적 평등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전통적 유교사상과 대치되어 약 100년에 걸친 심한 박해를 받았고 1만여 명의 순교자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를 수용한 지식인들은 거의 사라졌지만 오히려 서민층과 농촌을 대상으로 기독교가 확대되었다.

박해시대에 교회건축은 불가능했다. 교회 건축이 가능해진 것은 1876년 개항 이후, 그리고 1886년 한불수호조약으로 교회건립을 위한 대지매입과 소유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1880년 한미수호통상조약 후, 1884년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했다. 1883년부터 실질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으며 1904년 공식적으로 기독교 선교가 승인된다.

교회건축은 18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교회는 서양선교사에 의해 대도시에 지어진 양식교회와 한옥교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한옥교회는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 지어졌다. 벽돌을 사용할 경제적 여건이나 기술자의 부족으로 지방 농촌에서 한옥 교회건축이 나타났다. 한옥교회는 당시 지방의 기술적 경제적 여건 속에서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 신도 주도로 지어졌는데, 그 건설의 주체와 건설자본은 대체로 한인자본이었다. 또 한옥교회는 민중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전통문화에 상충되지 않는 친숙한 건축형태로 토착화의 수단으로 차용되었다. (이원규, 2016)

최초의 한옥교회는 19세기 말에 지어졌으며 그 원형은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기록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복원된 건물이 존재한다. 천주교 최초의 한옥교회 건축은 전주 고산되재성당(1894, 2009년 복원)이며 성공회는 서울 정동에 지었던 성공회장림교회(1892)다. 장림성당은 오늘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전체의 모습을 알 수 있을 만큼의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실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은 찾아볼 수 있는데, 한식 목구조를 사용한 교회 내부를 볼 수 있다. (출처: 대한성공회출판부,『사진으로 본 대한성공회 백년』) 개신교에서는 장로교의 소래교회(1884)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말 전국각지에는 평양성당(1895, 1898), 옛 공세리 성당(1897), 황해 청계성당(1889), 대구 옛 계산성당(1899), 황해도 장연성당(1889), 황해도 재령성당(1899), 성공회 강화교회(1900), 경기 옛 왕립성당(1901), 평남 옛 영유교회(1902), 옛 장화원성당(1903), 옛 온수리성당(1906), 김제 수류성당(1907)(김성우 한광선, 2001), 수원 옛 성당(1900), 화산성당(1906) 등 많은 한옥교회가 지어진다. 한옥 교회는 당시 대도시에 지어진 서양식 교회와 함께 선교 초기에 보편화된 양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옥교회건축은 토착화와 기술·경제적인 배경에서 선교 초기부터 일제강점기 말까지 상당기간 한국 교회건축의 주류 형식으로 존재하였다. 근대기 단일유형의 양식건축으로는 가장 많이 지어졌고 현존하는 건축물도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김진범, 2012:3) 따라서 한옥교회는 19세기 말 1940년대까지 전국각지에 지어진 하나의 유형이며 분명한 역사적 가치를 갖는다.

한옥교회는 대체로 3단계 변화과정을 보인다.(김성우 한광선, 2001)

1. 재래식 목조건축에 종탑을 설치하고, 종축으로 배치한다. 종탑의 설치는 종파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성공회에는 종탑이 없고 가톨릭에는 종탑을 사용한다.
2. 1900년 기점으로 벽돌사용이 확대되고 입면과 창호의 모습도 달라진다. 중층지붕형식이 나타난다.
3. 1920~30년대 목조한옥교회는 점차 절충식으로 서양교회를 닮아가고 1940년대 이후에는 지어지지 않는다.

(2) 한옥교회의 특성

한옥교회는 한옥의 전통 목구조-도리방향으로 칸의 확장하고 배치를 변형하여 기독교 예배의식을 수용하기 위한 평면을 만들었다. 전통양식 교회건축의 평면은 크게 장방형과 정방형, 그자형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회 형태는 교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천주교와 성공회는 내부공간 구성을 주로 장방형의 바실리카 교회양식을 따랐다. 장로교 감리교는 천주교 성공회와 같은 교회양식 자체의 상징성을 강조하지 않으므로 교리에 맞는 실용성을 중심으로 그자형 또는 4x4로 변형된다.(이원규, 2016: 29)

유교관습이 남아 있어 교회에서 남녀 문을 분리하고 예배공간도 가운데 칸막이로 분리했다. 장막을 치거나 그자형 평면을 통해 남녀석을 구분하였다. 한옥성당의 방위는 서양교회와는 다르게 동서방향 대신 전통적인 남향배치를 의식했다.

한옥교회는 서양의 기독교가 유입되면서 한국의 전통건축과 만나서 한국만의 고유한 형태로 만들어진 유산이다. 한옥교회는 서양기독교 사상을 한옥의 전통건축양식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유산이다. 한옥교회건축은 교회문화의 수용이 일방적인 이입이 아닌 주체적인 우리문화로의 수용이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옥이 가지는 기능적, 구조적, 공간적 잠재력을 확인시켜준 건축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안성 구포동성당

(1) 역사

천주교 안성본당은 1901년 공세리 본당에서 분리 창설되었고 안토니오 공베르(A. Gomnert) 신부가 부임했다. 안성 구포동성당은 1922년 공베르 신부의 부탁으로 프랑스 외방전교회 소속 프라넬(Victor Louis Poisnel, 1855~1925) 신부가 설계하여 건축했다. 프라넬 신부는 명동성당, 전동선당, 왜관성당 등을 설계했는데 모두 벽돌조 로마네스크나 고딕양식이고, 구포동성당만 한옥 성당이다.

구포동성당은 정면 5칸 측면 9칸의 삼랑식 평면의 중층구조이며, 기와와 돌, 목재 일부는 안성군 보개면 동안리에 있던 누각식 동안(東安)강당을 헬어서 사용했고 기둥 등 대부분 목재는 압록강에서 운반하여 썼다.(종합정비용역보고서, 2016:11) 또 중국인 기술자들의 힘을 빌려 완공하였다.(이원규, 2016, 55면) 1925년 베네딕도회 덕원수도원 출신의 원제등 씨에 의해 제단 뒷벽 장식과 제대, 제의 등의 제작설치가 이루어졌고 프랑스에서 상본을 들여와 장식하였다.

(2) 양식적 특징

이 성당은 건평 80평의 한옥성당으로 바실리카식 구성을 하고 있다. 네이브와 좌우 아일의 삼랑식 구조이고 정면 5칸, 측면 9칸의 장방형에 작은 익랑이 붙어있는 라틴십자가형 평면을 가진 것이 특이하다. 한옥성당으로는 유일하게 중층구조다. 안성성당 이전에 지은 한옥성당은 대부분 단층구조이거나 중층구조라 하더라도 부설지붕과 고창만 있을 뿐 이층마루가 있는 것은 이곳이 유일하다.

성당 내부입면이 고딕성당처럼 1층의 아케이드(Arcade)와 2층 갤러리

(Gallery) 및 고창으로 3분할 되어있다. 안성성당의 이러한 단면구조는 국내에 있는 한옥교회 중 중세교회의 수평 수직 3분할구성을 완전하게 구현한 유일한 사례다. 예를 들면 강화 성공회교회(1900)는 삼랑식 중층구조이나 2층 바닥이 없고 익산 나바위성당은 2랑식 구조에 2층 갤러리가 없다. 유교적 흔적을 볼 수 있는 남녀석의 구분은 없으나 좌식생활을 반영하는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다.

구포동성당은 중층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고주가 아닌 평주를 외진주와 내진주로 구성하고 그 위에 뒷보를 얹었다. 그리고 뒷보 위에는 한쪽에 2열씩 총 4열의 기둥을 캔틸레버 방식으로 다시 올려 보를 받치고 있다. 중층 구조에 내부 고주를 사용하지 않고 평주를 이용하여 올렸던 것은 동안강당의 기둥을 재사용하면서 부재의 제약이 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원규, 2016, 57면) 재사용한 기둥 길이의 제약 때문에 내부 기둥을 고주로 하지 않고 뒷보 위에 층단면주와 뒷보의 연장 캔틸레버 위에 2층 내부면주를 세워서 보를 받치고 있다. 기둥단면은 초기의 한옥성당보다 가늘어져서 훨씬 서양식 목조기둥에 가깝고, 서양 주변(order)의 디테일을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특히 제단 뒷벽은 4개의 이오니아식 주두를 가지고 플랫팅이 되어 있는 4개의 편개주와 4각의 무늬를 조각하였다.(김정신, 2012)

지붕구조는 한국전통가구수법과 서양식 목조트러스가 융합되어 있다(기둥-평보-스자보=왕대공, 빗대공-도리-서까래). 이는 기둥간격이 일반 한옥구조보다 넓기 때문에 추정된다. 10m가 넘는 폭의 평면을 계획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붕구조에 트러스를 적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조는 왕대공 트러스구조로 2층 기둥이 평보를 받치고 있다

지붕단면은 서까래까지의 물매가 직선이지만 용마루 끝과 처마 끝을 약간 들어 올려 한옥지붕의 맛을 내고 있다. 원래는 한식기와였으나 지금은 기와꼴 형태의 동판이 올려져있다.

외벽은 전형적인 목조 심벽구조다 창호는 범살 창살의 창으로 1층은 세로로 긴 오르내리기 창이며, 고창은 미서기창이다.

구포동성당은 순수 한옥성당이라기 보다는 1910년 일제 강점 이후 나타나는 한양절충식 성당의 성격이 강하다.(김정신, 1984) 전통한옥구조에 지붕의 트러스 구조가 접목되어 있고 창의 크기도 작다. 나중에 로마네스크 풍의 벽돌조 종탑을 전면에 설치하여 한양절충식 성당건축이라 할 수 있다.

(3) 수리 및 보수

6.25 이후 1955년 성당 전면을 개조하여 로마네스크 풍의 벽돌조 포치와 종탑을 증축하였다(1953~55). 증축 시(1955년 경)에 2층 지붕의 한식 훠기와를 걷어내



구포동성당 정면 종탑



구포동성당 측면



구포동성당 내부



구포동성당 측면 디테일

고 골합식으로 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종합정비용역보고서, 2016:13)

1985년 경기도기념물 82호로 지정되었으며, 1986년부터 1987년까지 문화재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지붕에 동판 4T를 둥글게 접어 기와골처럼 설치하고, 지붕의 트러스 구조에 대공가새를 설치하고 달대공과 빗대공을 증설하였으며 나사볼트를 교체 또는 추구하는 보강공사를 했다.(보수설계: 새한건축) 이 시기에 종탑부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하였다. 처마홈통 및 선홈통도 설치했다.

1998년 새 성전과 사제관, 수녀원이 신축되고 앞마당 정비와 조경사업 진행

2003년 성당주변에 전통기와담장을 설치, 성당옆 포도터널 설치

2004년 100주년 기념관 준공 (100주년 기념관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제의를 비롯한 유물이 다수 보관되어 있다.)

구포동성당 정밀실측 (금성건축)

2006년 지붕보수

2007년 목조성당 성찬난간, 외부도장

2014년 성당마루보수

(4) 무형적 가치

안성 구포동성당은 경기도의 네 번째 본당이라는 역사 뿐 아니라 안성포도의 발상지, 안성근대교육의 요람(안법고등학교)이고 한국성당의 토착화의 상징이며, 안성의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다.

3) 고양 행주성당

(1) 역사

고양 행주성당은 1899년 행주공소로 시작되었으며 경당과 신양학교라는 교육시설이었다. 1907년 경당건축이 시작되었고 1909년에 본당으로 승격되어 성당 건축을 시작했다. 1910년 8월 9일에 20평 규모의 5칸 맞배지붕양식의 한옥성당이 완공되었다. 행주성당은 명동성당, 약현성당에 이어 서울에서 3번째로 지어진 성당이다.

원래 성당의 위치는 행주외동 194-4번지(행주산성로144번 길 52)로 현재의 성당보다 낮은 곳에 있었다. 이 지역은 한강이 범람하면 침수되는 지역이다. 범람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여 1918년에 좀 더 높은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1차 성당이 전은 기존 성당을 해체하여 교우들이 등집으로 이전시켜 성당의 본래 모습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했다. 1차 이전된 성당 역시 을축년 홍수(1925년) 등 잦은 침수로 심하게 손상된다. 1차 이전 이후 10년 만에 성당은 현재의 위치(생말 언덕)로 이전된다. 1928년 5월에 시작된 이전·증축공사는 1931년에 완공되었다. 성당 이전과 함께 사제관과 신양학교도 이전했다. 이전된 곳은 지대가 높아 홍수피해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지만 2차 이전에서도 “상량 목부재를 포함한 기존의 부재들을 대부분 재사용하였으며 특히 성당의 뼈대를 구성하는 목재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행주성당100년 이야기, 170) 신양학교는 현재의 사제관 위치로 이전했다. 성당과 신양학교의 이전이 완료되고 1932년 20평의 사제관을 신축했다.(현재 100주년 기념관 위치)

(2) 양식적 특징

행주성당은 단층 삼랑식으로 남녀를 구분한 가운데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마룻바닥이며, 한옥지붕은 맞배지붕의 형태이며 초기에는 5칸 팔작지붕이었으나 증축이 후 팔작 맞배의 혼용된 지붕형태를 띠고 있다. 원래의 위치에서 이전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리와 보수가 이루어져온 특징이 있다.

(3) 수리 및 보수

현 위치에 이전된 성당은 5칸의 팔작지붕 한옥이었으나 1949년에 제대방향으로 2칸 확장 증축공사가 있었다. 증축되면서 7칸의 팔작·맞배 혼용 지붕을 갖는 건축물로 바뀌었다.

1972년 새마을 운동으로 주택개량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때 성당 지붕기와가 한식기와에서 양식기와(시멘트기와로 추정됨)로 변경되고 부속실(전실, 고해실, 준비실)이 덧대어졌다.

성당은 1942년에 다시 공소가 되었다가 2004년 ‘의정부 교구 행주성당’이 된다. 본당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09년에 ‘근대 종교 건축물 등록문화재’로 공시되어 이듬해에 등록문화재 제455호로 지정된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후 성당의 보수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성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 복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15년 복원되었다.

복원 당시 적용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복원의 기준시점은 이전 후 종축된 1949년으로 한다. (이전 당시인 1934년을 기준으로 하면 역사적 의미는 더 클 수 있으나 정확한 고증자료가 없고 사용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2. 1949년 이후 변형된 외관은 회복한다. (고해실, 준비실, 전실의 철거를 사용자 측에서 동의하였다)
3. 외판을 회복하기 위해 지붕의 마감 재료를 전통 한식기와로 변경한다. 단,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4) 무형적 가치

서울에서 명동성당, 약현성당 이후 3번째로 지어진 성당이며 서울 서북부 지역을 관장하는 첫 번째 본당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행주성당의 교우들은 전통적으로 행주에 거주하던 사람들과 혼배로 이주해온 사람들 본당신부와 관련되어 이주해온 사람 등 혈연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도 행주성당의 60여 가구, 250여 명의 교우들이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어져서 살아가고 있다. 행주성당이 자리한 행주외동 샘말의 주민들 가운데 70%는 행주성당의 교우들이며 교우들은 이 마을에서 대를 이어 거주하고 있다.



행주성당 복원 후 모습 정면



행주성당 측면



행주성당 내부



행주성당 내부

1) 한옥 교회의 세계유산 등재 적용 가능한 기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 판단을 위해서는 10개의 등재기준 중 1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한옥교회는 등재기준 ii), iii), iv)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한 것
-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 iv) 건축, 기술 등 발달단계를 증거하거나 대표적 유형화의 사례

(1) 등재기준 ii)

한옥절충형 기독교 유산은 서양의 종교사상과 우리나라의 토착건축형태가 결합된 고유한 특성을 가진 건축으로서 서양의 기독교 사상과 한국 전통건축양식이 융합된 공유건축유산(Shared built Heritage)으로 가치가 크다. 공유건축유산은 인간의 문화와 사상적 교류, 인간의 가치교환이라는 점에서 등재기준 ii)의 적용이 가능하다. 공유건축유산의 개념을 가진 다수의 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 역시 등재기준 ii)의 높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오소미, 2017:5)

(2) 등재기준 iii)

한옥교회는 서양의 기독교가 유입되어 동아시아의 전통 목구조 양식과 결합된 교회건축이라는 점에서 세계에서 유일하다. 한국 전통건축의 자생적 근대화과정이 20세기 후반으로 계승되지는 못했지만, 한옥교회는 한국의 식민지화 이전 단계의 문화의 융합과 가치의 교환을 보여주는 동아시아 건축 유형으로 분명한 역사적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동양적 요소인 한옥과 유럽의 기독교 사상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이례적 증거로서 등재기준 iii)이 적용 가능하다.

(3) 등재기준 iv)

한옥교회는 19세기 말 1940년대 까지 전국각지에 지어진 하나의 교회건축 유형으로 동아시아 건축에서 자생적 자기변화의 과정, 토착적 근대화 과정에서의 중요한 발달단계를 보여준다. 한국 목수들의 전통적인 기술의 응용과 적응을 통해 건축되었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건축문화가 만나 융합한 다양한 전개와 높은 토착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한옥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유입을 통한 전통목조건축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건축적 발전단계의 한 역사적 지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등재기준 iv)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오소미, 2017) 이 점에서 한옥교회는 한국 기독교의 토착화, 보편화에 중요한 한 단계라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 교우촌의 형성은 한국기독교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된 교회의 가치를 보여준다.

한옥교회의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준연구는 「이코모스 세계유산 장점목록 신규발굴 연구보고」(2012.5.10)와 「세계유산 관점에서 본 한옥교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분석」(건국대대학원, 세계유산학과, 오소미, 2017)이 있다. 두 연구 모두 등재기준 ii), iii), iv)를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코모스 보고서(2012)는 등재기준 ii), iii), iv)에 관한 한옥교회군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ii) 한옥교회는 서양 선교사의 지도로 한국인 전통목수가 지은 순수한국전통 양식의 목조건물로 서양 그리스도교 전례를 완벽하게 수용한 동서융합의 탁월한 사례를 보여준다. 한국 목수들의 전통적인 기술의 응용과 적응을 통해 건축되었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건축문화가 만나 융합한 다양한 전개와 높은 토착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iii) 2고주 7량 구조의 중층한옥과 단층한옥의 축을 바꾸어 바실리카식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한옥의 구조적 공간적 잠재력을 확인해 주었으며 한국전통목조건축의 보편적 가치를 드러내는 특출한 증거가 된다.
- iv) 박해기와 초기에 형성된 천주기화와 연도는 음악사,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동서융합의 탁월한 무형유산

한편 오소미(2017)는 등재기준 ii), iii), iv)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ii) 한국의 한옥교회는 한국 내 서양의 기독교 사상의 유입을 배경으로 서양의 종교적 건축과 전통적인 건축이 융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 사상과 한국의 전통사상 및 문화의 가치가 혼합되고 구현된 특출한 역사적 증거이다.
- iii)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동양적 요소인 한옥과 유럽의 기독교 사상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이례적 증거로서 적용 가능하다.

- iv) 한옥교회가 우리나라 기독교 유입을 통한 건축적 발전단계를 보여주기 보다는 역사적으로 한 지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오소미, 2017:65)

2)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종합해 보면 공유건축유산으로서 한옥성당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한국의 전통목구조를 이용하여 기독교 전례공간을 창조했다. 즉, 회중이 모일 수 있도록 한국의 전통적 건축양식인 네 개의 기둥이 이루는 칸을 변형 확장하여 서양의 종세교회양식의 공간구성을 창조했다.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되는 칸은 서양교회의 베이(bay)와 유사하다. 어칸과 퇴칸은 교회의 네이브와 아일에 정확히 대응한다. 내부공간을 단층 또는 중층으로 3층 혹은 2층식 공간으로 만들어서 한국의 전통목구조로 기독교 전례공간을 수용했다. 한옥교회는 한국전통목조건축과 중세성당의 융합의 과정에서 한옥의 칸 구조를 변형하여 사용하는데 있어서 높은 수준의 독창성을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변용은 동아시아 건축에서 유일한 사례다.
 - 2) 한국 전통건축은 원래 장면을 정면으로 배치한다. 그러나 기독교 전례를 수용하기 위해 단면을 정면으로 종방향 건물배치를 하고 정면은 합각을 달아 한국 전통건축의 특성과 교회양식을 절충하였다. 즉, 횡축과 종축을 바꾸어 종축방향으로 깊이감을 창출하고 구원의 통로를 구현했다. 전통건축에는 이런 배치가 없으므로 이것은 획기적 변화다 또 배치에서 삼문의 설치 등 한국 전통건축의 특성을 반영했다.
 - 3) 한국건축의 특징인 좌식생활을 교회건축에 반영하여 독특하게 교회 내부공간을 마룻바닥으로 만들었다. 신발을 벗는 좌식 마룻바닥은 서양교회건축에서는 볼 수 없는 한옥교회의 독특한 특징이다.
 - 4) 초기의 한옥교회에 발견되는 남녀구분의 혼적(ㄱ자형 평면이나 중간 장막설치 등)은 한국의 전통사상인 유교의 영향을 반영한다.

(1) 안성 구포동성당

안성 구포동성당은 한옥성당의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면서 국내 한옥성당 중 그리스도교의 전례공간을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한옥성당으로는 중층구조로 이층마루가 있는 것은 이곳이 유일하다. 또 성당 내부입면이 1층의 아케이드(Arcade)와 2층 갤러리(Gallery) 및 고창으로 3분할 되어있어 국내에 있는 한옥교

회 중 중세교회의 수평 수직 3분할 구성을 완전하게 구현한 유일한 사례다. 남녀석의 구분은 없으나 한옥구조이면서 서양 중세 교회의 내부공간구조를 충실히 갖춘 안성성당은 동서융합의 탁월한 사례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2) 고양 행주성당

고양 행주성당은 서울지역에 지어진 최초의 한옥성당으로, 1900년대 초 단층 3랑식 한옥교회 유형을 잘 보여주며 작은 규모로 남녀석이 구분된 한옥교회의 정형을 대변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행주성당은 원래 위치에서 이전하였고, 2015년에 1949년을 시점으로 복원하였다는 점에서 진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원래 모습을 잘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고 있는 점에서 가치가 인정된다.

3) 유산의 진정성, 완전성

(1) 진정성에 대한 평가

진정성이란 ‘베니스 협정’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한 정보 출처에 유산가치가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진정성은 진실성과 신뢰성을 의미한다. 1994년 일본 나라에서 진정성에 대하여 정의한 나라현장(Nara document)에서는 진정성을 표출하는 항목으로 형태와 디자인, 자재와 구성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 기술, 관리체계 입지와 주변 환경, 언어와 다른 비물질적 전통, 정신과 감정 및 기타 내외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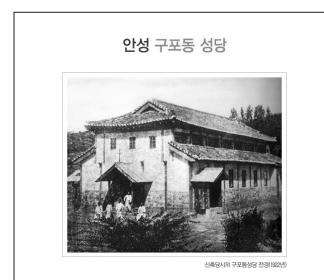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태와 디자인은 변화와 변화정도, 디자인과 형태의 정확성, 변화자체가 가치인지에 대한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자재와 구성 물질은 자재의 대체정도, 수리와 복원의 원형과의 유리정도로서 나타나며, 용도와 기능은 관련대상의 변화정도와 원인을 설명하고, 그 바탕이 되는 사회적 체제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전통, 기술, 관리체계항목에는 유산을 유지하는 사회적 메커니즘, 변화여부의 정도, 이유, 수리여부와 관련성 정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입지와 주변 환경에 대한 항목에는 환경변화여부와 경계확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언어와 다른 형태의 비물질적 전통의 항목에는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변화와 유산과 관련된 사회적 기제, 지역공동체의 특성과 위협요소 등이 포함되어 설명된다, 정신과 감정 및 기타 내 외부 요인들에는 유산과 관련한 자치의 주체가 누구인지, 유산의 상태변화와 정도, 유산의 쇠퇴여부, 이를 둘러싼 사회메커니즘과 이해 당사자가 되는 집단의 특성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성을 구성하는 항목은 세

계유산위원회에서 개정의 대상이기도 하다. 독일의 본에서 개최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진정서의 조건에 규모(Mass and Scale) 색체와 재질(color and texture)를 포함하도록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진정성의 기준에 따라 향 후 세계유산등재를 위해서는 두 성당 모두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두 성당은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작은 수리와 보수가 있었을 뿐 대체적으로 두 성당 모두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큰 변형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문화재 지정을 통해 보존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두 성당 모두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자료와 활동, 기록물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두 성당은 형태와 디자인, 자재와 구성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과 기술관리체계 측면에서 전문가의 조언 아래 보수 및 복원되어 진정성의 조건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① 안성 구포동성당

구포동성당은 입지와 주변 환경, 재료, 기법, 구조, 용도 등에서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삼랑식 라틴크로스, 중층의 목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배기능도 유지되고 있다. 성당의 보존관리를 위해 주변부 예배시설을 두고 예배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면 진정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포동성당은 근대화속에서도 본래 모습을 유지하며 성당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높은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83년 보수하면서 변형된 지붕구조, 가새, 물흘통은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붕은 2층 지붕의 동판을 걷어내고 원래의 한식기와(흙을 채우지 않는 전식공법으로)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정면 종탑은 1955년 덧붙인 것으로 철거하여 원형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신축당시(1922) 구포동성당과 현재의 모습

② 고양 행주성당

1910년에 지어진 한옥성당을 1928년 현 위치로 이축하면서 상량 목부재를 포함하여 당시 사용하였던 기초 부재를 대부분 재사용하였고, 1949년 증축하면서 기록한 상량 묵서도 남아있어 변천과정 기록 유지가 잘 되어 있으며, 건물 뼈대를 구성하는 목조가구의 경우 최초 건립 부분과 증축 부분이 잘 남아 있는 등 역사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강종민, 2015; 280)

2015년 해체 복원하면서 변형된 부분을 원형으로 복원 수리했다. 해체 복원 당시 부재의 일부는 교체하고 탄소테이프로 구조보강을 하였다. 그러나 건립당시의 자재와 구성 물질 등 한옥 목구조 형태가 변형이나 구조변화 없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재료도 대부분 당시의 부재를 사용하고 있어 대체로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체 복원 시 성당 내부에 설치한 고해소는 철거하고 건물 외부로 옮기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현대건축 유산 기록기
한국현대건축 유산 기록기



1910년 상량 부재와 보강된 탄소테이프



(2) 완전성에 대한 평가

완전성은 구성요소, 영역의 완전성, 보존관리상태 등, 온전성, 무손상성, 위협요소의 부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 한옥 교회의 OUV를 만족하는 모든 요소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의 보호가 가능한 보호구역의 경계설정이 필요하다. 또 중심영역과 완충구역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개발압력이나 환경압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조건축물의 취약점인 화재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비하는 소방 설비와 상시 감시체계의 구축을 통해 재해와 재난에 대비해야 하며 국제적 보존관리 우선사항과 절차에 따른 통합보존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세계유산 협약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기적 모니

터링이 시행되어야한다.

유산구역의 경계설정도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규모로 설정되어야 하며 연속유산으로 등재 시 통합보존관리기구가 필수적이다.

① 안성 구포동성당

OUV를 만족하는 성당과 영역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1955년 전면부와 종탑의 중축, 1983년 지붕의 수리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면 보존관리상태도 양호하다. 안성 구포동성당은 역사적 학술적 증명이 이루어졌으며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지역과 주변지역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의의 자문아래 보수를 한다.



안성 구포동성당



② 고양 행주성당

OUV를 만족하는 성당이 2015년 온전히 해체 복원 보수되었다. 그러나 이질적인 형태의 성당부속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문화재 주변 시설,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의 전반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식재와 조경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현역 절충형 기독교 유산 기초조사 |



2017년 행주성당의 모습과 100주년 기념관

보존상태 및 대상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안성 구포동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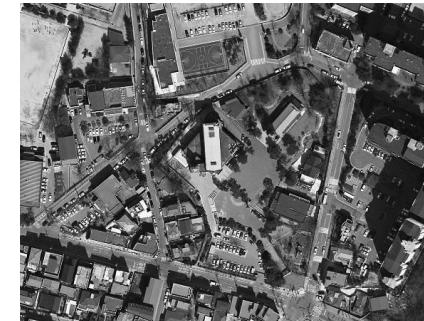
1947년 해방 직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나타난 구포동성당의 위치는 산줄기의 동남쪽에 위치한 언덕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1947년의 구포동성당은 안성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성당이었다. 현재는 꾸준한 개발로 도시가 북쪽으로 많이 확장된 상태여서 도심지에 위치한 성당으로 보이지만, 초창기에는 도시의 북쪽 산 아래 언덕에 위치한 성당이었음을 알 수 있다.(이원규-93)

구포동성당은 1985년 문화재 지정(경기기념물 82호)이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일부 재료의 균열이나 변형이 있으나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축기념성당 남측 서당길과 성당대지로 둘러싸여 섬처럼 되어있는 주택지 8필지는 성당구역에서 볼 때 각 건물의 배면으로 문화재보호경관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또 최고높이 12미터의 규제를 받고 있어 신축이 어렵고 노후화되고 있다.

세계유산등재를 전제로 할 때 순례객 및 방문객의 증가로 인한 여유대지가 필요하다. 구포동성당 종합정비계획보고서(2016)에서는 현상변경 1구역 중 도로에 둘러싸인 사유지 일부는 매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변 환경 정비계획으로 벽돌조 담장을 전통기와 담장으로 교체, 유치원 이전 및 수녀원 개보수를 제안하고 있다.(종합정비계획보고서(2016) 그러나 지방문화재의 한계로 인해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보존활용, 주변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해방 직후 구포동성당 전경



구포동성당 항공사진

2) 고양 행주성당

한국철도시설유산기록기본자료

주변의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 완충구역의 지정이 어렵다. 또한 등록 문화재로 보존구역지정의 한계가 있다.



행주성당의 경관변화 (1932년경 / 1954년 / 1960년)



2015년 복원수리 당시 행주성당 항공사진

관리체계 파악 및 보호, 관리방안 제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국내법에 의해 철저한 보호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옥교회는 총 24개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안성 구포동성당과 고양 행주성당도 각각 기념물과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 문화재나 등록건조물은 건조물 현황파악, 건조물의 이력파악, 주변 환경 파악 등을 위해서 문화재의 목록을 비치하고 정기조사와 보존계획수립, 교구에 보존계획서 제출한다. 정기조사는 매년보고와 5년마다 정기조사실시가 있다. 또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매뉴얼을 확립해야 하고 10년마다 현황분석과 평가를 통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1) 안성 구포동성당

구포동성당은 도시계획체계상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법,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 안성성당 권역은 도시계획법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문화재보호구역 외에 상대정화구역(학교정화법)으로 설정되어 있다. 구포동성당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각종 건축행위기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문화재 보전구역을 중심으로 주변이 현상변경 1, 1-1, 3, 4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 보전구역은 일부를 제외하고 천주교 유지재단 소유로 되어있다.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하여 문화재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구포동성당은 2016년 세계 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목표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안성성당 주변 환경 정비계획사업, 2016~2015, 예스엔 건축사사무소)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안을 수립하였다.

현재의 경기도 기념물에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승급되면 보다 나은 환경으로 보존, 관리 될 수 있어 향후 등재에 유리하다.

2) 고양 행주성당

고양 행주성당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로 행주산성로 144번길 50(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94)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1094m²(건물면적 128,63m²)으로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다.

행주 성당은 등록 문화재로 유지관리에 적용되는 법규에서 지정문화재와 큰 차이가 있어 구조체의 안전성 확보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법, 소방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칭한다) 등에서 벗어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등록문화재는 건축 관련 법규를 모두 적용하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등록문화재의 유지관리 계획에서 용도변경이나 원형복원 등으로 활하중 또는 고정하중이 증가하면 구조체의 보수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된다. 이 공사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은 건축구조기준(KBC)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고, 건축법이 정한 일정 기준이상의 건축물문화재는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권기혁, 2016,-196) 따라서 향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는 지정문화재로 승급될 필요가 있다.

1) 국내 유산과의 비교

국내 비교유산은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한옥교회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남한에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 절충형 교회는 모두 24개다. 경기도 내 안성 구포동성당과 고양 행주성당을 제외한 나머지 한옥교회는 다음과 같다.

(1)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1900, 사적 제424호, 인천광역시 3랑식 중층)

성공회 트롤플프(M.N.Trollope) 신부에 의해 1900년 건립되었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옥교회건물이다. 트롤플프는 250명의 신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교회를 구상하고 설계, 계약, 목재 구입에 이르는 총 공사를 담당하였다. 김희준(마가)을 공사 감독으로 세우고 1899년 가을 터 잡기를 시작한 총 공사기간은 1년이었다. 건축비용은 한국인 신자가 기부하고 Spg의 메리어트 기금에서 500파운드를 기부 받았다.

교회는 배모양으로 닦인 터 위에 건물외형은 전통 한옥, 특히 불당(佛堂)식으로 꾸몄고 배치는 중세 서양 교회건축양식인 바실리카·로마네스크 혼합양식으로 하였다. 목수일은 경복궁 신축 때 도편수로 일했던 도목수가 맡았고 제대·세례대·축대 등에 대한 석공사는 중국인 석공이 담당하였다. 건축에 사용된 목재는 백두산 원시림에서 벌채한 적송이었고 기와와 석재는 순수 강화도산(產)이었다. 강화성당은 1900년 11월 25일에 ‘성바우로와 성베드로 회당’으로 축성되어 봉헌되었다.(이원규, 2016, 60) 건축형식은 중층목구조의 3랑식 평면이고 고주를 사용했다. 솟을대문형식의 외삼문 내삼문을 거쳐 성당에 이르는 과정은 유교건축의 형식을 기독교 건축에 적용한 것이다. 연꽃모양의 지붕 십자가는 물고기 두 마리가 교차하고 있는 형상으로 불교적 의미를 담는 것으로 보인다. 성당출입구 중앙과 제단 위 현관기둥에 보이는 현판은 성서와 기독교 교리를 한자로 축약하여 쓴 것으로 유교적 영향에서 온 장식요소다.(이정구, 정두영, 2007)

순수한 한식목조 건물로 바실리카식 교회건축 공간구성을 잘 구현하였으며 배치 및 외부공간구성도 구릉지 사찰 배치 기법을 잘 응용하여 토착화의 귀중한

사례이며 한옥성당의 모델이 된 건물이다.(김정신, 2012)



강화성당



한국기독교
한옥 절충형
유산 기초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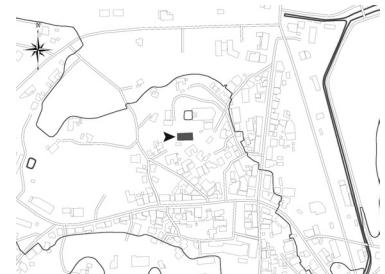
(2) 대한성공회 온수리성당 (1906, 인천유형문화재 52호, 인천광역시 3랑식 평면)

1904년 힐러리(F. R. Hillary) 신부가 오면서 본격적인 선교의『성공회 강화성당 실측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3, p.95) 확장이 이루어 졌는데 당시 주변 마을의 신자들과 함께 교인 수가 급증하게 되자 강화읍교회와 거의 같은 규모의 한국식 건축양식의 새 성당을 힐러리(길강준)의 책임아래 1906년에 신축하였다. 온수리 성당의 건축 과정에는 지역민들 자체의 현금과 현납된 대지를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만, 건축 의도는 영국 성공회 신부인 힐러리 신부의 직접적인 관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교회인 강화읍교회와 더불어 한국 전통건축양식을 접목시킨 세련된 토착화된 교회건축양식을 구현할 수 있었다.

1906년 건축되었으며 일자형 한옥으로 외삼문 형식의 종루를 통해 진입한다. 성당정문은 솟을대문 형식이다, 3랑식이고 가운데 복도를 통해 남녀석을 구분했다. 사제관은 1898 트롤플프 신부가 세운 것으로 1933년 원형대로 중수한 것이다.(김정신, 2012)



성공회 온수리 성당



(3) 대한성공회 청주 수동성당 (1935, 충북유형문화재 149호, 충청북도 3랑식 평면)

1920년대 청주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성공회 지도부는 충북 선교의 거점을 진천에서 청주로 옮길 것을 결정한다. 대한성공회 주교였던 세실 쿠포주교에 의해 1935년 9월 완공된 청주 ‘수동교회당은 청주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우암산 서편 언덕에 자리하게 되었다. 구내에 신학교 시설까지 갖춘 새로운 스테이션이었다. 건축비는 영국 버밍햄의 성 그레고리교회(St. Gregory Church) 교인들의 지원이 있었다.

정면 4칸 측면 8칸의 팔작지붕 형태로 3랑식 단층에 고주를 사용했다 외벽의 하부는 벽돌을 쌓았고 상부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였다.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한국 전통기와집의 형태이지만, 서양식의 개구부(開口部)와 붉은 벽돌의 사용, 그리고 주춧돌의 형태 등에서 근대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손현강, 2008, 110). 창문 상부는 아치형으로 했으며 출입부 상부는 네모의 교살창으로 되어 기독교건축과 한국의 전통형태를 합친 독특한 양식이다. 이 청주 성공회 본당은 1983년 12월 28일 청주시 유형문화재 149호로 지정되었다. 건물로의 진입은 단변 합각부에 있는 두 개의 출입문으로 이루어진다. 출입문은 남쪽에 위치하면 제단은 북쪽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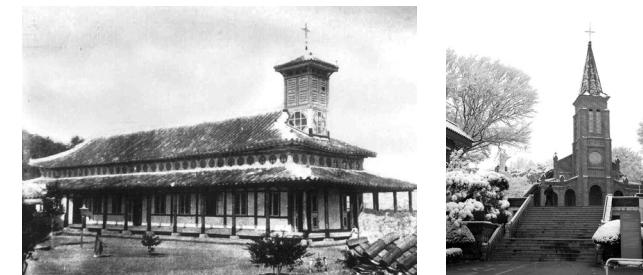


청주 수동성당 (1935년)

(4) 천주교 익산 나바위성당 (1906, 사적 318호, 전라북도 2랑식 중층, 트러스 구조)

김대건 신부 일행이 한국 땅을 밟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베르모렐 신부가 1897년 설립하여 1906년 완공했다. T자형 평면의 특이한 형태를 갖는다. 명동성당의 3대 주임신부였던 포아넬(Victor Louis Poisnel)이 설계를 도왔고 시공은 중국인 기술자가 동원되었다. 이 시기의 한옥 성당으로는 현존하는 유일한 건물이다.(이원규, 2016:38) 남녀석을 구분하기 위해 기둥사이에 칸막이를 두었다.(김정신, 2012)

1906년 건축 당시엔 순수한 한식 목조 건축이었는데 그 사용 목재는 부여군 임천면에서 뗏목으로 금강을 도강하여 목도로 운반하여 왔다고 한다. 당시의 사진을 보면 정면 및 퇴칸이 마루로 되어 있으며 정면 가운데 목조 종탑과 십자가가 있다. 이는 중국인 기술자가 시공은 맡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식 성당건축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후 1916년 고딕식 벽돌조 종각을 정면 퇴칸에 덧붙여 증축했으며 이때 목조로 된 벽을 혀고 벽돌로 쌓았고 퇴칸의 마루를 없애고 회랑으로 만들었다.



나바위성당

1 ·
나바위성당
한옥절충형 기독교 유산 기초조사
—

(5) 천주교 서산 등문동성당 상홍리공소 (1919, 충청남도등록문화재 338호, 3랑식 중층)
금학리에 있던 본당이 상홍리로 옮겨지면서 한옥성당과 사제관이 지어졌다. 규모는 작으나 삼랑식 중층구조로 성공회 강화성당과 비교되는 건물이다. 중삼문형식이 전통목조 종탑이 특이하다. 종루는 1940년 해체되었던 것을 1986년 복원한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8개 원주가 팔작지붕을 받치고 있으며 누하진입을 하게 되었다. 삼문형식의 유교적 공간배치기법을 적용했으며 고해소를 남녀로 나누어 유교사상의 흔적을 볼 수 있다.(김정신, 2012)



서산 상홍리 공소

(6) 천주교 장수 수분공소 (1913, 등록문화재 189호, 전라북도, 3랑식 단층 2고주 5량)

1913년 지어진 후 1921년 개축하였고 1926년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3랑식의 바실리카 평면을 취하고 있다. 기와가 초기의 흙기와에서 현재의 함석으로 바뀌었다. 흙기와는 함양, 목재는 4km 밖의 장수군 번암면의 금천 앞산에서 신자들이 직접 옮겼다고 한다. 건물은 처음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붕만 변형되었다. 1970년대에 시멘트 기와로 교체하였지만 하중을 견디질 못하여 1980년대에 함석지붕으로 교체하였다. 현재는 함석지붕으로 되어있고 지붕을 교체하면서 목가구의 결구를 잡아주기 위해 철물로 보강을 하였다. 수분공소의 설계와 시공은 정확한 기록이나 전해지는 것이 없어 미상이나, 시공 과정은 신도들이 참여했던 것이라 한다.(이원규, 2016, 53) 목구조 부재가 자연그대로의 곡재를 사용한 것은 한국건축의 멋을 잘 살린다.(문화재청, 2007)



장수 수분공소



(7) 천주교 진안 어은공소 (1909, 등록문화재 28호, 전라북도)

1901년 7칸 규모의 한옥성당을 완공하였고 1904년 15칸의 한옥성당을 신축하였다. 현재의 공소는 1909년 3월 너와지붕의 목조구조로 새롭게 준공된 것이다. 지붕의 형태는 팔작지붕이다. 건물은 정면 6칸 측면 4칸으로 아(亞)자 형식의 평면



진안 어은공소



을 이룬다. 장면을 정면으로 삼았다. 가운데 기둥을 칸막이로 막아 남녀석을 구분했다, 한옥교회 중 너와지붕을 가진 유일한 사례다, (김정신 2012)

(8) 강경 북옥감리교회 (1923, 등록문화재 42호, 충청남도)

강경 북옥감리교회는 1918년 10월 18일 성결교로 창립되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초대감독이자 경성신학교의 초대교장이었던 영국인 존 토마스 목사는 1919년 3월 만세운동에 휘말려 일본인들에게 구타를 당하였고, 영국은 일본으로부터 토마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때 받은 보상금을 기반으로 강경 북옥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 1922년 부임한 이인범 전도사에 의해 현재의 교회가 1923년 착공되었다. 교회 설계는 미상이나 이인범 목사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공은 한인 목수로 추정하고 있다. 북옥 교회는 장방형의 평면을 가진 드문 사례이다. 간벽은 적벽돌로 조적하였으며 천장은 서까래를 노출시켜 구조미를 나타낸다. 4칸×4칸 규모의 정방형 평면이며 배면에는 한 칸을 물려 강단을 설치하였다. 한국의 일반적인 목조건축물의 정면이 칸수가 더 많고 측면과 정면이 훨씬 칸으로 구성되는 것과는 다르다. 또한 정면과 측면의 칸수가 동일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임지붕을 취하지만 북옥 감리 교회는 팔작지붕을 하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전면에 문을 두 개 만들어 남녀의 출입을 구분하였다.



강경 북옥감리교회



(9) 김제 금산교회 (1908, 등록문화재(전북문화재자료) 136호, 전라북도)

금산교회는 미국 남장로교회 전주 선교부의 테이트(Tate, Rev. Lewis Boyd)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1905년 설립된 1년 후 교회 내에 유광학교를 설립하여 청년 교육을 시작하였다. 1905년 교회는 5칸이었다가 신자가 점차 늘면서 1908년에 지금의 'ㄱ'자형 한옥교회를 새로 옮겨지었다. 배제에 있던 전주 이 씨 문중의 재실을 옮겨 지은 것이라 전해진다. 기둥 등에서 구부재를 사용한 흔적을 볼 수 있으며,

그해 4월 3일에 상량하였다. 김제의 금산교회와 익산의 두동교회(전북문화재자료 136호)는 전북을 대표하는 특징적인 기독교 건물이다. 두 곳은 모두 전형적인 ‘ㄱ’ 자형 예배당으로 남자석과 여자석을 분리하여 남녀가 서로 쳐다볼 수 없게끔 설계 되었다. 남녀유별의 전통과 서양 종교의 만남이 이러한 형태의 건물을 낳은 것이다. 1908년 건축된 ‘금산교회’는 전형적인 단층 고폐집의 한옥 목조건물이며, 처음에는 초가지붕이었지만, 현재는 시멘트 기와로 올렸다.(송현강, 2008, 117)



김제 금산교회

(10) 되재성당지 (1895, 전북기념물)

고산 되재성당은 고산 본당으로 부임한 파리외방전교회의 비에모 신부를 주축으로 진행되었다. 1895년 약현성당에 이어 두 번째로 완공되었으며 최초의 한옥성당으로 추정된다. 목재는 완주 화암사에서 구매하고, 일부 목재는 충청도 은진 쌍계사를 매입하여 절을 뜯어 사용했다고 한다. 공사비는 비에모 신부가 비축한 돈을 사용하였고 부족한 금액은 프랑스에서 대부를 받아 보충 하였다(호남문화재연구원, 『완주 되재성당』, 완주군, 2008, p.22 발췌-32-26) 동학란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6·25 전쟁으로 소실되었다가 성당자리에 공소 건물로 신축한 뒤에 2009년 발굴조사 및 사료조사를 토대로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고산 되재성당을 제외한 19세기 말 성당은 원형이 남아있지 않지만, 고산 되재성당은 뮈텔(Mutel) 주교의 일기를 통해 평면이 확인되고 있어 당시의 전통양식 교회 건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이다. 사료를 통해 볼 때 되재성당은 출입구가 동남향을 하고 있는 장축형의 평면으로 전체 간(間)수는 5×10칸이며 예배공간에 사용되는 실내 공간은 3×8칸이다. 장면의 양측 퇴칸은 빗마루를 설치했는데 연결된 마루가 아닌 한 칸마다 건너뛰어 설치했다. 실내 평면의 가운데에 열주를 두어 실내 공간을 양분하였고 남녀를 분리하여 예배를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김정신, 『역사, 전례, 양식으로 본 한국의 교회건축』 p.172)



되재성당 원래 모습과 복원된 모습

(11) 원주 흥업성당 대안리공소 (1906, 등록문화재 140호, 3랑식 단층 무고주 오량)

대안리공소의 건립은 1900년대 초반 드브레(Deverd) 신부가 원동 성당에 재임 하던 시기로 추정된다. 공소의 설계는 드브레 신부와 김원식씨가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초기의 대안리공소는 2칸×4칸의 규모로 초가집이었으나 이후 몇 번의 개·보수가 있었으며 출입구 쪽으로 2칸이 증설되고 전실 형태의 출입구가 추가된 것이다.



원주 대안리공소

(12) 천주교 정읍 신성공소 (1909, 전북문화재자료 180호, 3랑식 단층 2고주 오량)

신성공소는 1903년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초가 4칸과 성당기지 1,200평을 매입했다고 한다. 이후 1909년 프랑스인 미알롱 신부가 부임하여 성당 8칸 와가, 사제관(현 공소강당) 4칸, 회합실 6칸을 신축하였다. 그 후에 서정수(알릭스)신부가 부임하면서 1936년에 교세를 넓히기 위해 본당으로 쓰이던 건물을 매각하고 명덕동에 성당부지를 매입하였다. 현재 있는 공소는 교도들이 공소로 사용하기 위해 사제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하였으며, 사제관은 우측 끝에 부엌이 있고 세칸의 방과 서쪽 1칸의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현 공소강당은 정면 4칸, 측면 3칸의 한식 목구조로 좌우 고주에 의해 신랑과 측랑이 뚜렷이 구분된 삼

랑식 장방형 평면이며 지붕가구는 2고주 5량 구조이다. 출입문은 삼면에 나 있고 팔작지붕에 기와를 얹었다(본래 사제관의 평면은 우측 끝에 부엌이 딸려 있었고 세칸의 방과 서쪽 1칸의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었다).(김정신, 2012) 신성공소는 2003년 7월 부재의 부식으로 인해 기둥 4개, 보와 도리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하였다.



원주 신성공소

(13) 대한성공회 진천성당 (1923, 등록문화재 8호)

1908년에 60칸 성당을 축성하여 그해 말부터는 거니가 주임사제로서 상주하기 시작하였다. 1908년에 지어진 성당은 「자」 형으로 순수한 한식 목구조 건물이다. 용마루 끝에 십자가를 달았다. 최초의 진천 성당은 1920년 화재로 전소하였고, 1923년 다시 붉은 벽돌에 단층 팔작 목조 기와로 된 전통 한옥의 교회 건물을 짓게 된다. 1976년 진천읍 도시계획에 의해 소방도로가 성당을 가로지르게 되었다. 따라서 진천성당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신자들의 항의로 군에서 이전비용을 대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된다. 1970년대 이전(移建)되면서 일부 훼손되기도 하였지만, ‘진천교회’가 현 교성리로 옮기면서 처음 모습으로 복원되었다.(송현강, 2008: 109) 진천군 교성리에 있는 한옥교회(등록문화재8호)는 1923년 건축된 교



대한성공회 진천성당

회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14) 강화 서도중앙교회 (1923, 인천문화재자료 14호, 2고주 7량가)

1902년 5월 감리교를 전도하기 위해 매음리의 윤정일이 주문도에 들어왔고, 뱃일을 하던 천주교 신자 김근영이 감리교로 개종하였다. 이후로 한동안은 신자가 없었으나 감리교로 개종한 김근영은 1905년 진촌 대빈창 주변의 옛 군영지를 불하 받아 영생학교를 세우고 신식교육을 시작하였다. 이후 주문도의 양반가 박 씨 문중이 교인이 되었고, 이때부터 신도수가 점차 늘기 시작하였다. 1923년 7월 교인들의 현금을 모아 지은 교회이며, 진천교회였던 이름을 후대에 서도 중앙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우동선, 이고은,『강화 서도 중앙교회의 조사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17권 5호, 2008) 서도 중앙교회는 현존하는 개신교의 전통양식 교회건축 중에서 유일한 장방형 3량식 평면 구성이다.



강화 서도중앙교회

(15) 익산 두동교회 구본당 (1929, 전북문화재자료 179호)

두동교회는 1923년 건립되었는데 지역의 지주였던 박재신의 집을 예배소로 시작하였고, 이후 신자들이 힘을 모아 현재의 「자」 교회를 완성하였다. 건립된 위치와 배치 방향을 보면 인근 마을의 남쪽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주 출입구는 동향을 하고 「L」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김제의 ‘금산교회’(전북문화재자료 136호)와 익산의 ‘두동교회’(전북문화재자료 136호)는 전북을 대표하는 특징적인 기독교 건물이다. 두 곳은 모두 전형적인 「ㄱ」자형 예배당으로 남자석과 여자석을 분리하여 남녀가 서로 쳐다볼 수 없게끔 설계되었다. 1923년 지어진 ‘두동교회’는 ‘금산교회’와 비슷하지만 지붕의 재료만은 처음부터 함석이었다.



익산 두동교회



(16) 진주 문산성당 (1906, 1937 등록문화재 35호, 3랑식 단층 무고주 칠량)

1905년 뮌텔 주교는 문산 본당의 설립을 명하고, 마산 본당에 부임했던 줄리엥 신부는 이듬해 문산의 초가집을 매입해 본당으로 승격된다. 이후 1908년 찰방관서 였던 기와집 10여 채를 사 지은 것이 현재의 진주 구 문산성당이다.(문산성당 100년사 편집위원회,『문산 성당 100년사』, 2007) 1937년에는 고딕양식으로 현재의 본당을 축성하면서 현재는 강당으로 쓰이고 있다.



진주 문산성당



그밖에 다음과 같은 한옥성당이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었다.

(17) 1917 울진 행곡교회 등록문화재 286호

(18) 1903 영천자천교회 경북문화재자료 453호

(19) 1938 밀양 명례리 명례성당, 경남문화재자료 526호

(20) 1936 울진 용장교회, 등록문화재 287호

(21) 부여 금사리 성당(1901-6) 충남기념물 143호

① 비교연구를 통한 유산의 특징

비교 연구의 대상인 등록 또는 지정문화재 한옥교회는 모두 한국의 전통목구조를 이용하여 내부공간을 단층 또는 중층으로 3랑 혹은 2랑식 공간으로 만들어서 한국의 전통목구조로 기독교 전례공간을 수용했다. 기독교 전례를 수용하기 위해 단면을 정면으로 종 방향 건물배치를 하고 전통사상인 유교의 영향을 반영하여 (ㄱ자형 평면이나 중간 장막설치 등)남녀석을 구분했다. 한국건축의 특징인 좌식 생활을 교회건축에 반영하여 독특하게 교회 내부공간을 마룻바닥으로 만들었다.

안성 구포동성당은 다른 한옥성당과 비교하여 유일하게 중층구조로 이층마루가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교의 전례공간을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또 성당 내부입면이 1층의 아케이드와 2층 갤러리 및 고창으로 3분할 되어있어 국내에 있는 한옥교회 중 중세교회의 수평 수직 3분할구성을 완전하게 구현한 유일한 사례다. 남녀석의 구분은 없으나 한옥구조이면서 서양 중세 교회의 내부공간구조를 충실히 갖춘 안성성당은 동서융합의 탁월한 사례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지붕구조와 목조디테일은 서양건축과 절충된 모습을 보여준다.

행주성당은 1900년대 초 지어진 단층 3랑식 한옥교회 유형을 잘 보여주며 작은 규모로 남녀석이 구분된 한옥교회의 정형을 대변한다. 그러나 행주성당은 최초의 위치에서 2차(1918년, 1931년)에 걸쳐 이전하였고, 2015년에 1949년을 시점으로 해체 복원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2) 국외 유사 유산에 대한 비교분석

국외 유사 유산으로는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기독교 교회유산과 등재 목록에 있는 동아시아, 즉 일본의 기독교 유산을 대상으로 하였다.

1. 필리핀 바ロック 성당 (16세기, 1993, 세계유산등재 기준 2, 4)

마닐라, 산타마리아, 파오아이, 미아그아오에 있는 바ロック 양식교회 4채로 중국과 필리핀 장인들에 의해 지어진 유럽바ロック 양식을 재해석한 교회로 평가된다. 이 교회양식은 새로운 교회건축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이후 이 지역 교회건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 등재기준 ii)와 iv)가 적용되었다.



마닐라 사나구스틴성당



산타마리아성당

(2) 우르네스 목조교회 (12–13세기, 노르웨이, 1979년 세계유산등재, 기준 1, 2, 3)

우르네스 목조교회(노르웨이 어로는 ‘Urnes stavkirke’)는 빙하 계곡을 배경으로 송노피오라네(Sogn og Fjordane)의 북쪽 제방에 있는 목조 교회이다. 12세기 ~13세기에 건축되었으며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전통적인 목조 건축 양식을 잘 보여 준다. 켈트 예술이 남긴 흔적과 바이킹의 전통, 로마네스크 양식의 공간 구조를 함께 담아낸 우수한 건축물로 등재기준 i), ii), iii)이 적용되었다.



우르네스 목조교회, 노르웨이



(3) 페테예베시 옛교회 (1763–1765, 핀란드, 1994년 등재, 기준 4)

목조 통나무로 지운 중앙집중형 교회로 유럽 북부 개신교회의 건축미를 잘 표현한다. 십자형 평면으로 17세기 말 도시에서 발전하여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복원 시 전통기술과 재료의 사용으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보인다. 동부 스칸디나비아 전통 목조교회 건축의 대표적 사례다.



페테예베시 옛교회



(4) 남부 리틀 폴란드 목조교회 (2003년 등재, 기준 3)

중세유럽이라는 다소 폐쇄된 지역에서 행해지던 로마 가톨릭교회의 전례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리틀 폴란드의 목조교회들은 중세교회건축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교회들은 통나무 가로 쌓기 구조를 만들어진 고딕양식 교회들 중 현존하는 가장 대표적 사례이다. 예술적 기술적 면에서 특히 인상적이며 귀족들과 통치자들로 부터의 후원을 통해 정치사회적 명망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남부 리틀 폴란드 목조교회



(5) 슬로베키아 마르파디아 산맥 목조교회 (16–18세기, 2008년 등재, 기준 3)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그리스 정교교회의 총 8개로 16~18세기 목재를 주재료로 이용한 전통건축기술을 바탕으로 고립된 마을을 중심으로 입지해 있다. 공통적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각 신앙에 따른 평면배치와 내 외부공간, 외관 등에 차이를 보이며 건축된 시기별로 주요한 건축적 미학적 양식을 드러낸다.

카르파디아 북서지역의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의 라틴 문화, 비잔틴 문화가 합되어 형성된 다양한 민족 문화 간의 특성과 전통종교 건축의 특징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루터교회는 합스부르크에 대항했던 유혈저항과 17세기 항쟁기 헝가리

북부에서 이루어진 종교적 관용을 보여주는 이례적인 사례다. 18세기말 유럽 목조 종교건축물의 뛰어난 사례다. 특징적 형태와 건축양식 소박한 장식은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의 전통건축양식의 영양을 받은 이전시기의 지역적 전통에서 연유했다. 다양한 디자인은 기술적 해결책, 독특한 장식적 표현을 통한 동양과 서양 건축 사상의 반영을 찾아볼 수 있다.



슬로베키아 마르파디아 산맥 목조교회



(6)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카르파티아 지역의 목조 체르크바 (16개, 2013년 등재, 기준 3, 4)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카르파티아 산맥에 입지하고 있으며 한때 슬라브 지역에서 널리 유행했던 건축형태다. 피라미드형 둑에 쿠플라와 종탑을 갖춘 3분할의 형태로 동방정교회의 전례에 잘 부합되면서 산악지형에서 발달한 공동체 문화와 전통을 반영한다. 동방정교회의 전통과 지역특유의 건축적 개념이 융합되어 빚어진 체르크바는 독창적 종교건축의 전통을 보여준, 특출한 증거다.(등재기준 iii)) 체르크바는 전통공법인 통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일군의 건축물들로서 탁월한 증거이다 카르파티아지역에서 발달한 건축설계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한 단계를 보여준다.(등재기준 iv))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카르파티아 지역의 목조 체르크바



(7) 칠로에 섬의 교회들 (17-18세기, 2000년 등재, 기준 2, 3)

칠로에의 교회들은 유럽문화와 전통 토착문화가 성공적으로 융합한 독특한 목조 건축물의 뛰어난 사례다 (등재기준 ii)) 17~18세기 예수회 선교활동의 산물인 메스티조 문화는 칠로에 섬에 본래의 모습 그대로 잘 남아있으며 이를 가장 잘 표현한 칠로에 교회들은 우수한 목조교회 건축물이다. (등재기준 iii))



칠로에 섬의 교회들



(8) 마라무레슈 목조 교회 (17-18세기, 루마니아, 1999년 등재, 기준 4)

그리스 정교회의 종교적 전통과 목재건축물의 토속적 해석에 따른 고딕양식의 영향적 교류를 통해 발생한 토속적 종교적 목조건축물의 두드러진 사례다. 이 건물군은 이 지역 목조교회의 발달단계를 잘 보여준다. 높은 수준의 예술적 성숙성과 기술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스 정교회의 종교적 전통과 목재 건축물의 토속적 해석에 따른 고딕양식의 영향의 교류를 통해 발생한 토속적, 종교적 목조건축물의 두드러진 사례다.



마라무레슈 목조 교회



(9) 일본 나가사키 잠복기독교도 유적 (2017년 등재 신청 중)

2017 등재 신청 중인 일본 잠복 기독교도 유적에는 구 오우라 성당, 에가미 성당, 구 고린 성당이 포함되어 있다.

① 구 오우라 천주당 (1864, 1879 증축, 국보)

구 오우라(旧大浦) 천주당(1864, 1879 증축, 국보)은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성당으로 교회건축으로서는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되었다. 프랑스인 휴-레 신부와 그를 이은 프티장 신부의 지도에 의해 외국인거류지의가운데 건축되었다. 일본 목수 코야마 히데(小山秀)가 시공하였는데 초창 당시는 목조 3랑식 이었으나, 증축 시 좌우로 1랑씩 넓혀 5랑식 벽돌조 건물이 되었다. 면적 525m²이며, 주랑 폭 20.2척, 측랑폭 12.2척이다. 바닥은 마루이며, 내외벽 모두에 회반죽을 발랐고 천장도 일본식 목골조에 졸대를 붙이고 회반죽으로 마감한 뾰족 아치의 교차궁륭을 이루고 있으며, 목조기둥과 리브의 장식이 뛰어나다. 일본식 목구조로 지은 완전한 고딕풍의 건물로 일본교회건축의 모델이 된 건물이다. 니시자카에서 순교한 26성인에 봉헌한 성당으로 신도발견의 장소로서 종교적 의미도 매우 크다.(김정신, 2012)



구 오우라 천주당



② 구 다이묘지(旧大明寺) 성당 (1879, 1975 해체, 1994 복원)

나가사키만의 오와시마(伊王島)에 창건되었고 프랑스인 후레노(Fraineau)신부의 지도로 다이도오세이치(大渡伊勢吉)가 지었다. 오우라 천주당의 건설에 참여하였던 그는 당시의 지식을 이 성당의 건축에 활용하였다. 1975년에 해체되고, 1994년 나고야 근교 메이지무라(明治村)에 복원되었다. 면적 121m²이며 주랑폭 12.7척, 측랑폭 9.8척이다. 완전한 목구조로 내부는 고딕식이지만 외관은 종루를 제외하면 일반 농가형태이다. 금교시기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다. 내부는 삼랑식이며

가운데 주열의 천장은 각 칸(베이)마다 일명 코우모리(コウモリ)-8분 돔형 교차리브보울트- 천장으로 되어 있다. 양 측랑은 일본풍의 사오불이(竿縁)천장으로 되어 있다. 바닥은 목조마루이며, 제대 우측에는 ‘루르드 성모상’이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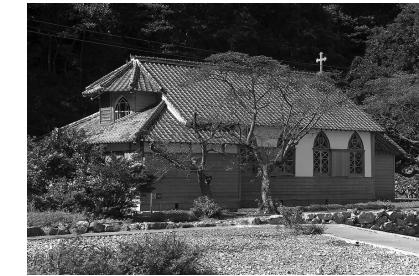
정면의 토간과 종루는 후에 증축되었다.(김정신, 2012)



구 다이묘지 성당

③ 구 고린(旧五輪) 성당 (1881 이축, 국가지정중요문화재)

구 오우라 천주당과 구 다이묘지 성당 다음으로 오래된 목조성당. 1881년에 하마와키 성당으로 건립되었으나 1931년 지금의 자리로 이축하였다. 중층지붕구성의 소규모 성당이다. 전체면적은 213m²이며 주랑폭 12척, 측랑폭 8척이다. 외관은 일본식이되 내부의장은 고딕양식이다. 금교령이 해제되고(1873) 각지에 교회당이 건축될 때 메이지초기의 중요한 건축물이다.(김정신, 2012)



구 고린 교회



④ 호오끼(宝龜) 성당 (1899, 현지정유형문화재)

히라도에 현존하는 최고의 교회당. 마다라 신부의 지도에 의해 지어진 목조성당으로 정면 현관부분에는 벽돌조이며 측면에 망형천장의 테라스가 배치된 것이 특

이하다. 목조·벽돌조 혼합 3랑식으로 목조로부터 벽돌조로의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면적 245m², 주랑폭 14척, 측랑폭 8척이다.(김정신, 2012)

⑤ 예가미(江上) 성당 (1918, 현지정유형문화재)

건물내외가 모두 간소하며 청초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소형교회당이지만 중층 지붕구성을 하고 있으며 조형의 완성도가 높다. 전체면적 166m²이며 주랑폭 12 척, 측랑폭 7.4척이다. 설계시공은 테츠가와 요스케로서 목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사료된다. 건축당시의 신자 수는 40~50호였는데 신자들의 노력봉사로 지어졌다.(김정신, 2012)



예가미 성당



3) 비교연구를 통한 유산의 특징

세계유산으로 이미 등재된 기독교 교회유산은 모두 각 지역의 고유한 건축전통과 기독교 교회양식이 결충되어 독특한 건축형식을 창조한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국의 한옥교회는 동아시아의 고유한 목조건축으로 기독교 교회양식을 수용한 문화적 교류의 뛰어난 증거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한·일 양국의 초기 목조성당은 전통건축술의 바탕 위에서 서양건축술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장식, 상세, 내부입면 등 의장요소에 있어서는 일본이 보다 서양 양식에 근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정신 2012) 즉 일본의 목조는 고온다습한 일본의 기후풍토에 적합하고 양질의 목재가 풍부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서양 목구조체계에 일본지붕구조를 결합한 것으로 주두나 아치, 리브, 보울트에 서양성당건축의 장식적 디테일을 적극적으로 구현하였다. 일본의 19세기 교회는 초기에内外부 모두 목조가 사용되지만 점차 외부는 조적조로 바뀌게 된다. 평면은 전체적으로 이랑식이고, 후에 구 오우라 성당의 영향으로 고딕

성당을 지향하여, 목재로 고딕의 조적조 디테일을 표현하는 의양풍 건축으로 지어진다.

일본의 초기교회와 한국의 한옥교회를 비교한 김정신의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목조건축의 정면과 측면의 축을 바꾸어 서양교회건축의 기본인 바실리카(삼랑식) 형태의 평면을 구성한 점은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일하다. 둘째, 한국은 유교문화의 관습으로 남녀석 구분의 칸막이가 구조에 반영되어 2랑, 또는 4랑식이 있는데 반해 일본은 모두 3랑식(드물게 5랑식)이다. 셋째, 한국은 일체의 장식적 요소가 배제된 순수 전통목구조이지만,(구포동성당의 경우 나중에 장식이 부가됨) 일본의 경우 서양석조건축의 장식적 디테일을 주두, 아치, 리브, 보울트 천장 등에 목공예적인 기법으로 구현하였다. 넷째, 주랑의 폭 대 높이 비, 내부벽면 구성 등으로 내부공간의 공간성을 비교할 때, 한국보다 일본의 목조성당이 보다 서양 중세성당양식에 가깝다. 다섯째, 한·일 초기목조성당은 거의 같은 시기 같은 선교단체의 지도로 지어졌지만 의장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 한국은 평면과 삼랑식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서양 교회건축을 따랐지만 구조기법이나 장식은 한옥의 전통성을 고수하였다. 반면 일본은 평면과 공간구성뿐만 아니라 장식과 디테일에 있어서도 서양교회건축의 양식요소를 일본 전통 목구조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즉 일본의 초기교회는 기본적으로 목조 의양풍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한옥교회는 순수한 한옥구조로 교회양식을 수용한 것이 그 특징이다.

한편, 중국의 초기 성당건축은 개항 후 유럽 여러 나라 여러 종파에서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로마네스크, 고딕, 후기비잔틴, 르네상스, 바로크 등 다양한 양식의 성당건축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지어졌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벽돌 조적조 건축의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서양건축양식을 수용하는데 있어 기술적인 어려움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식 목조 교회는 남아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한옥교회는 이미 등재된 기독교 교회유산과 차별성을 갖는 동아시아의 공유건축유산으로 가치를 갖는다. 동 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중국, 일본은 서양의 건축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19세기 말~20세기 초 한옥 교회건축에서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1) 세계유산 등재 조건

세계유산으로서 등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등재기준의 종족

문화유산으로서 등재기준 i)부터 vi)까지의 등재기준 중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등재기준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희소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른 국내와 국외의 유사한 유산과 비교하여 등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해당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탁월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옥교회의 경우에는 기독교라는 보편적 종교가 한국에 전파됨으로써 나타나는 탁월성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함께 등재기준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하는 기독교라는 서양의 종교가 유교로 대표되는 한국의 전통사회와 만나면서 어떻게 융합하고 한국인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무형의 가치와 연결시킨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유산을 의미하며, 기념물, 고고학적 유적, 건축물(군)에 한정하여 세계유산 등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독교 유산의 경우 남아있는 교회건축물이나 선교유적들과 연결하여 공유건축유산으로서의 교환가치와 함께 기독교 전파와 관련한 순교, 근대 교육의 도입, 서구 문물의 소개 등 등재기준 vi)과 관련한 무형의 가치와도 연결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완전성과 진정성의 종족

완전성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나타내는 구성요소를 온전하게 포함하여야 하는 온전성(wholeness)과 훼손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무손상성(intactness), 파괴나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위협 요인이나 위험 요소의 부재(no threat), 그리고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지리적 규모(appropriate scale)을 전제로 한다. 진정성은 거짓 없는 정보의 출처를 의미하며, 자재와 구성물질, 입지와 환

경, 기술과 전통적 관리체계, 무형의 가치 등의 8개의 요인에 대하여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 유산에 대하여 안성 구포동성당과 행주성당을 포함한 전체 유산에 대한 진정성과 완전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3) 보존관리 체계

법적이나 제도적인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주관 부서의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사적 지정,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등으로 나타내는 요소이다. 보존관리에서는 유산구역과 유산구역을 둘러싸고 각종 개발이나 위협 요소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는 완충구역(buffer zone)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건축이나 선교유적의 경우 등록문화재나 지정문화재 이외에 소유권을 파악하여 완충구역의 설정 가능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4) 지역 공동체 참여

최근 세계유산의 등재에는 해당 주민들이 세계유산의 보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참여를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한다. 따라서 교회건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보존을 위한 노력들에 대한 가치적인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지킴이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의 한옥교회의 등재조건에 대한 평가는 다음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현재의 유산의 성격과 보존 상태로는 경기도의 2개 교회건축물에 대한 세계유산 단독 등재는 불가능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천주교 유산뿐 아니라 기독교 선교 유산을 포괄하여 장기적인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유적지를 정비하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동아시아 기독교 전파역사와 관련하여 유산의 가치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 등재 요건	평가	평가 및 보완사항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등재기준 종족	확대 적용 가능 현재 2개의 교회로는 미흡	등재기준 ii), iii), iv), vi) 적용 천주교와 개신교 종파를 포함한 기독교 전체 유산으로의 확대 가능성 고려
완전성과 진정성 종족	2개의 한옥교회만으로는 미흡 한옥교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평가	완전성의 무손상성, 온전성, 적절한 보호규모 등 미흡 행주성당의 경우 완충구역 설정 어려움 원형에 대한 진정성 미흡
보존관리 체계	일부 요건 충족 추가적인 노력 필요	필요시 사적 지정 필요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지역공동체 참여	확인 불가 추가적인 노력 필요	종교공동체/ 지역공동체 참여도 제고 필요

2) 연속유산으로서 등재할 경우

(1) 유산 성격 – 연속유산

연속유산으로서 등재는 먼저 천주교 한옥성당을 중심으로 연속유산을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개신교 선교기지는 교회를 중심으로 연속유산을 구성할 것인지, 또는 천주교, 성공회, 개신교의 각 기독교 종파를 불구하고 한국으로의 기독교 전파 역사와 관련하여 한옥교회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유산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한옥교회의 세계유산 등재계획은 2010년 천주교 주교회의 세미나에서 처음 발의되었고 그 이후에 다음의 단계를 거치면서 등재 추진이 이루어졌다.

1. 2010. 9 한국천주교 문화유산이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조광교수 정년기념 논총 한국 천주교회사의 빛과 그림자, 호남교회사연구소)
 2. 2010. 11. 26 한국천주교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심포지엄)
 3. 2011. 10. 27 전라북도 천주교 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 모색(전라북도 전북 발전연구소, 전주교구 심포지엄)
 4. 2011 교회사연구소 김성태 신부님 “천주교 유산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유사유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5. 2011. 12. 15 한국 세계유산 잠정목록의 신규발굴 연구보고서 ICOMOS KOREA
 6. 2012. 5. 10 세계유산 잠정목록의 신규발굴 심포지엄 최종발표에서 “그리스도교 한옥교회 군”으로 발표
 7. 2012. 7. 25 한옥교회건축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모색 세미나(대전교수 상홍리 공소)

이런 일련이 과정을 보면 주로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옥교회의 등재가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개신교회를 포함하는 제안은 2012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의 신규발굴 보고서(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2. 5.10)에서 이코모스가 처음 제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코모스는 잠정 유산으로서 한옥 교회군에 대하여 ‘그리스도교 한옥교회군’으로 유산명을 정하고, 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세계에 유래가 없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국교회는 불교문화와 유교문화를 찬란히 꽂피운 민족문화의 바탕위에서 타 종교문화와 공존, 조화하면서 찬란한 성장을 하였다.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것만도 천주교 10개소, 성공회 5개소, 개신교

9개소에 달한다. 한옥교회는 토착화와 기술, 경제적인 배경에서 선교초기부터 일제강점기 말까지 한국교회건축의 주류형식으로 존재했다. 그리스도교 전례의 기능과 상징성을 위해 중세 바실리카식 공간구성을 추구하였고 한옥구조와 형식이 이러한 요구에 적합하게 대응했다. 배치와 내부공간구성에는 유교의 관습과 불교 건축의 의장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한옥교회는 동·서문화융합의 탁월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고유한 유산일 뿐 아니라 보편교회와 인류전체의 문화유산이기도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옥교회로 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24건인데 이 중 2012년 이코모스 보고서에서 완전성과 진정성을 갖추고 있는 세계유산 등재추진 대상으로 논의된 건물은 총 10개이다.(소속 교파는 성공회 3개소, 천주교 5개소, 개신교 2개소다.)

1.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1900, 사적 424호, 인천광역시 3랑식 평면, 중층
 2. 대한성공회 온수리성당, 1906, 인천유형문화재 52호, 인천광역시 3랑식 평면
 3. 대한성공회 청주 수동성당, 1935, 충북유형문화재 149호, 충청북도 3랑식 평면
 4. 천주교 나바위성당, 1906, 사적 318호, 전라북도 중층구조
 5. 천주교 안성 구포동성당, 1922, 경기기념물 82호, 경기도, 3랑식, 중층
 6. 천주교 서산 동문동성당 상층리공소, 1919, 등록문화재 338호, 충청남도 3랑식, 중층
 7. 천주교 장수 수분공소, 1913, 등록문화재 189호, 전라북도, 3랑식
 8. 천주교 진안 어은공소, 1909, 등록문화재 28호, 전라북도, 3랑식
 9. 강경 북옥감리교회, 1923, 등록문화재 42호, 충청남도
 10. 김제 금산교회, 1908, 등록문화재(전북문화재자료 136호, 전라북도)

이상 10개 교회는 한옥교회의 3가지 유형(단층 3랑식, 중층 3랑식, 그자형)을 대표하며 완전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그리스도교 한옥교회군이라는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천주교뿐 아니라 개신교와 성공회의 교파를 모두 망라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개신교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기독교 전파 과정에서 남한 지역에 남아있는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mission station)의 유적들을 기독교의 무형적 가치와 연결시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동서양 건축양식이 혼합된 교회, 학교, 병원, 선교사 사택으로 구성된 선교기지는 남한지역에만 서울에 4곳, 인천 1곳, 강원 3곳, 충청 3곳, 영남 7곳, 호남 5곳 등 모두 23군데 설치되어 있었다. 현재 남한에는 서울 정동, 연지동, 공주, 청주, 대구, 전주, 목포, 광주와 순천에 9개의 선교기지가 남아있는데 이들 기독교 선교기지는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종교, 건축, 사상, 예술을 포함하여 서양문명

의 전파 과정을 보여주는 문명 교류의 증거가 되며 등재기준 ii)과 iii)번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인천과 경기도에는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아담스기념관,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등이 자리하고 있다.(서만철, 이코포럼 발표, 2017년 11월 9일)

그러나 연속유산의 등재를 위해서는 연속유산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망라할 수 있는 등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즉, 임의의 선택에 의한 연속유산이 아니라 연속유산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등재기준 iv)을 적용할 경우에는 유산의 시대별 발전단계를 볼 수 있는 대표 유형으로서 연속유산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 한옥교회군으로 정리한다면 특정 교파만의 입장이 아니라 근대 조선에서 서양기독교와 서양문화의 도입시기와 관련한 무형의 가치와 연계하여 천주교와 개신교의 한옥교회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기독교 유산에 대한 등재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속유산 선별의 기준은 국내법에 의해 문화재의 보존관리가 잘 되어 있고 한옥교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만족시키면서 진정성과 완전성을 만족하는 것이라야 한다. 유산의 선정에서는 지역적, 종파적 안배가 고려되는 것보다는 유산의 가치에 부합되는가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2) 등재기준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세계유산의 등재를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6개의 등재기준 중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등재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한옥교회는 기독교 사상과 전통사상이 융합된 공유건축유산 중 토착문화융합유산으로 분류될 수 있고 등재기준 ii), iii), iv), vi)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이코모스 코리아(ICOMOS Korea,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세계유산 잠정목록의 신규발굴 보고서(2012. 5. 10)에는 10개의 연속유산을 선정하였으나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10개의 유산목록에 경기도내 안성 구포동성당은 포함되고 고양 행주성당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행주성당은 단층 삼랑식 유형을 대표하는 1900년 초 서울에 지어진 최초의 한옥성당으로 가치를 가지므로 주변경관을 정비하고 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면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① 등재기준 ii)

등재기준 ii)는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등재기준 i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옥교회의 공유건축자산 (shared built heritage)로서의 특징을 건축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서양 근대 교회 건축 기법이 한옥의 건축기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독특성을 갖추고 발전하였는가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근대기 중국의 교회건축의 특징이나 일본의 나가사키 기독교 유적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기독교만의 고유한 건축적 특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② 등재기준 iii)

등재기준 iii)은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다. 등재기준 iii)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 한옥교회 건축이 이루어진 희소성과 보존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증거라는 점을 분명히 부각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한옥교회에서 지향하였던 유교의 전통에 기반을 둔 반상의 구별이나 남녀의 구별석 등은 무형의 가치로서 근대화와 서구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점이기적인 종교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안성구포동이나 고양 행주성당에서 나타나는 건축 요소들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등재기준 iii)과 관련하여 한옥교회에서 나타나는 서구화의 도입기에 전통사상과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건축적 요소들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③ 등재기준 iv)

등재기준 iv)는 건축, 기술 등 발달단계를 증거이거나 대표적 유형화의 사례다. 등재기준 iv)의 적용을 위해서는 시기별로 한옥교회군을 분류하고 대표적인 유형을 찾고, 또한 교회 건축기법의 발달 단계나 그 배후에 있는 교회 건축의 상징성 등에 대한 유형화가 필요하다. 천주교 한옥교회나 개신교 교회 등에서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부각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하게 시기별 발달 단계 보다는 종파별 교회의 특징이나 시기별 공통 요소, 동아시아 교회 건축에서 나타나는 공통 점과 차별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 등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④ 등재기준 vi)

등재기준 vi)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준으로서 ii), iii)과 함께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등재기준 vi)은 세계사적인 이벤트나 무형의 가치와 관련한 기준으로서 기독교의 동아시아 전파, 한국으로 전파과정과 순교의 역사와 관련하여 그 세계사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입증의 방향성

(1) 진정성에 대한 평가

진정성이란 ‘베니스 헌장’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한 정보 출처에 유산가치가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진정성은 진실성과 신뢰성을 의미하고 있다. 1994년 일본 나라에서 진정성에 대하여 정의한 나라헌장(Nara Document)에서는 진정성을 표출하는 항목으로 형태와 디자인, 자재와 구성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기술·관리체계, 입지와 주변 환경, 언어와 다른 비물질적 전통, 정신과 감정 및 기타 내외적 요인들을 증명하여야 한다.

첫째, 형태와 디자인은 변화와 변화 정도, 디자인과 형태의 정확성, 변화 자체가 가치인지에 대한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자재와 구성 물질은 자재의 대체정도, 수리나 복원의 원형과의 유리 정도를 의미한다. 한옥교회의 경우 복원을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록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용도와 기능은 관련 대상의 변화 정도와 원인을 설명하고, 그 바탕이 되는 사회적 체제를 밝히는 것이다. 한옥교회의 용도와 기능은 기독교 종파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형화를 위해서 용도와 기능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전통, 기술, 관리체계 항목에는 유산을 유지하는 사회적 메커니즘, 변화 여부와 정도, 이유, 수리 여부와 관련성 및 정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넷째, 입지와 주변 환경에 대한 항목에는 환경 변화 여부와 정도에 대한 서술과 경계 확정에 대한 서술이 포함된다. 한옥교회의 입지와 주변 환경에 대한 일반화와 고유한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섯째, 언어와 다른 형태의 비물질적 전통의 항목에는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변화와 유산과 관련한 사회적 기제, 지역공동체의 특성과 위협 요소 등이 포함되어 설명된다. 특히, 한옥교회와 관련하여 기독교 전파과정에 따른 순교 등의 비물질적이고 무형적인 가치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신과 감성 및 기타 내·외부 요인들에는 유산의 상태 변화와 정도, 유산의 쇠퇴 여부, 이를 둘러싼 사회 메커니즘과 이해당사자가 되는 집단의 특성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의 갈등과 이런 유교적 사고방식이 서양식 교회건축에 반영된 건축적인 증거 등은 진정성을 입증하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 교회건축이 경우 복원에 대한 진정성 입증이 필요하다. 1900년대 초 지어진 한옥교회 가운데 규모가 크고 당시의 명확한 건축유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대구 계산동 구 성당과 수원 갓등이 옛 한옥성당이 있다. 이들은 2층 규모의 대

규모 한옥성당으로 지금은 철거되었으나 사진과 간단한 도면이 남아있다.(김정신, 2012) 이는 1900년 경 발전된 한옥교회의 명확한 건축유형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정확한 고증을 통해 복원하는 방안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김정신, 2012) 갓등이 옛 한옥성당은 한옥성당의 여러 유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유형인 ‘단층 3량식’으로 장면 대 단면의 비가 가장 높은, 즉 종축길이가 횡축 폭에 비해 3배가 넘는 성당이다. 또한 규모 또한 300석을 수용할 정도로 매우 큰 편에 속하고 있다.(김정신, 2012)

(2) 완전성에 대한 평가

완전성은 구성요소, 영역의 완전성, 보존관리상태 등, 온전성, 무손상성, 위협요소의 부재를 의미한다. OUV를 만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의 보존을 위해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는 점에서도 사유지가 대거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사유지 매입과 경관 보호 등의 장기적인 계획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발압력이나 환경압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교회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치명적인 도시화의 압력이나 개발압력에 의한 경관 훼손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보존관리 우선사항과 절차를 반영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산구역의 경계설정도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규모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존 관리 계획 수립의 방향성

(1) 사적 경계의 보완을 통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설정

세계유산등재를 위해서는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명확한 경계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옥교회의 경우 유산구역의 설정은 무난하나 완충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찾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종합정비계획 마련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연속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공동등재를 위한 협의체나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한옥교회는 3개 종파, 5개 지자체에 걸쳐있어 홍보, 보존관리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 교파적 한옥교회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 등 통합관리 조직이 필요하다. 민간이 주도하고 교회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트러스트의 조직도 바람직하다.

(3) 지역공동체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세계유산 등재에서 지역공동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교회 인근의 주민들에게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활동과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과 함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참여 활동을 종교공동체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에서도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8.

참고
문헌

한국 교회 일반

- 이원규, 2016. 「20세기 초 전통양식 교회건축의 가구구조 특성과 변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2009, 「한국 천주교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침」, (안성시보고서 2016 수록).

이코모스, 2012, 「세계유산 장점목록 신규발굴 연구보고」, (안성시보고서 2016 수록).

오소미, 2017, 「세계유산 관점에서 본 한옥교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분석」, 『건국대 세계유산학과 석사논문』.

송철의, 김정신 1993, 「한국 성공회 성당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 논문집』.

송철의, 1993, 「한국성공회 상당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논문』.

김성우, 한광선, 송석기, 2001, 「한옥교회 건축형식의 성격과 전개과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17. 9.

김버들, 조정식, 2012, 「개항기 건축 번사창의 지붕구조 분석을 통한 한옥적 특성」, 『서울학연구』, 8.

김정신, 2012, 「역사 전례 양식으로 본 한국의 교회건축」, 서울: 미세움,

김정신, 2001, 「한국의 건축물과 그리스도교」, 『과학사상』, 37.

김정신, 2005, 「한국 근대초기 서양 목구조의 수용과 교회내부공간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4(5).

김정신, 2010, 「초기 양식건물의 보수·보존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0(2).

김정신, 1984, 「한국천주교 성당건축의 변천과정과 토착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8(1).

김정신, 1994, 「한국 가톨릭 성당건축사」, 한국교회사 연구소.

김문수, 홍순재, 1996, 「공소건축의 변천과정과 시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6(2).

박광현, 김태영, 「한옥 공소의 목구조 방식에 나타난 민간 기술자의 현장기법 – 천주교 신성공소와 장수천주교회 수분공소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 12(1).

이희준, 이달훈, 2010, 「초기성당 건축의 건축적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2).

이희준, 2000, 「초기 천주교 성당건축의 건축적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대전대 석론』.

천주교 대전교구 성지위원회 2012, 「한옥교회건축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모색」.

이윤희, 유혜란, 권기혁, 2000, 「근대건축물에 사용된 서양식 목조지붕 트러스의 구조요인 및 기타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김정현, 전봉희, 2010, 「근대기 트러스의 수용과 한식지붕의 구현」, 『건축역사』, 11.

권기혁, 이윤희, 「근대기 서양식 목조 지붕트러스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심인옥, 1993, 「개화기 한옥성당의 건축적 특징에 관한연구」, 『총익대 석론: 웨일주교의 일기를 중심으로 한옥성당의 유형별 분류와 토착화의 관점에서 변화과정의 특징을 파악』.

안성 구포동성당

- 안성시, 2016, 「경기도기념물 제 82호 안성 구포동성당 종합정비용역보고서」
- 천주교 수원교구 안성성당, 2000, 「안성성당, 백년에서 다시 백년으로」.
- 김진범, 2004, 「9세기말 20세기 초 전통건축양식성당의 가구구성에 관한 연구 : 안성 구포동성당과 강화성당 비교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 송경연, 1997, 「안성 구포동성당 조경 설계: 역사경관 보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조용훈, 2003, 「경기도 안성 구시가지 근대건축물 보존 및 재활용을 통한 도심활성화 방안」, 한국과학재단.
- 경기도, 2004, 「경기도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경기도.
- 정정남, 이상구, 「20세기 초 상업적 시가지에 형성된 주택에 관한 연구」.

고양 행주성당

- 강종민, 2011, 「근대사와 영옥을 함께 한 행주성당 100년 이야기」, 서울: 아네스 출판사.
- 권기희, 유혜란, 임남규, 2016, 「고양 행주성당의 복원에 따른 구조보강방식의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2016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5~198.
- 고양시, 2015, 「고양 행주성당수리보고서」.

기타 한옥성당 및 교회

- 이정구, 정두영, 2007, 「유교와 성공회 강화성당 건축」, 한국양명학회.
- 김정신, 1995, 「성공회 한옥성당 건축에 관한 실측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11(2).
- 김정신, 2012, 「갓등이 옛 한옥성당의 복원적 고찰」, 『교회사학』, 제9호.
- 손한울, 김태영, 2010, 「고측랑 3랑식 강화성당의 지붕 가구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2(3).
- 김유리, 1989, 「성공회 강화성당 건축에 관한 연구: 건립배경과 건축요소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11.
- 강영자, 우동선, 2016, 「성공회대 도서관 소장문서를 통해서 본 강화성당 건립과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2(6).
- 문화재청, 「성공회 강화성당 실측조사보고서」, 1997.

- 이정구, 1998, 「Architectural Anglicanism : A Missiological Interpretation of Kanghwa Church and seoul Anglican Cathedral, Thesis(doctoral) The Univ. of Birmingham」,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최영기, 한규영, 2000, 「강화지역 성공회 교회건축의 토착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2).
- 최정신, 한주희, 2003, 「강화 온수리 성공회성당과 사제관 디자인 변형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41.
- 의산시, 2014, 「의산 나바위 성당 종합정비계획」.

- 천주교 원주교구, 2014, 「원주 용소막 성당 수리보고서」.
- 문화재청, 2007, 「장수 천주교회 수분공소 기록화 조사보고서」.
- 문화재청, 1997, 「강경 북옥리 감리교회 기록화 조사보고서」.
- 문화재청, 2007, 「원주 천주교 대안리공소 기록화 조사보고서」.

- 송현강, 2008, 「충청 전라지역 기독교 문화유산의 현황과 내력」,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9.
- 홍대형, 홍순명, 1990, 「한국 초기 개신교회 건축의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0(2).
- 신경희, 김낙준, 2002, 「청주교구 가톨릭성당건축의 특징 - 1910~1969년 성당건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2권 제1호, 289~292.
- 김기주, 2008, 「20세기 초 4x4칸 교회의 평면구성 및 구조형식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영천 자천교회, 북옥감리교회).
- 우동선, 이고은 2010, 「강화 서도 중앙교회의 조사연구」, 『건축역사연구』.
- 정창원, 2004, 「ㄱ자형 교회건축의 탄생기원과 전개영상에 관한 역사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 진경돈, 2001, 「근대초기 절충형 한옥성당에서 나타난 건축표현체계의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화산성당의 건축적 특성과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10권 4호.
- 이기옥, 1997, 「천주교 감곡성당 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목원대 석론.
- 조치환, 1994, 「성공회 청주성당건축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론.
- 이석봉, 2001, 「충청지역 성공회 성당건축의 특성」, 충북대 석론.

비교 연구

- 김정신, 2012, 「한국과 일본의 초기 천주교회 목조 성당건축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28(2).
- 김정신, 2012, 「한중일 초기 성당건축의 의장적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1(3).
- 김승배, 1999, 「韓國, 中國, 日本의 그리스도교 教會建築 受容에 관한 研究」, 『단국대 박사논문』.
- 김승배, 2001, 「서양 문화 수용 인식 차이가 한국·중국·일본의 근대 교회 건축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사연구』, 16 pp.213~263.

||.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기초조사

구성유산 및 유산의 범위

1) 구성유산의 현황

현재, 광주 조선백자 요지는 사적지정 보호구역이 78개의 요지를 보호하고 있으며, 사적 미지정 324개소를 포함 402기의 요지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

광주 지역 내 조선백자도요지 현황

구분	소계	지정	비지정
초월읍	72	15	57
곤지암읍	82	15	67
도척면	31	4	27
퇴촌면	111	22	89
남종면	33	4	29
남한산성면	40	11	29
목현동	8	1	7
탄벌동	14	3	11
송정동	11	3	8
합계	402	78(25군)	324

출처: 경기도 광주시 · 한울문화재연구원, 「광주 조선백자 요지 1차 종합정비계획」, 2016을 바탕으로 정리

1) 경기도 광주시 · 한울문화재연구원, 「광주 조선백자 요지 1차 종합정비계획」, 2016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함. 광주 지역 가마터의 수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추가 혹은 일부 변경이 있어, 조사 당시의 이에 대한 추정으로 산출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추후 최종 보고에서는 이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간보고 시에는 아직 이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소 흔용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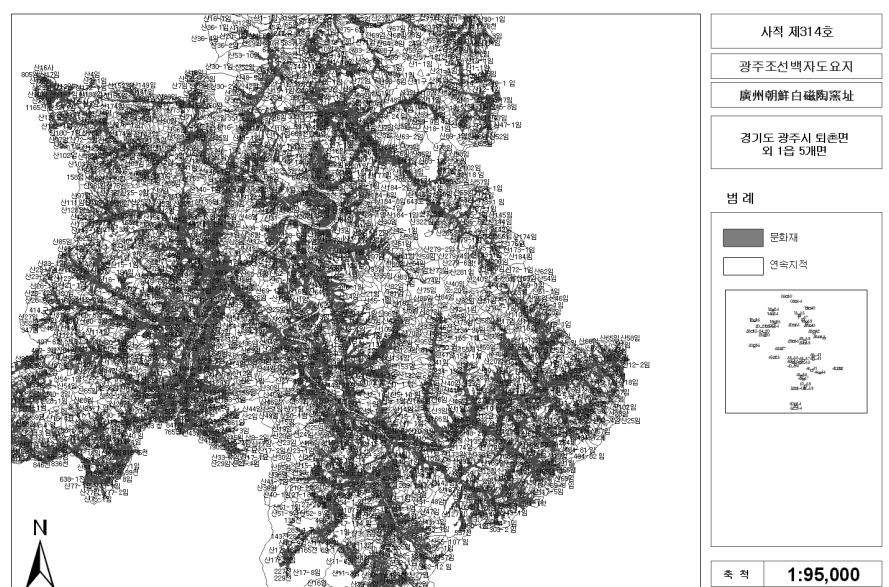
2) 구성유산의 범위 및 현재 조사방향 기준

본 연구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경기도 광주시에 산재하는 조선시대 백자요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유산은 그 개체수가 매우 많고, 해당되는 지역의 범위도 방대하여 대표성을 갖는 구성유산의 대상지의 재범주화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팀은 해당 유산의 세계유산으로서의 유적의 완전성을 기준으로 이 중 주요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조사 및 연구를 진행했다.

조사의 대상지의 범위 설정을 위해 유적의 완전성 검증을 기준으로 광주시 전역에 분포한 조선시대 가마터 중 선행조사를 통해 유적 및 유물에 대한 기초조사가 완료된 요지를 1차 대상으로 자체 선정했다. 그 결과, 이 중 발굴보고서 발간까지 완료된 선행조사 대상요지 11개소와 〈광주 조선백자 요지 1차 종합정비계획〉의 대상지 29개소, 일부 인근 요지를 그 대상으로 삼아 39개소(전체 44개 이 중 5개 제외)를 주요 대상지로 자체 선정했다.

■ 조사 대상지 기초조사
■ 조선백자도요지



광주 조선백자 요지 지적도

(출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관리지도 <http://gis-heritage.go.kr>)

연번	도요지명	선행조사 조정결과 ²⁾	소유지	사적 지정	연번	도요지명	선행조사 조정결과	소유지	사적 지정
1	건업리2호	-		미지정	23	신대리13호	상	사유지 국유지	지정
2	곤지암리3호	하	사유지	지정	24	신대리18호	-		미지정
3	곤지암리6호	하	사유지	지정	25	신대리28호	하	사유지	지정
4	관음리8호	-		미지정	26	신대리29호	-		미지정
5	관음리16호	중	사유지	지정	27	열미리5호(북)	하	사유지	지정
6	도마리1호	중	사유지	지정	28	열미리5호(남)	하	사유지	지정
7	도마리7호	상	사유지	지정	29	오전리3호	하	사유지	지정
8	목현동1호	상	사유지	지정	30	오전리5호	하	사유지	지정
9	무갑리14호	중	사유지	지정	31	우산리2호	-		발굴조사 후 해제
10	무갑리21호	중	사유지	지정	32	우산리3호	-		발굴조사 후 해제
11	변천리4호	상	국유지	지정	33	우산리4호	중	사유지	지정
12	변천리8호	중	사유지	지정	34	우산리9호 (북)	상	사유지	지정
13	변천리9호	-		지정	35	우산리9호 (남)	하	사유지	지정
14	분원리1호	-		지정	36	우산리14호	중	사유지	지정
15	상림리10호	하	사유지	지정	37	우산리17호	-		미지정
16	상림리12호	하	사유지	지정	38	유사리5호	중	사유지	지정
17	선동리2호	중	사유지	지정	39	학동리10호	하	사유지	지정
18	송정동4호	중	사유지 국유지	지정	제외	변천리5호	(지정 오지)		
19	송정동5호	-	(시청)	미지정	제외	변천리21호	(확인된 유구 없음)		
20	송정동6호	-	(시청)	미지정	제외	오향리일원	(출토 유구 없음)		
21	신대리8호	하	사유지	지정	제외	유사리3호	(출토 유구 없음)		
22	신대리12호	상	사유지 국유지	지정	제외	정지리4호	(출토 유구 없음)		

2) 경기도 광주시 · 재단법인 한울문화재연구원, 2016,
『광주 조선백자 요지 1차 종합정비계획』, 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2.

유산
개요

1) 기본 개요

경기도 광주시는 조선시대 전기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 관영 도자기 생산기관인 ‘분원(分院)’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선시대 백자 가마터의 흔적이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조사 및 지역의 문화자산으로서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 전역에 분포한 조선백자 요지는 조선전기~후기/말기에 이르기까지 조선 전체의 자기 생산기술과 생산유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각종 사료 및 조사를 통해 수집된 유물과 유적을 통해 각각 지역에서 가마터가 운영되었던 시기를 다음과 같이 추정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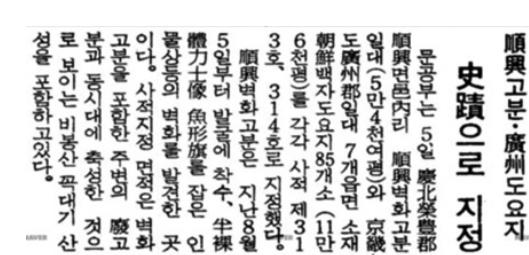
광주시의 조선백자 요지는 1985년 78개소가 국가 사적(사적 314호)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는 사적임을 알려주는 사적비가 설치되어 있다.³⁾

3) 본 연구를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현재 사적비 중 일부는 해당요지에서 벗어난 위치에
설치되거나 결실된 예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017년 9월 기준).

광주 지역 내 현황

지역	요지 수(지정구역 수)			추정 시기	
	수량	소계	합계		
퇴촌면	우산리	21(6)	77(22)	312(76)	15세기
	도마리	7(3)			15/16세기
	도수리	9(3)			15/16/17세기
	원당리	1(0)			-
	관음리	35(8)			16/17/18세기
	정지리	4(2)			16세기 말~17세기
중부면	번천리	22(7)	29(11)		15/16세기
	오전리	7(4)			15/16세기
	무갑리	24(5)	57(13)		15/16세기
초월읍	학동리	16(3)			15/16세기
	쌍동리	2(0)			15/16세기
	대쌍령리	5(1)			16세기
	산이리	1(0)			15~16세기
	지월리	4(2)			1677~1680년
	선동리	5(2)			1640년대
도척면	상림리	16(2)	27(4)		1629~1640년대
	궁평리	9(2)			17세기 말~18세기 초/19세기 말
	유정리	2(0)			17세기 후반
동	목현동	7(1)	26(7)		15/16세기
	탄벌동	11(3)			17세기 초
	송정동	8(3)			1649~1659년 경
실촌읍	열미리	12(4)	67(15)		15/16세기
	건업리	2(0)			15세기
	장심리	3(0)			15세기
	곤지암리	7(2)			16세기
	유사리	9(3)			1660년대
	신대리	28(5)			1660~1670년대/15세기
	오향리	6(1)			15세기
	귀여리	11(0)	29(4)		15세기
남종면	금사리	11(2)			1721~1751년 경
	분원리	6(2)			1752년~19세기 말
	삼성리	1(0)			-

(출처 : 조선관요박물관,『광주의 조선도자요지』, 2004를 바탕으로 정리)



사적비 설치 모습

기초자료 도자기 조선백자 관리

사적 제314호 지정 관련 기사
(출처 : 1985. 11. 6. 동아일보)

현재 사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에서는 광주 조선백자 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해당 유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내 사적 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종 목	사적 제314호
명 칭	광주 조선백자 요지 (廣州 朝鮮白磁窯址)
분 류	유적건조물 / 산업생산 / 요업 / 도자기 가마
수량/면적	382,738㎡
지정(등록)일	1985. 11. 07.
소 재 지	경기 광주시 중부면, 광주읍, 초월면, 도척면, 실촌면, 남종면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관리자(관리단체)	광주시
내용	도요지는 그릇이나 자기를 만들어 굽던 가마터를 말한다. 남종면·중부면·퇴촌면 등 광주시 일대에는 도자기를 굽는데 필요한 흙이 나오며, 나무와 물이 풍부하다. 제품의 공급지인 서울과 가깝고 한강을 이용한 운반의 편리성으로 인해, 조선 영조 28년(1752) 궁중음식을 담당하던 사옹원의 분원으로 지정됐다. 그 후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130여 년 동안 285개소의 가마터가 이 일대에서 번창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국가 사정이 어려워지자, 분원리 가마터는 개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갔다. 그 후 여러 계층의 수요와 요구에 따라 자기의 모양과 무늬가 다양해졌으며, 청화백자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가마터의 구조는 오름 가마이며, 계단식 가마도 확인되었다. 여러 모양과 무늬를 새긴 자기들이 출토되었고, 글씨가 새겨진 도자기를 통해 제작시기도 알 수 있다. 이 일대는 조선 전기에서 후기까지 질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내던 중심지였기에 조선 도자사 연구에 기반이 되는 곳으로서 매우 가치 있는 곳이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광주 조선백자 요지의 역사적 배경을 살려 2001년부터 경

기세계도자비엔날레, 왕실도자기축제 등 역사·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 및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 행사는 광주뿐만 아니라 인근 여주, 이천 지역을 연계한 도자클러스터 산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도자문화 중심지로서 광주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회차 별 정보

회차	개최일시 및 기간	비고	참가국
9회	2017년 4월 22일 ~ 5월 28일 (37일간)	서사_기억, 기록, 기념	— (미공개)
8회	2015년 4월 24일 ~ 5월 31일 (38일간)	색; Ceramic Spectrum (이색, 채색, 본색)	— (미공개)
7회	2013년 9월 28일 ~ 11월 17일 (51일간)	Community – with me, with you, with us (커뮤니티 – 나, 너, 우리 다함께)	— (미공개)
6회	2011년 9월 24일 ~ 11월 22일 (60일간)	불의 여행, Journey From Fire	71
5회	2009년 4월 25일 ~ 5월 24일 (30일간)	불의 모험 (Adventures of the fire)	70
4회	2007년 4월 28일 ~ 5월 27일 (30일간)	미래의 아시아를 빚자! (Reshaping Asia)	66
3회	2005년 4월 23일 ~ 6월 19일 (58일간)	문화를 담는 도자	67
2회	2003년 9월 1일 ~ 10월 30일 (60일간)	창조의 열정 · 전통의 격조 · 생활의 향기 (Passion, Elegance, Fragrance)	68
1회	2001년 8월 10일 ~ 10월 28일 (80일간)	도자의 과거 · 현재 · 미래 (흙으로 빚는 미래, Shaping the Future with Earth)	84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출처 :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 www.kocet.org)



왕실도자기축제
(출처 : 아시아투데이 기사)

2) 역사적 배경

(1) 조선시대 왕실 관요(官窯), 사옹원 분원(司饔院分院)의 설치와 운영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최고급 백자를 사옹원 분원(司饔院分院)에서 제작했다. ‘사옹원 분원’이란, 사옹원(司饔院, 왕실과 궁궐의 음식 등을 담당하는 중앙 관청)에서 사용할 그릇을 공급할 목적으로 궁궐 밖에 설치한 분원(分所)로서 왕실 전용의 도자기 공장을 의미한다. 사옹원의 분원은 관요(官窯)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었다.

조선 초인 15세기 전반에는 궁중에서 사용하는 자기그릇을 전국 324개의 도·자기소에서 공납(貢納)을 받아 사용했다. 당시 공납 자기의 대부분은 분청사기였으며, 형태와 품질의 차이, 운송과정에서의 파손과 도난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에서는 필요한 백자를 직접 생산·조달하기로 하고, 중국 명나라 관요인 경덕진(景德鎮) 어기창(御器廠)의 예를 참고하여 분원의 설치 이전부터 이미 질 좋은 백자와 분청사기를 공납하던 경기도 광주 일대에 분원을 설치했다. 광주는 지리적으로 왕실이 위치한 한양에 가까워 한강을 이용한 운송이 편리했으며, 땅감으로 사용할 나무의 수급이 원활하여 가마를 운영하기에 좋은 지역이었다.⁴⁾

‘분원’이라는 명칭의 사용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조선전기에는 이를 따로 명명하지 않고 기존의 명칭을 따라 사기소(沙器所) 혹은 자기소(磁器所)라고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분원의 설치시기와 관련 하여는 정확한 시점을 주고 연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중인데, 대개 1467~8년을 기점으로 사옹원이 직접 운영하는 백자 번조소가 설치되었다고 보고 있다.⁵⁾ 17세기 인조대(仁祖代) 작성된 관찬사료를 통해 광주의 자기소를 분원(分院)이라고 지칭하는 기록이 처음 등장하고 있다.⁶⁾

분원의 안정적이고 우수한 자기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쳤다. 분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재와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했으며, 전국의 사기장(沙器匠) 1,140명을 3교대로 나누어 380명이 3년마다 1년

씩 광주 분원에 모여 부역을 지고 백자를 만들도록 법으로 정해 운영했다.⁷⁾ 또한, 매년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음력 2월부터 11월까지 그릇 만드는 것을 감독했다.⁸⁾

분원은 설치 이후, 10년 단위로 이설(移設)해서 운영됐다. 설치된 가마터 일대의 나무

4) 『承政院日記』仁祖3年(1625) 8月 3日 己卯.

5) 『世祖實錄』卷38, 世祖12年(1466) 4月18日 戊午.;
『世祖實錄』卷42, 世祖13年(1467) 4月4日 己亥.

6) 『承政院日記』仁祖3年(1625) 7月 2日 茂申.

7) 『經國大典』吏典 京官職 司饔院條.

8) 成僕, 『備齋叢話』卷10. 每歲遣司饔院官分左右邊各率書吏從春至秋監造而輸納于御府

를 맬감으로 사용하고, 해당 지역의 나무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시 맬나무가 많은 곳으로 시설을 옮겼다. 현재, 광주시에는 340여개 소에 이르는 분원 백자 가마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나 나무의 수급상황에 따라 매번 가마를 이설하는 것은 가마 이설의 비용과, 화전 밭을 일구는 주민들의 민원이 늘 문제가 됐다. 이에 조정에서는 분원을 남한강변에 고정시키고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맬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조달하려는 ‘분원고정론’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18세기 전반 이후, 분원이 한 곳에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체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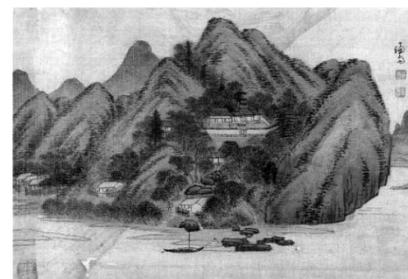
처음 분원이 고정된 곳은 지금의 남종면 금사리(南終面 金沙里)였으나, 1752년 강변과 더 가까운 위치인 지금의 남종면 분원리(分院里)로 분원리로 이전, 정착하여 운영됐다. 분원리 정착 후, 남한강을 지나는 배들에게 세금을 걷어 맬나무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운영체제가 자리 잡힌 분원은 1883년까지 약 1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는 대량생산된 외국산 수입도자기가 국내시장에 저가로 유통되면서 분원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었으며, 이후 분원은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1884년 12명의 민간업자에게 분원의 운영권이 이양됐다.

민영화 이후 분원은 약 20여 년간 ‘분원제(分院製)’ 제품을 전국시장에 판매하여 약간의 인기를 누리기도 하였으나, 20세기 초 일제 자본의 산업화된 공장에 밀려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후, 분원의 장인들 역시 여주 오금리 등지로 흘어지게 됐다.



분원리가마 인근 분원백자자료관



겸재 정선, 〈우천(牛川)〉, 《경교명승첩》, 간송미술관 소장

(2) 경기도 광주(廣州)와 분원

경기도 광주에 분원이 설치된 이유는 한양과의 거리가 가깝고, 한강을 통해 원료와 생산된 그릇의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일대에서는 자기생산의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 광주, 18세기,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원료인 백토가 출토되었으며,⁹⁾ 지명에서 보이듯이 광주 일대는 넓은 권역을 이루고 있어 관요 설치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왕실에서는 한양 인근에 위치한 너른 부지인 광주를 다양하게 활용했다. 실제로 태조와 태종의 수릉지(壽陵址)가 위치했으며, 왕실의 강무장(講武場), 말목장, 내용(內用)의 꼴을 베는 지역 등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광주에서 조선시대 요업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15세기 초(1410년 전후)로 상정되며,¹⁰⁾ 1420년대에는 왕실용 자기를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전국 군현에 소재한 자기소(磁器所, 139개소)와 도

기소(陶器所, 186개소)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여기에는 가마를 팔도의 부·목·군·현의 관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상세히 나누어 분류하고, 각각 생산된 자기의 품질을 상, 중, 하, 무의 등급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 중 상품으로 평가된 곳은 광주의 벌을천(伐乙川)과 고령 예현리(曳峴里), 상주의 추현리(楸縣里)와 기미외리(己未隈里) 4곳뿐이다. 『세종실록』「지리지」는 광주의 자기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9) 「육전조례(六典條例)」에는 광주(廣州) 분원(分院)에서 사용하던 흙 가운데 광주수토(廣州水土) 1,400 石은 광주관내에서 굴취 하여 정기 운반선편을 이용하여 실어 날랐고, 양구백토(楊口白土) 510石은 강원도내 4읍(邑) 즉 양천(110石), 춘천(220石), 인제(60石), 흥천(120石)등이 나누어 봄, 기울로 운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별번(別燔) 때에는 기명(器皿)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광주수토(水土) 400 石, 양구백토 300石이내에서 초기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

10) 박정민, 2014, 「조선 전기 관요의 성립과 그 명칭에 대한 일고찰」, 『미술사와 문화유산』 3, 문화유산연구회, p.101.

자기소가 넷이다. 하나는 주 동쪽 벌을천에 있는 상품이며, 하나는 주 동쪽 소산에, 하나는 주 남쪽 석굴리에 있는데, 모두 하품이다. 하나는 주 동쪽 고현에 있다. 도기소가 셋이니, 하나는 주 남쪽 초현에 있는 중품이며, 하나는 주 동쪽 초별리에, 하나는 주 서쪽 배곶에 있는데 모두 하품이다.¹¹⁾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자기소와 도기소

분류 지역	자기소				합계	도기소				합계
	상	중	하	무		상	중	하	무	
경기	1		13		14		6	12	2	20
충청		12	11		23		6	30	2	38
경상	3	8	26		37		6	28		34
전라		15	12	4	31		8	23	8	39
강원		2	2		4			10		10
황해		6	6		12		6	11		17
평안		2	11		13		1	10	1	12
함경			5		5			6	9	15
합계	4	45	86	4	139		33	130	22	185

이와 같은 이유로 광주는 원료의 수급과 운반에 적합한 지리적 요인과 함께 생산품의 품질 면에서도 우수하게 평가받으며, 왕실 도자기를 생산하는 적임지로 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원에서 생산된 도자기의 원료는 초기에는 인근 지역에서 출토되는 백토를 가져다가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중엽 이후 백토의 조달지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1883년 관요 폐지 이전까지 평안북도 선천(宣川), 충청남도 서산(瑞山), 충청북도 충주(忠州), 강원도 원주(原州), 양구(楊口), 경상북도 경주(慶州), 경상남도 진주(珍州), 하동(河東), 곤양(昆陽) 등 전국으로부터 조달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양구는 우수한 품질로 인해 고려 말부터 백자를 생산했으며, 조선 전기 공납자를 생산하여 납품하기도 했다. 숙종 14년 (1688) 이후 관요의 주요 채굴지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분원공소가 운영되었던 20세기 초까지 주요한 백토 조달 지였다.¹²⁾

11) 『世宗實錄』, 『地理志』, 京畿 廣州牧, “磁器所四, 一在州東代乙川 上品 一在州東所山 一在州南石掘里 皆下品 一在州東羔峴 陶器所三 一在州南草峴 中品 一在州東草伐里 一在州西梨串 皆下品.”

12) 이종민, 2015, 「조선시대 官窯로의 백자원료 조달 방식」, 『역사와 담론』, 73집, pp.372~378.

(3) 조선 관요 관련 사료 및 참고문헌

광주의 조선백자 요지가 관요로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조선시대 다양한 기록물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증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홍재전서』, 『일성록』등의 사료(史料)들은 조선 전기~후기에 이르는 조선시대 관요의 설치와 운영, 생산 품목, 운영 방침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조선후기 분원의 고정 이후 분원리 가마의 운영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하재일기』, 『분원자기공소절목』, 『분원변수절목』 등과 같은 직접적인 운영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이들 기록에는 운영의 주체, 생산 품목 및 관련 세부 내용, 주문자, 운영 구조, 상인들 간의 네트워크, 왕실과의 정치적 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분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남아있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조선백자 도요지 기초조사
= 조선백자 관요 관련 사료 =

관련 문헌명	해당시기	내용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태조~철종연간	조선왕조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책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623~1894	승정원의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1617(광해군 9) ~1892(고종 29)	국가 최고 회의 기관이었던 비변사의 활동에 대한 일기체 기록
홍재전서(弘齋全書)	1799	정조(正祖)의 시문집
일성록(日省錄)	1752~1910	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한 일기
하재일기(荷齋日記)	19세기	분원 공인 지규식의 일기
분원변수복설절목 (分院邊首復設節目)	1874	분원 관련 기록
분원자기공소절목 (分院瓷器貢所節目)	1884	분원 관련 기록

3) 선행 연구 및 조사 현황

(1) 선행 조사연구 현황 : 지표조사

조선백자 요지와 관련하여 국내 전문 기관들을 통해 선행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백자 요지의 분포 현황 및 요지의 성격, 형태와 출토 유물의 기초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학술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

1981년 시행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기초 지표조사에서 가마터 85곳의 위치·분포범위·유물 특징 등이 보고됐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그 중 일부인 78개의 요지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¹³⁾

광주시 조선백자 요지 지표조사 현황

조사 연도	조사명	조사기관
1981	韓國白磁陶窯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廣州의 白磁窯址 I	해강도자미술관
1998	京畿道 廣州 中央官窯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박물관
2000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廣州의 朝鮮陶磁窯址	조선관요박물관
2005	문화유적분포지도 - 광주시-	조선관요박물관
2008	경기도 광주 관요 종합분석보고서	경기도박물관

(2) 선행 조사연구 현황 : 시·발굴조사

광주 백자요지에 대한 조사는 1964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한 도마리 1호 요지 발굴조사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이후, 광주 일대의 지속적인 시·발굴조사를 통한 학술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해강도자미술관 등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어오다가 경기도자 및 광주 관요연구의 전문기관인 경기도자박물관(구 조선관요박물관)을 중심으로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광주시에서 2010년부터 진행 중인 <조선백자 요지 종합정비계획>의 시행과 함께 다수의 조사 성과가 구축되고 있다.

해당 조사는 광주 조선백자 요지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구축, 요지 종합정비 계획의 기초 자료 및 방향성 설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⁴⁾

1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16, 「韓國白磁陶窯址」, 1981.; 경기도 광주시·한울문화재연구원, 「광주 조선백자 요지 1차 종합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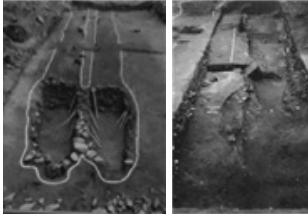
14) 광주 조선백자 요지 종합정비계획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시 조선백자 요지 시·발굴조사 현황

조사성과	조사 연도	유적명	조사기관
기준	1964~65	도마리 1호	국립중앙박물관
	1985~86	번천리 5호 선동리 2·3호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2	우산리 9호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3	우산리 2·3호	해강도자미술관
	1997	건업리 2호	해강도자미술관
	1997	우산리 17호	해강도자미술관
	1998	번천리 9호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001~02	분원리 1호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004	송정동 5·6호	조선관요박물관 (현 경기도자박물관)
		송정동 1·4·8호	
1차	2007	신대리 18호	경기도자박물관
	2008	신대리 29호	경기도자박물관
	2010	관음리 8호	경기도자박물관
	2010~11	선동리 2호	경기도자박물관
	2010~11	번천리 8호	경기도자박물관
2차	2011	도마리 7호	
		무갑리 14호·21호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오향리 일원	
조선 백자 요지 정비 계획	2014~2015	상림리 10호	
		열미리 5호(북)	
		열미리 5호(남)	
		번천리 5호	
		신대리 12호	
		곤지암리 3호	
		송정동 4호	
		오전리 3호	
		학동리 10호	
		곤지암리 6호	
		신대리 8호·28호	
		관음리 16호	
		정지리 4호	
		우산리 9호	
		우산리 14호	
		경기도자박물관	

4차	2015	신대리 13호	경기도자박물관
		유사리 5호	
		유사리 3호	
		도마리 1호	
		우산리 4호	
		오전리 5호	
		목현동 1호	
		번천리 21호	

선행 조사를 통해 확인된 조선시대 가마 구조 사진

	조선전기	조선중기	조선후기
가마 구조			
도마리 7호			
변천리 5호			
송정동 5호			
신대리 18호			
분원리 2호			

선행 조사를 통해 확인된 조선시대 가마 구조

구분	위치	가마종류	가마	크기: 길이 x 너비 (m)	경사 (°)	추정시기
조 선 시 대	광주 번천리	단실 불기둥요	5호	17 x 1.7~2.2	10	묘지석편 (1554)
			9호	잔존길이 20 x 내벽 2 외벽 7	11	묘지석편 (1552)
광 주 백 자 가 마 터	광주 우산리	단실요	17호	27 x 내벽 1.2~1.25 외벽 1.3~1.35	15	15세기 전반
			2호	잔존길이 3.2 x 외벽 1.8 내벽 1.4		
	단실 불기둥요	9-3호	26 x 1.7	연소실 13	1482년 전/후	
광주 도마리					15세기 후반 ~ 16세기 초반	
광주 건업리	단실 불기둥요	2호	13.3 x 외벽 1.7 내벽 1.2	연소실 17.5	1430년 ~ 1460년대	
광주 선동리	분실 계단식요	3-나호	9.9 x 1칸 1.8~1.4 2칸 2.3~1.8 3칸 2~1.9		1640년 ~ 1649년	
광주 송정동	분실 계단식요	5호	21.1 x 1~2.55	10	1649년 ~ 1652년	
	분실 계단식요	6호	잔존길이 17.4 x 1~2.6	17		
광주 분원리	연실요	2호	잔존길이 20 x 1.7~3.1	15	19세기	

(출처 : 한정현, 2013, 「도자가마의 유형과 구조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조사 기초 조사 도면 및 조사 사진

연번	사업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1	2010. 6. ~ 8.	조선백자도요지 정비계획 수립 학술 용역	현황 및 여건 분석, 도요지 정비 기본 방향 및 활용 방안	1,930만원
2	2010. 10. ~ 현재	조선백자도요지 가마터 시 · 발굴조사	광주 조선백자도요지의 보존방안 마련 사적지의 보존범위 및 가마터 현황 파악	14억 590만원
3	2008. ~ 현재	조선백자 요지 사적지 매입	광주 조선백자 요지를 매입하여,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도요지를 훼손 방지, 문화재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주민 불만 해소	17억 6,100만원
4	2008. 6. ~ 2011. 6.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학술 용역	지정문화재 주변의 개발행위로부터 문화재 보전	2억 400만원

1) 등재기준의 적용

세계유산의 등재를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6개의 등재기준 중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등재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광주 백자 도요지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등재기준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 등재기준 ii), iii), iv)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등재기준 ii)는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한 것: 등재기준 i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광주도요지의 가마와 제작 기술 등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이나 일본과의 상호 교류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즉, 가마의 축조 방법, 생산된 도자기에서 발견되는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등재기준 iii)은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등재기준 iii)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광주분원에서 생산된 청화백자의 제작 기술이 실전되어 사라진 문화의 범위에 속하거나 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청화백자의 생산이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등재기준 iv)는 건축, 기술 등 발달단계를 증거 하거나 대표적 유형화의 사례: 등재기준 iv)의 적용을 위해서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광주지역에서 이루어진 가마터의 구조의 발달 단계나 유형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78개 사적지를 검토하여 가마터의 구조를 유형화하고 생산제품의 기술적 발전 단계 등을 체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광주 백자 도요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리적 범위를 벗어나 동아시아에서의 도자기 산업, 특히 백자산업에서의 광주요가 가지는 독특성과 보편적 성격 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심도 있는 학술적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광주 백자 도요지는 우리나라 백자생산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조선시대 다른 관요나 사요와 비교하여 어떤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광주 백자 도요지는 동아시아 도자기 산업, 특히 중국의 경강요와 비교하여 제작기술과 가마터구조 등에서 어떤 한국적인 특색을 나타내고 있는가?

셋째, 광주 백자 도요지는 16세기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도자기 생산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과의 도자기제작 기술의 상호 교류의 증거를 갖추고 있는가?

넷째, 광주 백자 도요지에서 발굴 조사되는 가마터는 15세기부터 1884년 민간업자로 운영권이 이양되기까지 시대별 가마터의 구조적 특징이 변화하였으며, 시기별로 유형화가 가능한가?

(1) 등재기준 ii)

광주 백자 도요지는 중국 경강요를 모델로 하여 광주지역에서 안정적인 도자기 공급을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한 관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일시기에 중국과의 가마터의 제작기술, 도자기 제작 기술에서의 상호 교류의 증거를 밝히고, 일본과의 도자기 산업의 교류 증거를 밝힌다면 동아시아 청화백자 제작을 위한 제작 기술의 상호교류의 탁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등재기준 ii)에서 광주백자요는 백자 생산을 위해 동아시아 도자기 기술의 상호간의 교류로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세계유산은 부동의 유산(immobile heritage)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주요에서 생산한 도자기 들은 세계유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발굴 유물과 발굴지가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가마구조와 일본의 가마구조, 한국의 가마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등재기준 iii)

청화백자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조선왕조에서 운영하였던 관요가 130여년 이상 번창했던 곳으로 보존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등재기준 iii)의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등재기준 iii)은 현재까지 전통이 지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일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점에서 광주지역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도자기산업유산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에는 전하여지지 않고 있는 제작 기술이나 도자기 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도 필요하다.

등재기준 iii)은 조선시대 청화백자의 중심지로서 왕조에서 직접 운영하고 전국적인 중요성을 갖추고 있던 도자기 산업의 중심지로서 동아시아 도자기 산업의 발달에서도 예외적인 증거라는 점에서 광주 백자 도요지의 가치 규명이 가능하다.

(3) 등재기준 iv)

조선백자 도요지는 15세기 전반인 1467년부터 19세기 1884년까지 지속되어온 조선 관요인 사옹원 분원의 제작 기술의 발달 단계와 가마터 구조의 발달 단계에 따른 도자기 가마터의 유형과 기술 발달 단계를 증명하는 유산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기별 발달단계와 유형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발굴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작 기법, 가마터 구조, 생산품의 시기별 특징 등에 대한 면밀한 학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광주조선백자도요는 동아시아 도자산업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서 등재기준 iv)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2)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사적지정의 근거 내용을 통해 광주 백자 도요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진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 백자 도요지는 광주시 남종면, 중부면, 퇴촌면 일대에 흩어져 있는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로서 도자기의 원료와 빛감, 물이 풍부한 입지적 환경에 힘입어 15세기부터 사옹원의 분원으로서 궁중과 관청에서 사용하는 각종 그릇과 자기를 생산하던 곳으로 청화백자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285개 이상의 가마터가 번성하였으며 오름가마와 계단식 가마 등과 같이 도자기 제작의 기술적 발달 단계와 시기별 도자기 제작의 유형별 특징, 중국과 일본과의 도자기 제작 기술의 교류를 나타내는 탁월한 증거이다. 조선 전기에서 후기까지 질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내던 중심지였기에 조선 도자사 연구에서 매우 가치 있는 곳이다.

3)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1) 진정성에 대한 평가

진정성이란 ‘베니스 현장’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한 정보 출처에 유산가치가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진정성은 진실성과 신뢰성을 의미하고 있다. 1994년 일본 나라에서 진정성에 대하여 정의한 나라현장(Nara Document)

에서는 진정성을 표출하는 항목으로 형태와 디자인, 자재와 구성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기술·관리체계, 입지와 주변 환경, 언어와 다른 비물질적 전통, 정신과 감정 및 기타 내외적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진정성을 나타내는 구성요소로 첫째, 형태와 디자인은 변화와 변화 정도, 디자인과 형태의 정확성, 변화 자체가 가치인지에 대한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자재와 구성 물질은 자재의 대체정도, 수리나 복원의 원형과의 유리 정도로서 나타낸다. 대부분의 광주조선백자도요지는 고고학적 유적으로서 복토가 이루어져 있어 제한된 발굴보고서에 의존하여 형태와 디자인을 파악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용도와 기능은 관련 대상의 변화 정도와 원인을 설명하고, 그 바탕이 되는 사회적 체제를 밝히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 자료에 의거하여 용도와 기능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다.

셋째, 전통, 기술, 관리체계 항목에는 유산을 유지하는 사회적 메커니즘, 변화 여부와 정도, 이유, 수리 여부와 관련성 및 정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입지적 특색과 가마터의 입지 요인, 입지 요인에 따른 가마터의 유형화, 전통 기술 관리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적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입지와 주변 환경에 대한 항목에는 환경 변화 여부와 정도에 대한 서술과 경계 확정에 대한 서술이 포함된다. 또한 도자기 가마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입지 요인 등과 경사도, 용수와의 관계, 원료 존재 여부, 한강 수운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학술적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언어와 다른 형태의 비물질적 전통의 항목에는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변화와 유산과 관련한 사회적 기제, 지역공동체의 특성과 위협 요소 등이 포함되어 설명된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부터 형성되어 온 가마터와 관련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신과 감성 및 기타 내외부 요인들에는 유산과 관련한 가치의 주체가 누구인지, 유산의 상태 변화와 정도, 유산의 쇠퇴 여부, 이를 둘러싼 사회 메커니즘과 이해당사자가 되는 집단의 특성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이밖에 독일의 본에서 개최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진정성의 조건에 규모(mass and scale), 색채와 재질(color and texture)를 포함하도록 하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진정성의 기준에 따라 보면 광주 백자 도요지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적으로 지정되었어도 일정 면적을 잡아 모든 가마터가 포함되는 면적인 접근을 하기보다는 필지별로 따로 점의 형태로 지정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주변 경관의 훼손이 현재 도시개발과 건물 건축에 의해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도자기 가

마터의 지형과 자연조건 등을 고찰 할 수 있는 원형 경관이 거의 남아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필지가 사유지로서 개발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발견된다.

(2) 완전성에 대한 평가

완전성은 구성요소, 영역의 완전성, 보존관리상태 등, 온전성, 무손상성, 위협요소의 부재를 의미한다. 광주조선백자도요지는 일부 유적지를 제외하고는 보존 상태에 따른 완전성의 요건 충족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먼저 산재되어 있는 402개의 요지, 사적으로 지정된 78개의 요지도 주변의 도시화의 개발 압력에 의해 원형을 상실하거나 훼손이 진행된 요지가 다수 있어, 온전성, 무손상성, 위협요소의 부재라는 완전성의 요건 충족이 미흡하다.

또한 광주조선백자도요지는 하나의 사적이지만 필지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적의 경계구역을 재획정하여 단일 유산경계와 완충 구역을 설정하던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 가마터를 연속유산으로 설정하던지 선택을 하여야 한다. 현재 산재되어 있는 가마터의 분포 패턴을 보면 연속유산으로서 성격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완전성의 정의에 따르면 OUV를 만족하는 모든 요소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의 보호가 가능한 보호구역의 경계설정이 필요하다. 또 중심영역과 완충구역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개발압력이나 환경압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고고학적 유적지에 치명적인 도시화의 압력이나 개발압력에 의한 유적지 훼손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비하는 상시 감시체계의 구축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유적지 훼손을 방지 해야 하며, 국제적 보존관리 우선사항과 절차에 따른 통합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산구역의 경계설정도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규모로 설정되어야 하며 연속유산으로 등재 시 통합보존관리기구가 필수적이다.

4.

보존상태 및 대상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조사 대상 도요지의 선정

광주시에는 조선백자 도요지로 추정되는 도요지가 지정과 비지정을 합쳐 402개소가 분포한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서의 등재를 위한 가치 판단은 도요지의 내외의 가마터, 공방터, 폐기장, 취락 등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판단, 완전성, 진정성, 보존관리 상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하다. 특히 도요지 내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판단은 도요지의 가마터, 공방지, 폐기장 등에 대한 학술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광주시 조선백자 도요지에 대한 학술조사는 광주 조선백자 요지 1차 종합정비 계획을 비롯하여, 현재에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10월 현재 44개소의 선행조사가 이루어져있다. 본 조사의 연구 기간과 대상지의 수의 한계를 고려하여, 선행조사가 이루어진 44개 대상지에 국한한다. 44개 대상지 중 선행조사 결과 ‘출토 유구 없음’으로 판정된 번천리 21호, 오향리 일원, 유사리 3호, 정지리 4호가 제외되었으며, 각각 ‘지정오류’나 ‘주소 불명’으로 판명된 번천리 5호와 신대리 29호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선행조사 결과 도요지의 확인조사 결과가 확인된 38개 도요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조사대상 도요지 목록

연번	도요지명	연번	도요지명	연번	도요지명
1	건업리 2호	18	송정동 4호	35	우산리 14호
2	곤지암리 3호	19	송정동 5호	36	우산리 17호
3	곤지암리 6호	20	송정동 6호	37	유사리 5호
4	관음리 8호	21	신대리 8호	38	학동리 10호
5	관음리 16호	22	신대리 12호	제외	신대리 29호 (주소불명)
6	도마리 1호	23	신대리 13호		번천리 5호 (지정오류)
7	도마리 7호	24	신대리 18호		
8	목현동 1호	25	신대리 28호		

9	무갑리 14호	26	열미리 5호(북)		번천리 21호 (출토 유구 없음)
10	무갑리 21호	27	열미리 5호(남)		오향리 일원 (출토 유구 없음)
11	번천리 4호	28	오전리 3호		유사리 3호 (출토 유구 없음)
12	번천리 8호	29	오전리 5호		정지리 4호 (출토 유구 없음)
13	번천리 9호	30	우산리 2호		
14	분원리 1호	31	우산리 3호		
15	상림리 10호	32	우산리 4호		
16	상림리 12호	33	우산리 9호(북)		
17	선동리 2호	34	우산리 9호(남)		

2) 조사 대상지의 분포 및 분포 특성

광주시 조선백자도요지 중 본 조사의 조사대상이 되는 38개 도요지는 광주시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 분포 분류는 현재 행정구역명에 준한다. 조사대상 도요지의 분포는, 대상행정구역 상 동, 읍, 면으로 구분하였을 때, 동은 4개소, 읍은 15개소, 면은 19개소로 시의 주거조밀지역 보다는 면 이하의 취락지역에 분포하는 도요지가 주로 조사대상 도요지가 선정되었다.

가장 많은 조사대상지가 된 도요지가 분포하는 행정구역은 퇴촌면 11개소이며, 그 다음이 곤지암읍 10개소이다. 퇴촌면 중에서는 우산리에 7개소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곤지암읍 중에서는 신대리 5개소가 가장 많다.

조사대상 도요지의 행적구역별 분포

행정구역	도요지수 (개소)	주요 분포 행정구역 및 도요지수 (개소)
송정동	3	송정동(3)
목현동	1	목현동(1)
곤지암읍	10	신대리(5), 곤지암리(2), 열미리(2), 유사리(1)
초월읍	3	무갑리(2), 선동리(1)
실촌읍	1	건업리(1)
애월읍	1	선동리(1)
퇴촌면	11	우산리(7), 관음리(2), 도마리(2)
남한산성면	5	상변천리(3), 오전리(2)
도척면	2	상림리(2)
남종면	1	분원리(1)
합계	38	-

조사대상 도요지의 분포를 지도를 이용하여 분포도를 작성하여 보면 <그림1>과 같다. 광주시는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경안천이 남한강으로 합류되고 있다. 이 경안천과 합류하는 1차 지류(지천)들과 2차 지류는 다수 존재한다. 대부분의 조사대상 도요지는 경안천 본류에서 벗어난 1~2차 지류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대상 도요지들은 남한강에 위치하는 팔당호의 수위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으며, 팔당호의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특별대책지역인 수연구역과 일부 대상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그 범위 밖에 분포한다.



경기도 광주시 연구대상 도요지 분포도

상수원보호구역내 위치하는 조사대상 도요지는 도마리 2개소, 번천리 3개소, 분원리 1개소이다. 이들 조사대상 도요지는 비교적 해발고도가 높은 산사면 상에 위치한다. 주요 지류의 하천은 북에서부터 퇴촌면의 우산리와 관음리를 흐르는 우산천, 남한산성면을 흐르는 번천, 곤지암읍에서 초월읍으로 흐르는 곤지암천과 곤지암천의 지류이면서 도척면을 흐르는 노곡천, 그리고 목현동에서 송정동 남측을 흐르는 목현천 등이 있으며, 본 조사의 대상 도요지는 대부분 위 지류들의 하안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류 중에서 비교적 하천의 규모가 작은 우산천 주변에 9개소의 조사대상 도요지가 분포한다.

범례 연구대상 도요지 명

1	건업리 2호	11	번천리 4호	21	신대리 8호	31	우산리 3호
2	곤지암리 3호	12	번천리 8호	22	신대리 12호	32	우산리 4호
3	곤지암리 6호	13	번천리 9호	23	신대리 13호	33	우산리 9호(북)
4	관음리 8호	14	분원리 1호	24	신대리 18호	34	우산리 9호(남)
5	관음리 16호	15	상림리 10호	25	신대리 28호	35	우산리 14호
6	도마리 1호	16	상림리 12호	26	열미리 5호(북)	36	우산리 17호
7	도마리 7호	17	선동리 2호	27	열미리 5호(남)	37	유사리 5호
8	목현동 1호	18	송정동 4호	28	오전리 3호	38	학동리 10호
9	무갑리 14호	19	송정동 5호	29	오전리 5호		-
10	무갑리 21호	20	송정동 6호	30	우산리 2호		

3) 조사 대상지의 경관 평가 항목과 조사 방법

(1) 경관 평가 조사 항목

본 경관조사의 주요 목적은 광주시의 조선백자 도요지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하기 위한 진정성과 완정성에 기반을 둔 보전·관리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기존 선행조사 이후 경관 측면의 보존 상태에 대한 현재 상태의 훼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선행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자연적 입지 환경과 인문적 입지 환경을 고려하였다.

자연 경관 조사 및 평가 항목은 지형특성, 표충상태, 입지 특성으로 구분된다. 지형 특성은 표고, 지형, 경사의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고, 표충 상태에는 표충의 훼손이나 교란 상태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입지 특성은 지형과 하천 거리, 하천의 입지 관계 등 하천과의 관계성을 포함한다.

인문 경관 조사 및 평가 항목은 인문적 토지이용상태, 시설의 침입정도, 도요지의 보존관리 상태로 구분한다. 인문 토지이용 상태에는 경작지(논, 밭), 비닐하우스, 주거시설, 도로 등의 현재 토지이용 상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시설의 침입여부나 이에 의한 훼손 정도를 파악한다. 도요지 내외부의 보존 관리는 사적지 유무, 안내 표지판, 침입시설 방책 시설의 유무 등을 파악한다. 이러한 현장조사를 통한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도요지 입지의 보존 상태를 파악하고 종합적 의견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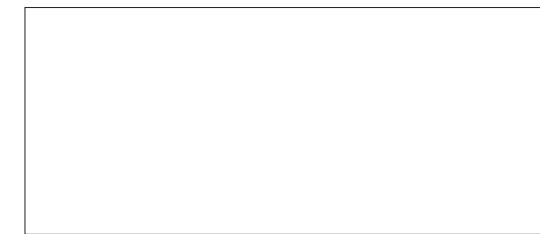
(2) 조사 시기 및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조사표를 작성하고 38개 조사대상 도요지를 현장 답사하였다. 연구기간이 여름철에서 초 가을철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도요지 출입로의 수목의 상태가 매우 울창하며, 표충 피복 상태에서 수풀과 낙엽의 혼재 상태이므로 조사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다. 따라서 조사기간을 가능한 가을철까지 연장하여 진행하였다. 현장 답사는 최초 현장 답사는 2017년 8월 26일 이루어 졌으며, 마지막 현장 답사는 11월 25일 실시하였다. 총 38개 도요지에 대한 현장답사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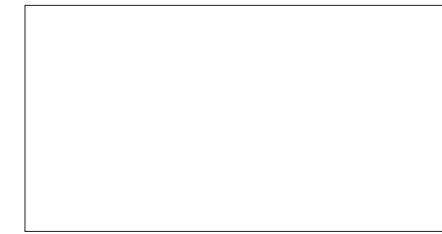
조사표의 구성은 먼저 도요지의 위치와 현황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도요지명과, 소재지, 도요지의 위치지도, 사적 지적 현황과 선행조사결과, 소유 구분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조사표의 현장답사 확인 내용은 크게 자연적 경관, 인문적 경관에 관한 사진을 배열하고, 각각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위 사항을 바탕으로 전체적 입지 보존 상태에 따른 종합 의견과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종합평가는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평가조사표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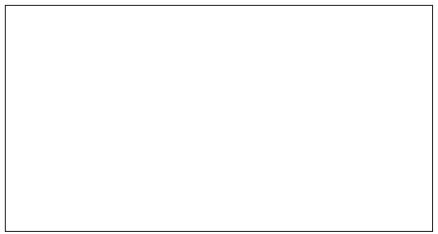
도요지명	-	소재지	-
지정 현황	-	선행 조사 결과	-
소유 구분	-	기타	-



위치 지도 구성



진입로



도요지 근경



도요지 근경



주변 시설

= 광주 조사대상 도요지 기준지

해발고도	사적비 유무
도요지 지형 특성	안내판(해설판) 유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현 토지이용 상태	도요지 진입로 유무
입지 보존 상태	시설 침입 정도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종합 평가	

4)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입지 및 경관분석 결과

(1) 건업리 2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 터는 현재 과수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본래의 지형 모습이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지형면 경사도 표층의 평탄화 작업으로 인해 많이 변형되었다. 경안천의 최상류 지역에 위치한 건업리 2호 도요지는 건업리 관내 중에서도 상부에 위치한 관계로 해발고도가 제법 높아 280m 정도의 높이를 보이고 있다.

건업리 도요지는 하천을 따라 분포되어 있다. 즉, 본 도요지는 경안천 최상류의 하천변을 따라 하도와 10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발달된 평탄면에 위치해 있다. 이곳의 계류는 하천 폭은 좁으나, 하천유지용수로서는 충분한 유량을 갖고 있어 상시하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요지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되는 용수 확보는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곳의 도요지는 팔당상수원 보호 구역 및 수변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자연보존 상태는 매우 불량하다. 본 도요지는 아스팔트 도로와 불과 1m 정도의 단차를 두고 위치해 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도요지 상에 과수원과 제법 넓은 면적의 나대지가 펼쳐있어 경관 상으로도 불량하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사가마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인문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소유지 역시 사유지로 되어 있다. 도요지 소재지는 광주시 실촌읍 건업리 102-1 임야 일원으로, 현 지도에 표시한 공간 범위를 넘어 도요지 유구가 분포되어 있다. 도요지와 인접한 포장로인 건업길과는 붙어 있다. 남측으로는 하천과 교량, 포장도로와 도요지 사이에 단차가 있어 진입이 불가능하나, 북측에서는 비교적 도요지 내로의 진입이 양호한 실정이다.

도요지 내부에는 가옥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인위적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상 토지이용으로는 밤나무를 중심으로 한 과수원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잡목 상태의 수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과수원 경작에 의한 훼손으로 표층의 교란이 두드러진다. 사적지 비지정 상태로 인해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 안내 및 해설판, 보존경계 유역 등의 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문경관 보존 상태로 보면, 주변에 여러 인공구조물을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도요지 남측으로 하천 계곡과 인접한 건업3교량이 위치해 있다. 인문경관 측면에서 보면 과수원

임을 제외한다면 비교적 양호한 경관을 보이고 있다.

③ 입지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과 인문경관 관점에서 볼 때 산사면이 아닌 평지 상에 입지하고 있어 자연 경관의 가치는 떨어진다.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의 현장 보존상태도 불량하다.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 역시 매우 떨어진다. 이러한 입지보존 상태를 고려해 종합의견을 ‘하’로 판명하고자 한다.

건업리 2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건업리 2호	소재지	광주시 실촌읍 건업리 102-1임
지정 현황	미지정	선행 조사 결과	하
소유 구분		기타	-



위치



진입로(천로)



도요지 근경



도요지 근경



주변 시설(하천)

해발고도	280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산사면 하단 남동~북서 완만한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10m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나대지 일부과수원	도요지 진입로 유무	걷어길 인접
입지 보존 상태	경작으로 훼손	시설 침입 정도	경작지 및 과수원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사적지정 범위가 작아 도요지터가 사적지 외부를 넘어섬		
종합 평가	하		

(2) 곤지암리 3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의 피복 상태는 상추, 깨 등의 밭 경작지로 사용으로 인해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도요지는 황새봉에서 북쪽으로 뻗은 능선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능선 말단부의 표고는 해발 105m로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하여 약간의 구릉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도요지의 북쪽으로 노곡천이 200m 거리에 입지해 있다. 도요지의 남측 능선과 능선 사이에는 작은 계곡이 존재하고 있다. 작은 계곡에는 소량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 도자기 생산에 필요한 물 공급을 위한 계류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 도요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 자연경관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북측의 취락지구와 경작지 밀도 등으로 볼 때 보존 상태가 불량하다.

② 인문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사유지이나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도요지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09-8전 외 1필지이다. 도요지와 인접한 도로로 포장된 고척로가 100여m 북쪽으로 지나가고 있다. 이 도로 남쪽 가옥들 사이로 뻗은 금경사 시멘트 포장로를 따라 도요지 진입이 가능하다.

도요지 내부에는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밭 주변으로는 수풀이 우거져 있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밭 경작에 의한 훼손으로 표층의 훼손이 발견된다.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 안내 및 해설판, 보존경계 유역 표시 등은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문 경관 보존 상태로는 주변에 각종 인위적 구조물이 근접하고 있으며, 능선 위쪽 지

역으로 창고 등 가 건물 등의 시설이 놓여있다. 도요지에서 200여m 북쪽으로 노곡천이 흐르고 있어 도자기와 깊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산 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본 도요지는 주변의 시가지와 어우러져 정리되지 못한 불량한 경관을 보이고 있다. 안내판 등 보존·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불량하다고 사료된다. 반면, 자연적 입지로는 능선 위치나 도자기 수송과 관련된 하천 연관성이 있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하’로 평가된 선행 조사 결과와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를 종합한 결과 종합의견을 ‘하’로 평가하였다.

곤지암리 3호의 위치 및 경관사진

기초조사 도요지 선별조사

도요지명 곤지암리 3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09-8전외 1필지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하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위치



진입로(천로)



도요지 근경



도요지 근경



주변 시설(공장)

해발고도	105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능선 말단부 서~남동방향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5m, 남측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지	도요지 진입로 유무	무
입지 보존 상태	경작지	시설 침입 정도	경작지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무질서한 경작 상태 / 북동측 진입로 공장시설내부 경유		
종합 평가	하		

(3) 곤지암리 6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노곡천이 곤지암천과 합류하는 지점에 남쪽 능선부에 위치한다. 도요지의 피복 상태는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설치로 인해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이곳의 표고는 해발 100m로 노곡천을 따라 형성된 작은 계곡부의 능선에 위치한다. 도요지 서쪽 40m 거리에 노곡천이 위치하고 있다. 이 하천은 도자기 생산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위해 매우 긴요했을 것이다. 도요지의 동측 능선을 넘어 형성된 계곡은 과거 소하천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요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시설의 침입과 경작지 개석은 자연 경관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량한 상태라 판단된다.

② 인문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사적지로 지정된 상태이긴 하나 사유지로 구분되어 있다. 도요지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471-1. 도요지와 인접해 포장로인 곤지암로가 서쪽으로 지나간다. 이 도로 서측으로는 주택과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다. 철조망으로 막혀 있는 개인 소유지 관계로 내부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도요지 내부에는 깨, 고추 등의 작물 재배가 활발하다. 작물경작 흔적으로 보이는 나대지가 밭과 혼재되어 있다. 3개의 비닐하우스가 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밭 경작에 의한 훼손으로 표층의 훼손이 크게 발견된다.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긴 하나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 안내 및 해설 등의 보존 관리 시설, 보존경계유역 표시 등은 설비가 전무하다. 주변에 각종 인문 경관 시설이 근접하고 있으며, 능선 위쪽으로는 비닐하우스가 위치한다. 도요지의 서측

40여 m의 가까운 거리에 노곡천이 흐르고 있어 도자기 수송에 유리한 입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 인문 경관 상 특색으로는 능선 하단부에 위치해 있고, 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주변 지역이 시가지화 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도요지는 경관 상으로 매우 불량한 편에 속한다. 보존 측면에서 볼 때도 사적비를 비롯해 도요지 관련 안내판도 없어 매우 불량한 상태인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조사 결과가 '하'로 판명된 점,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의견으로 '하'로 평가하였다.

곤지암리 6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곤지암리 6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471-1전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하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진입불가 / 원경촬영

= 기초자료 조사 도면



위치



도요지 근경



도요지 근경

해발고도	100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능선 하단부 서~동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5m, 동측 작은 계류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밭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도요지 진입로 유무	98번 지방도 곤지암로 인접
입지 보존 상태	입구차단으로 진입불가	시설 침입 정도	경작지, 비닐하우스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입구 사단 사유지 / 주변 공장 시설 도로 인접		
종합 평가	하		

(4) 관음리 8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물로 가득 찬 논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근 도로가 포함된 도요지 추정 지역은 자연 훼손이 심하게 나타난다. 도요지는 관음리를 관통하는 도로를 따라 경안천의 지류인 우산천의 하안단구 상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75m. 물이 차있는 논은 도로보다 낮은 고도를 이루고 있다.

도요지는 경안천의 지류에 해당하는 소하천에 인접해 10m 거리를 두고 입지하고 있다. 하천 폭은 좁으나 하천유지용수로는 충분한 유량을 유지하고 있다. 도자기 생산을 위한 물 공급이 가능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아스팔트 포장로가 1m 단차를 두고 낮게 위치한다. 남측 주변으로 이어지는 능선으로는 상가지가 입지해 있어 자연 풍광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상가와 도요지로 추정되는 지역 간에는 2m 이상의 단차를 보이고 있다. 도요지 경관 가치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미지정 상태로 되어 있고 소유지는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명학골 241-1답 일원으로, 현재 지도에 표시한 공간범위를 넘어 도요지의 유구가 존재가능성이 농후하다. 도요지와 북쪽에 위치한 도로명은 천진암로로 포장된 도로가 바로 인접되어 있음. 남측에는 상가지역의 발달로 도요지 사이에 단차가 있어 상가 주차장의 시설 침입이 나타나고 있다. 포장도로측은 개방되어 있어 도요지로의 접근성은 매우 좋다.

도요지 내부에는 논 경작지로 농업적 토지이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침수뿐 아니라 유구의 소실이 우려되며, 일부 지역은 상가로의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사적지가 미지정 상태이므로, 당연히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 안내 및 해설 등의 보존 관리 시설, 보존경계유역 등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경관 보존 상태로는 서측의 가옥, 남측의 상가, 북측의 도로 등 다양한 인문경관시설과 혼재되어 도요지로서 경관이 불량하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인문 경관 상 산사면에 접한 경관이 아닌 도로와 접한 평지 상에 입지하고 있어 자연 경관 가치는 떨어진다. 단 현재 토지이용이 논 경작 상태이므로 도요지를 추정하기 어렵다. 하천과의 입지관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선행조사 결과가 '중'으로 판명하고 있어,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의 자연적 인문적토지이용이 매우 불량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하'로 평가하였다.

= 조사표 기초자료 도요지 선별조사 관리

관음리 8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관음리 8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471-1전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하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위치



진입로(도로가)

도요지

도요지



주변 시설(음식점)



주변 시설(판)

관음리 8호 조사표

해발고도	75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도로가 평坦, 도로보다 낮은 표고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30m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논	도요지 진입로 유무	도로가
입지 보존 상태	가마터 부근 논으로 절단	시설 침입 정도	불량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마터 대부분이 논으로 이용 · 남측 상가와 인접한 경계면에 단차 있음 · 논 이용으로 가마터의 침수 위험성 		
종합 평가	하		

(5) 관음리 16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의 피복 상태는 다른 도요지에 비해 그 훼손 정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밭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곳은 표충의 훼손이 비교적 적다. 관음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우산천과 도요지 사이를 지나고 있다. 도요지의 위치는 도로 북쪽의 남서-북동 방향의 완사면 상에 입지하며, 해발 고도는 50m를 나타내고 있다.

도요지는 경안천의 지류에 해당하는 소하천인 우산천과 18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우산천의 폭은 30여 m로 제법 넓어 지속적인 유량을 유지시키고 있다. 도요지의 북동 측에 세류가 존재한다. 강수의 유무나 계절에 따라 물 공급이 유동적일 수 있으나, 우산천으로부터 용수 공급도 가능해 보인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부에 속해 있는 본 도요지 입지는 포장 도로변에서 북쪽으로 완만한 경사로 이어지고 있어 경관적으로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한

다. 북동 측 주변으로 이어지는 산사면의 경관은 광주시 타 도요지보다 수려한 경관을 보인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지는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518외 1필지로, 현재 지도에 표시한 공간범위를 넘는다. 정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도요지의 남쪽을 지나는 도로명은 천진암로로 포장된 도로가 바로 인접되어 있다. 남측도로가에는 거주 지역은 없으나 비닐하우스로 이루어지 경작지가 위치한다. 이 지역과 도요지는 완만한 경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도요지의 동남측은 종교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도로에서 이 시설 앞을 통과하여 도요지로 진입가능하다. 한편 도요지의 서측방향에는 주거지가 입지하고 있고 주거사이의 골목을 경유하여 접근도 가능함. 따라서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도요지 내부로의 접근성에는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도요지 내부에는 밭 경작지로 농업적 토지이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고추 등의 일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비교적 경관훼손 상태가 불량하지 않다.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 안내 및 해설 등의 보존 관리 시설, 보존경계유역 등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인문 경관 보존 상태로는 서측의 가옥, 남동 측의 종교시설, 남측의 도로 등 다양한 인문경관시설과 혼재되어 있지만 비교적 북측의 산 능선이 유지되고 있어 도요지의 공간이 시각적으로 한눈 안에 들어와 매우 양호하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 인문 경관 상 산사면에 접한 경관을 유지하고 있어 자연 경관 가치는 매우 좋다. 단 현재 토지이용이 밭 경작 상태이므로 도요지의 훼손 정도도 나쁘지 않다. 하천과의 입지관계는 양호하다. 선행조사 결과가 ‘중’으로 판명하고 있음.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입지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중’으로 평가함.

관음리 16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관음리 16호	소재지	광주시 관음리 262-1길 외1필지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중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위치



진입로



도요지 전경



도요지 전경(측면)



주변시설(가옥)



주변시설(사찰)



주변시설(남측 하우스)

관음리 16호 조사표

해발고도	50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구릉지 완사면 남서~북동방향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180m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지	도요지 진입로 유무	사찰주차장 경유
입지 보존 상태	상부 경작 흔적, 하부 경작	시설 침입 정도	양호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릉지의 완사면으로 경관이 매우 좋음 심하지 않은 경작 상태 		
종합 평가	중		

(6) 도마리 1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이곳의 도요지 피복 상태는 도로, 밭 등 다른 도요지에 비해 피복의 훼손 정도가

불량하게 나타나고 있다. 밭 경작지는 비닐하우스가 많으며, 진입도로의 개설로 인해 도요지 내부의 훼손 정도가 심하다. 해발고도 100m 정도에 위치한 도요지는 장작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산사면 도로와 인접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완사면의 말단부에 속하는 지점이다.

도요지 동측의 포장도로를 건너 경안천 지류에 해당하는 소하천이 도로와 나란히 흐르고 있다. 이 하천까지의 이격 거리는 약 50m이다. 하천 폭은 5m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비교적 하성이 깊어 지속적인 유량을 유지하고 있다. 도요지 서측의 장작산에서 발원한 깊은 계곡이 위치하고 있어 도자기 제작을 위한 물 공급이 가능하다. 물론 강수 유무나 계절적 변화에 따른 물 공급은 유동적일 수 있다.

본 도요지 지점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에 포함된다. 자연 경관 보존 상태는 비교적 자연환경이 좋은 저산성 입지를 갖추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서측으로 이어지는 산사면 경관은 광주시 타 도요지보다 수려한 경관을 보인다. 단, 인공구조물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사유지로,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250-14번지이다. 도마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4차선 포장도로(태허정로)가 도요지와 바로 인접하며, 이 도요지는 남측의 마을 복지회관 앞에 주차공간도 확보되어 있어 접근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도요지의 북측은 도마리 7호 도요지와 인접해 있으며 상가와 주거시설과 접해 있다. 한편, 도요지 지번과 산사면 사이에 일반 농가가 지번 경계와 접하고 있어 이 도요지터가 민가와 태허정로 사이를 차단하고 있는 형태이다. 도요지 내부 북측에 민가로 진입하는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민가의 동측, 즉, 도요지 내부는 민가에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밭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중축 중인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3개의 비닐하우스가 동으로 약간의 단차를 두고 위치한다.

도요지터 내부의 중앙부분과 남측 부분은 텃밭 형태의 토지이용을 보인다. 채소 등을 경작하고 있다. 남측은 시멘트로 주차 가능한 상태로 훼손되어 있으며, 남단의과 접해 있는 복지시설과의 경계가 없다.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 안내 및 해설판은 도요지 지번 북측 민가로 진입하는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보존경계유역 등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인문 경관 보존 상태로는 도요지와 접한 가옥, 남측의 복지시설과 주차공간, 북측의 민가 진입도로, 비닐하우스 3개동 등 다양한 인문경관시설과 혼재되어 있어, 그 훼

손정도가 매우 심하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인문 경관 상 산사면에 접한 경관을 유지하고 있고, 소하천, 계곡류가 위치하고 있어 자연 경관 가치는 비교적 좋지만, 단 현재 토지이용이 인문적 각종 시설과 경작지의 혼재로 도요지의 훼손 정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선행조사 결과가 '중'으로 판명하고 있어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인문적 보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하'으로 평가하였다.

도마리 1호의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도마리 1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250-14번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중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위치



진입로(국도 인접)



도요지(전경)



도요지(동측)



도요지(서측)



주변시설1(마화관)



사적과 해설문

도마리 1호 조사표

해발고도	100m	사적비 유무	유
도요지 지형 특성	산사면 하단부 평탄부 동~서 방향 거의 평탄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유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50m, 경안천 지류 소하천의 최상류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지, 민가진입도로, 묘지	도요지 진입로 유무	국도인접, 45번 태허정로
입지 보존 상태	도요지와 하천 사이에 도로로 차단	시설 침입 정도	불량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완만 경사가 경지 개석에 의해 계단식 평탄면으로 개석비닐하우스 건설 중, 민가로의 진입 도로 개통으로 시설 침입 다수지번 내 묘지의 일부 침입		
종합 평가			하

= 조사표 기초자료
= 도요지 조사표

(7) 도마리 7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의 지표면 교란 상태는 주변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 조건으로 인해 비교적 양호한 정도를 나타내 보인다. 도요지의 해발고도는 110m 정도로 서측의 장작산에서 북동측의 도마삼거리로 뻗은 산사면 말단 능선부에 위치해 있다. 도요지 인근 하천은 동측 포장도로인 태허정로를 건너 1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소하천의 폭은 5m 이하이나, 비교적 하성이 낮아 소량의 물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도요지가 위치한 능선의 남쪽에 작은 계류가 형성되어 있다. 이 계곡의 규모는 매우 작아 이곳에서의 용수 확보 가능성은 어려워 보인다.

본 도요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에 위치한다. 그러나 해발고도가 높아 오염의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 능선 8~9부의 남사면 상의 위치하고 있어 자연 경관 보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지 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산 16~28이다. 도마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4차선 포장도로(태허정로)가 도요지 동측과 바로 인접한다. 이 태허정로 서측, 도요지 동남쪽에 상가가 한 채 위치하고 있으며, 상가 내부를 통해 도요지가 위치한 능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도요지 남서 측에 위치한 민가를 통해 도요지 능선으로의 접근도

가능하나 작은 계류를 건너야 가능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현재 외부로 부터의 접근은 용이하나 도요지 내부로의 진입은 상가를 통해 도요지 동측 능선을 올라 묘지를 통과하는 산책 소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도요지 외부 남측의 주택, 남동단의 상점을 제외하면 도요지 내부의 인문적 시설이용은 없다.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는 민가로 진입하는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지만 보존경계유역 등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인문 경관 보존 상태로는 도요지 내부로의 시설에 의한 훼손은 없어 비교적 자연적 경관이 그대로 남아 있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 인문 경관 상 산사면에 접한 경관을 유지하고 있고, 매우 작은 계곡류가 위치하고 있어 자연 경관 가치는 비교적 좋다. 선행조사 결과가 ‘상’으로 판명하고 있어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좋고,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인문적 훼손정도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중’으로 평가하였다.

도마리 7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도마리 7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산 16-28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상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위치



진입로

진입로 묘지

도요지 전경



가마터

주변시설

사적비

도마리 7호 조사표

해발고도	110m	사적비 유무	유
도요지 지형 특성	· 능선부의 남측사면 · 남~북 방향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유 (도마리1호 동측입구 위치)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10m, 소하천 계류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임야(망 훼손, 수목흔재)	도요지 진입로 유무	유, 기존 사유지 경유 묘지 서쪽 소로
입지 보존 상태	양호, 계류 경관 미약	시설 침입 정도	양호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 복토 후 망 설치로 보존 양호 · 남측 민가 사이에 작은 계류에 잡풀 우거짐		
종합 평가			중

(8) 목현동 1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해발 100m 정도에 위치한 본 도요지는 현재 경작지와 과수지로 활용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훼손이 발견되었다. 도요지 위치는 북서쪽 두리봉에서 뻗은 능선이 남측을 흐르는 목현천과 만나는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도요지 주변에는 남측 포장도로를 지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목현천이 흐르고 있다. 도요지와의 거리는 약 80m이다. 하천 폭은 10m 정도로 상시 유량을 유지하고 있다. 도자기 제작 시의 용수는 도요지 서쪽 능선의 연장골 계곡에서 확보 가능하다. 계곡 규모는 매우 작아 강수의 유무나 계절에 따라 물 공급이 유동적일 수도 있다.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위치하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자

연 경관 보존 상태를 보인다. 도요지 서측의 연장골 쪽에서 바라보면 전체 능선이 관찰되고 있으며, 능선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사면 경사면이 보여 경관 역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 구분은 사유지와 국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1-1번 외 1필지이다. 목현동을 동서로 관통하는 포장도로인 이배재로 도요지 남측과 50m에 인접한다. 이 이지배로 북측으로 새오개 골과 연장 골이 위치하는데 이 계곡에 주택과 상점이 입지하고 있다. 특히 동측에는 등산로인 새오개 길이 도요지의 동측 능선을 따라 인접해 있지만 사유지를 조금 경유해야 도달할 수 있다. 이 새오개 길이 도요지로의 접근이 가능한 길이다. 서측의 연장 골에서는 능선 상의 경작지를 통과하거나 민가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도요지 북측의 주택, 남동단의 연립주택을 제외하면 도요지 내부의 인문적 시설이용은 없지만 과수원 겸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요지 표충의 훼손은 있다.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는 없고 보존경계유역 등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 인문 경관 상 능선 말단부에 접한 경관을 유지하고 있고, 작은 계곡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 경관 가치는 비교적 좋다. 그러나 도로가에서는 이미 들어선 주택과 상가에 가려 능선의 경관이 양호하지 않다. 선행조사 결과가 ‘상’으로 판명하고 있어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좋고,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도요지 내부의 인문적 훼손정도도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주변의 주택과 상점 시설들로 일부 능선경관이 불량하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중’으로 평가하였다.

목현동 1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목현동 1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1-1번 외 1필지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상

소유 구분 사유지, 국유지 **기타** -



II.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기초조사

목현동 1호 조사표

해발고도	100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계곡부 동측 완사면 남~북 방향의 거의 평坦한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30m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지(과수원)	도요지 진입로 유무	무 : 사유 경작지 경우
입지 보존 상태	하천과 도요지 사이에 사유 경작지로 하천경관 미약	시설 침입 정도	불량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 밤나무 등 과수원 이용 · 북측 민가에서 진입로 개설되어 있음 · 등산로부터 진입로 확보 필요		
종합 평가			중

(9) 무갑리 14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의 피복 상태는 산 능선부의 임야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비교적 양호한 특성을 보인다. 과거 도요지 발굴조사 이후에 복토한 흔적이 일부에서 발견된다. 지변 내의 동남측 능선에는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도요지의 해발고도는 130m 정도이다. 무갑리 북쪽에 위치한 해발 456m 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능선부에 얇은 계곡이 자리하고 있다. 도요지는 남남서에서 북북동 방향을 향해 비교적 급한 오름사면을 이루고 있다.

도요지 주변으로는 남측 50m 거리에 무갑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경안천과 합류한다. 무갑천의 하폭은 10m 정도의 크기이나 유량은 의외로 많지 않다. 도자기 제작 시 사용된 물은 남측의 무갑천이나 능선의 동측의 매내미골 계류수로 해결했을 것이다.

본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 경관 보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도요지 남측의 비포장 길인 무갑길에서 바라본 도요지 위치점은 주변 산세의 확연성으로 인해 자연경관 상 양호한 편에 속함을 알 수 있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 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 50임야이다. 무갑리를 동서로 계곡을 따라 연결된 비포장도로인 무갑길이 도요지 남측에 무갑천을 건너 인접하고 있어 외부로 부터의 접근은 가능하다. 이 도로에서 도요지터로의 세부 접근로는 남동사면 끝자락에서 묘지를 경유하여 접근할 수 있다.

도요지의 바로 남측에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으나 도요지의 위치가 비교적 높아 도요지의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지는 않다. 남동측 능선 상에 묘지가 위치하며, 그 아래 양봉을 하는 시설 설치되어 있다. 도요지는 넓은 지변 내에 무갑리21호, 묘지가 위치하지만 중복되지 않아 도요지의 훼손은 없다.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는 없고 보존경계유역 등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 인문 경관 상 산 능선 3부 능선에 접한 경관을 유지하고 있고, 남측의 무갑천과 동측의 계곡류가 위치하고 있어 자연 경관 가치는 비교적 좋다. 선행조사 결

과가 ‘중’으로 판명하고 있어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요지 내부의 인문적 훼손정도도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주변의 묘지나 농가 시설들도 일부 능선경관이 크게 불량하지 않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중’으로 평가하였다.

무갑리 14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무갑리 14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 50임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좋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위치



진입로(사적지내 묘지 경유)



도요지 원경 (산능선부)



도요지(측면촬영)



도요지



주변시설(경작지)



주변시설(양봉장)

무갑리 14호 조사표

해발고도	130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산사면 중하단부 남남서~북북동 급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유 (무갑리 838지번에 위치)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무갑천 30m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임야	도요지 진입로 유무	동측 묘지에서 진입 남측 민가경유 불가
입지 보존 상태	도요지와 하천 사이 민가	시설 침입 정도	양호, 묘지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토 후 망 피복으로 양호 지번 경계 내에 묘지가 있으나 도요지터가 훼손되지는 않음 무갑리 21호와 나란히 입지 		
종합 평가	중		

(10) 무갑리 21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무갑리 21호 도요지는 무갑리 14호 도요지와 같은 지번 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경관평가는 무갑리 14호와 동일하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 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 50임야이다. 무갑리를 동서로 계곡을 따라 연결된 비포장도로인 무갑길이 도요지 남측에 무갑천을 건너 인접하고 있어 외부로 부터의 접근은 가능하다. 이 도로에서 도요지터로의 세부 접근로는 남동사면 끝자락에서 묘지를 경유하여 접근할 수 있다.

도요지의 바로 남측에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으나 도요지의 위치가 비교적 높아 도요지의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지는 않다. 남동측 능선 상에 묘지가 위치하며, 그 아래 양봉을 하는 시설 설치되어 있다. 도요지는 넓은 지번 내에 무갑리 14호, 묘지가 위치하나 중복되지 않아 도요지의 훼손은 없다.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는 없고 보존경계유역 등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인문 경관 상 산 능선 3부 능선에 접한 경관을 유지하고 있고, 남측의 무갑천과 동측의 계곡류가 위치하고 있어 자연 경관 가치는 비교적 좋다. 선행조사 결과가 ‘중’으로 판명하고 있어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요지 내부의 인문적 훼손정도도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주변의 묘지나 농가 시설들도 일부 능선경관이 크게 불량하지 않다. 따라서

서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중’으로 평가하였다.

무갑리 21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무갑리 21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 50임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중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위치



진입로 (사적지내 묘지 경유)



도요지 원경 (산능선부)



도요지(근경)



도요지(근경)



주변시설(경작지)



주변시설(양봉장)

무갑리 21호 조사표

해발고도	130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산사면 중하단부 남남서~북북동 급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유 (무갑리 838지번에 위치)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30m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임야	도요지 진입로 유무	동측 묘지에서 진입 남측 민가경유 불가
입지 보존 상태	도요지와 하천 사이 민가	시설 침입 정도	양호, 묘지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토 후 망 피복으로 양호 지번 경계 내에 묘지가 있으나 도요지터가 훼손되지는 않음 무갑리 21호와 나란히 입지
종합 평가	중

(11) 번천리 4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경안천의 지류인 번천의 남쪽 하천변에, 남쪽으로 약간의 경사를 이룬 상태로 위치한다. 번천 남쪽의 칠사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이 번천과 만나는 해발고도 65m의 낮은 지점이 도요지가 위치한 지점이다. 현재 이곳은 보호각을 설치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도요지 북쪽으로는 50m의 거리를 두고 번천이 위치하고 있어 쉽게 물 공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 도요지는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내부에 위치한다. 자연 경관 보존 상태는 인접 도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 구분은 국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522-2번지 외 5필지이다. 도요지는 중부고속도로와 나란히 위치하는 경안천의 지류인 번천의 하천변의 하안단구 상에 위치한다. 도요지는 보호각 시설로 정비되어 있다. 도요지의 동측과 서남측에는 해공로와 관청수 길을 따라 주택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외부지역에서 도요지로의 접근성은 매우 좋은 편으로, 중부고속도로의 광주 IC 출구에서 해공로를 통해 도요지의 주차장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주차장은 10여 대 정도의 주차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솔밭의 휴식공간도 조성되어 있다. 도요지가 지방도인 해공로의 북측에 보호각과 닿아있어 거리상으로는 매우 가까우나 보호각이 이러한 입지 경관의 불안전한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 등 보존관리 및 해설에 관한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시설 관리사무실이 출입구에 위치한다.

보호각 내부의 도요지는 가마터, 폐기장, 공방지 등 한 공간 안에서 도요지의 구성 요소가 분포되어 있다. 각 유구는 개방된 상태로 보호각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보호각 벽면의 다양한 도요지의 자료와 해설 등 교육과 홍보적 측면에서 활용

되고 있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 인문 경관 상 고속도로와 국도, 그리고 하천변에 접한 입지로 접근성은 좋으나 자연 경관 측면의 훼손이 두드러진다. 더욱이 취락의 발달로 산사면에 놓인 일반적 도요지의 경관과 무관하게 보인다. 하지만 하천변과 도로 사이의 좁은 공간을 보호각으로 차단하고 하천변 쪽의 고속도로 경관을 소나무 숲으로 가리는 등 도요지 내에서의 위아감은 적다. 선행조사 결과가 '상'으로 판명하고 있어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요지 내부는 도요지터, 공방터, 폐기장 등 일련의 도요지의 구성요소가 좁은 공간에 배치되어 있어 학술적, 교육적인 활용적 측면에서 보호 보존의 상태가 양호하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상'으로 평가하였다.

번천리 4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번천리 4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522-2번지 외 5필지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상
소유 구분	국유지	기타	보호각



위치



진입로(주차장)



도요지(보호각)



도요지보호각 내부



도요 관리시설

번천리 4호 조사표

해발고도	100m	사적비 유무	유
도요지 지형 특성	하천변 완만 경사 북~남으로 완만한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유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20m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유
현 토지이용 상태	전시관	도요지 진입로 유무	유
입지 보존 상태	보호각으로 지형 경관 훼손	시설 침입 정도	보호각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각, 관리시설, 주차장 완비 전시관 내 사진, 해설 완비 가마터, 공방지, 폐기장터 의 도요지 요소 충족 		
종합 평가	상		

(12) 번천리 8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번천리 4호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도요지는 번천 남쪽의 칠사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이 도로와 만나는 해발고도 1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도요지의 경사면은 지형 경사면을 반영해 완만하게 배치되어 있다.

본 도요지로부터 북쪽 80m 거리의 번천과 남쪽의 작은 계류로부터 자가 제작에 필요한 용수 확보가 가능했으리라 사료된다.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번천리 8호 도요지는 현재 조경지로 사용하고 있어 자연 경관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 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남한산성면 상번천리 186-9전 외 4필지이다. 동서로 뻗은 해공로에서 남측으로 연결되는 비포장도로 동측에 위치한다.

토지이용 상태는 잡목지와 조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조경지에는 수목이 조경되어 있다. 수목의 크기로 보아 조경수를 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깊이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조경수의 식목과정의 유구의 훼손도 추정할 수 있음. 또한 지표면이 거의 평坦하게 되어 있다.

도요지에서 남쪽에는 농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도로상에 사적비가 위치한다. 또 하나의 사적비가 조경지와 접한 산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번천리 8호 도요지 북측에 번천지 9호 도요지가 위치하는데 그곳의 사적비를 이곳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존경계유역 등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 인문 경관 상 북측의 번천과 도요지 남동측의 산사면, 도요지 주변에 2차선의 포장도로를 제외하면 도요지의 자연적 입지 상태로는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인문적 시설이 밀집되어 있지 않으며, 도요지의 서측 도로도 비포장도로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적 경관 가치는 비교적 양호함. 그러나 표충관리측면에서 보면, 조경지의 조경수를 심기 위한 과정상에서 표충의 훼손이 매우 우려되며, 이를 위한 평탄화작업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유구의 훼손이 우려된다.

선행조사 결과가 '중'으로 판명하고 있어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요지 내부의 조경수 크기나 표충교란에 따라 훼손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중'으로 평가하였다.

번천리 8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번천리 8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186-9전 외 4필지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중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위치



도요지 전경



도요지 전경



진입로(도로인접)



사적비 1



사적비 2

번천리 8호 조사표

해발고도	100m	사적비 유무	2기 중복
도요지 지형 특성	칠사산 북쪽사면 북~남으로 완만한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유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80m, 북측 번천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수목조성
현 토지이용 상태	조경지	도요지 진입로 유무	유
입지 보존 상태	수목뿌리 침입 우려	시설 침입 정도	불량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목지가 형성되어 있어 뿌리의 침입훼손이 우려됨 수목지 조정에 의해 개석흔적 사적비가 자번 남쪽과 자번 동쪽 산사면에 2기 하나는 9호 사적비로 추정 		
종합 평가	하		

(13) 번천리 9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번천리 8호에서 해공로를 건너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번천 남쪽의 칠사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이 도로와 만나는 지점이다. 해발고도 약 100m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하안단구 상에 위치한다. 도요지 경사는 밭 경작지 조성으로 인해 평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 지점에서 번천까지는 10m로 가까운 거리이나 도요지와 번천은 급경사의

단차로 막혀 있다. 도요지는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내부에 위치한다. 자연 경관 보존 상태는 경작으로 인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실정이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 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188-1전 일원이다. 동서로 뻗은 해공로와 번천사이에 동서방향으로 길게 위치하며, 토지이용 상태는 밭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측 일부는 비닐하우스로 이용 중이다.

남측 해공로와 포장도로 사이에도 밭 경작지가 위치하고, 이 지역 일원은 이미 밭을 경작하기 위해 밭을 평坦하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있다. 보존경계유역 등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사적비로 없으나 남측의 번천리 8호에 두 개의 사적비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 인문 경관 상 북측의 번천과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산사면에 위치한 능선의 연결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비닐하우스를 제외한 인문적 시설이 밀집되어 있지 않지만 경작지의 평탄화 과정 거쳤기에 표층의 교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유구의 훼손이 우려된다. 오래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관계로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1차 종합정비계획’의 선행조사 및 평가 결과가 없다. 따라서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없다. 표층교란에 따라 훼손이 우려되므로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하’으로 평가하였다.

번천리 9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번천리 9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번천리 관청수 188-1전 일원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주소 오류: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188-1전 일원



위치



진입로(도로인접) 및 전경



도요지(동측)



도요지(서측)



주변 시설(주변 경작지)

번천리 9호 조사표

해발고도	105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번천 남측 하안단구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10m, 북측 번천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수목조성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 흔적	도요지 진입로 유무	인접 해공로
입지 보존 상태	남측 지번 내 경작 중	시설 침입 정도	양호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안단구 상 경작흔적으로 평탄화 작업 인접하여 경작 중, 지번 서쪽에 비닐하우스, 과거 경작 흔적 사적비는 없으나 가까운 번천리 8호의 내측 사적비로 추정 		
종합 평가	하		

(14) 분원리 1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경안천이 팔당호로 들어가는 우안에 위치한 취락 지역의 동쪽 산 능선부에 위치하고 있다. 도요지 하단부의 표고는 25m, 분원백자자료관의 표고는 45m로 20여m의 비교적 급한 경사도를 가진다. 도요지 하단부의 피복은 경작지 흔적으로 훼손이 되어 있으며, 상부면에 학교 운동장이 들어서면서 크게 훼손되어 있다.

도요지는 산 경사면을 따라 입지하고 있다. 남측의 산수로 부분으로부터 물을 조달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계곡이 깊지 않은 관계로 수량은 풍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 지점은 수변구역 내부에 위치한다. 이곳의 자연경관은 크게 훼손된 상태로 현재는 초등학교와 전시관 등의 공공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 구분은 국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16학 일원이다. 경안천이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동측 분원리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위치한다.

분원리를 관통하는 산수로의 동측 사면에 분원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고 학교 부지의 대부분과 그 일원 지역이 도요지터이다. 따라서 토지이용 상태는 분원백자자료관, 학교부지이 대부분으로 공공시설 및 학교용지(건물과 운동장)로 이용되고 있어 이미 훼손정도가 매우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부지의 운동장 서측 사면은 일부 복토된 지역과 밭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분원리 117-5 지번과 117-3 지번에는 자기 파편이 노출되어 있어 가마터나 폐기장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다. 사적비는 학교로의 진입로에 위치하며, 기타 해설판은 산수로에 있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경관으로서는 강가에 위치하여 한양으로 수송하기 위한 깊은 수심과 도진취락의 자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나 분원이 위치했다는 상징성 이외에 도요지터에 대한 보존 관리는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오래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관계로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1차 종합정비계획’의 선행조사 및 평가 결과가 없다. 따라서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없다. 학교용지의 이용에 따라 훼손이 우려되므로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하’으로 평가하였다.

분원리 1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분원리 1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16학 일원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
소유 구분	국유지	기타	116 : 학교부지 / 117-5, 117-3에 나대지와 경작지



위치



진입로



도요지 서측1



도요지 서측2



도요지 중앙 학교시설



도요지 동측 분원백자관



사적비 및 해설판

= 조사기록부 도요지 분원리

분원리 1호 조사표

해발고도	25~45m	사적비 유무	유(학교진입로 입구)
도요지 지형 특성	산사면 하안단구 상부 남~북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유(342번 도로가)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90m, 남한강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초등학교부지, 분원백자관 도요지 진입로 유무	도요지 진입로 유무	학교진입로
입지 보존 상태	운동장 시설로 경사 유실	시설 침입 정도	불량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부지와 대부분 중복 사적비가 분원리 117-5 지번 (학교진입로)에 위치 분원리 117-5 지번과 117-3 지번에는 자기 파편이 노출되어 있어 가마터나 폐기장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음 		
종합 평가	하		

(15) 상림리 10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상림리 10호 도요지는 상림리 12호 도요지와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도요지 북동쪽의 구릉성 산사면과 마을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휴경지가 많아 피복의 훼손 정도가 비교적 양호하다.

해발 135m 정도에 위치한 본 도요지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상림3리 남서쪽에 노곡천이 흐르고 있으며, 도요지 주변으로는 작은 계곡에 계류가 흐르고 있다. 계곡 폭은 1m 미만으로 유량은 많지 않으며, 계곡의 규모가 작아 강수의 유무나 계절에 따라 물 공급이 유동적일 수 있다.

본 도요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위치하며, 자연 경관 보존 상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산지 중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능선부 경사면이 보여 자연경관 상 양호하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 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51-3번 외 2필지이다. 상림리는 사기소가 있던 자리로, 도요지는 상림3리 마을 북동쪽에 위치하며, 마을 북쪽 산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토지이용 상태는 밭 경작지 이거나 경작을 한 흔적이 있다.

외부로 부터의 접근성은 노곡천에 세워진 사기소교를 넘어 상림3리 마을 노인정에서 촌락을 경유하게 되므로 양호하다. 도요지 내부에 비포장 흙길이 남북 방향으로 위치한다. 도요지에서 남쪽에는 농가와 종교시설(교회)가 위치하고 있다. 사적비나 도요지 해설 등 관리 보존시설은 없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 인문 경관 상 마을의 뒤쪽 계곡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인문적 시설에 의한 훼손은 매우 작다. 완만한 경사지의 경관이 유지되고 있다. 선행조사 결과가 '하'로 판명하고 있어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중'으로 평가하였다.

상림리 10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상림리 10호 **소재지**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51-3전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하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위치



진입로(도요지 관통)



도요지(북동측)



도요지(서쪽)



주변 시설(교회)

상림리 10호 조사표

해발고도	135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산사면 하단 남~북동 방향 완만한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지번 내 계곡류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지, 소로	도요지 진입로 유무	유 마을 소로
입지 보존 상태	산사면 경사 유지	시설 침입 정도	경작지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작지 이용 상림리 10호와 12호를 관통하는 계류, 북서쪽에도 계류가 있음 상림리 10호를 남북으로 소로 		
종합 평가	중		

(16) 상림리 12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상림리 10호 도요지 옆에 위치하고 있는 상림리 12호 도요지의 자연 경관 특성은 12호의 그것과 동일하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 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51-3전 외 2필지이다. 도요지는 상림리 10호 도요지 바로 동측에 위치하며, 마을 북쪽 산사면에 입지함. 토지이용 상태는 밭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외부로 부터의 접근성은 상림리 10호와 동일하다. 도요지터 좌측으로 비포장 흙길이 남북 방향으로 위치하며, 도요지에서 남쪽에는 농가와 종교시설(교회)가 위치하고 있다. 사적비나 도요지 해설 등 관리 보존시설은 없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 인문 경관 상 마을의 뒤쪽 계곡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인문적 시설에 의 한 훼손은 매우 작다. 완만한 경사지의 경관이 유지되고 있다. 선행조사 결과가 '하'로 판명하고 있어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의 타 경작지와 인접하고 있어 다소 훼손됨. 따라서 이 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하'로 평가하였다.

상림리 12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상림리 12호 **소재지**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51-4전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하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위치



진입로(도요지 서측 인접)



도요지 근경

상림리 12호 조사표

해발고도	135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산사면 하단 남~북 방향 완만한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지번 내 계곡류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지	도요지 진입로 유무	마을 소로
입지 보존 상태	경작지, 비닐하우스	시설 침입 정도	경작지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림리 10호와 인접 · 경작지 및 하우스 시설 위치 		
종합 평가	하		

(17) 선동리 2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국수봉의 구릉성 산지의 급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에는 임야로 사용되고 있다. 해발고도는 115m 정도이다. 구릉성 산지의 계곡과 능선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 위치해 계류도 존재하지 않는다. 도요지의 동측에 중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경관 상으로도 매우 불량하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 구분은 사유지임.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산 1-1이다. 도요지의 동측으로 중부고속도로가 바로 접해 있으며 도요지가 위치한 구릉과 고속도로 사이에 약간의 소로길이 있는 정도이다.

고속도로 우측의 산수로가 고속도로와 평행하게 놓여 있으나 고속도로 밑을 통과하는 1차선 굴다리를 지나야 이 소로에 들어설 수 있다. 접근로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도요지의 남측 산사면에서 진입도 여의치 않다. 사적비나 도요지 해

설 등 관리 보존시설은 부족하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 인문 경관 상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있고 동쪽으로 뻗었을 능선이나 계곡의 경관이 고속도로에 의해 훼손된 상태이다. 고속도로, 공장의 입지 등 인문적 시설에 의한 훼손이 매우 크다. 작다. 선행조사 결과가 '중'으로 판명하고 있어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양호 것으로 판단되나 인문적 주변 경관의 훼손이 심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하'으로 평가하였다.

선동리 2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선동리 2호	소재지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산 1-1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중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위치



진입로(고속도로 지하도)



도요지 근경



도요지 근경



주변 시설(고속도로)

해발고도	115m	사적비 유무	유
도요지 지형 특성	구릉선 산지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곤지암천 지류 500m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임야	도요지 진입로 유무	고속도로 지하차도와 소로
입지 보존 상태	고속도로 침해	시설 침입 정도	고속도로 인접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음 도요지는 대부분 임야 상태 		
종합 평가	하		

(18) 송정동 4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경기도 광주시 청부지 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본 도요지는 시청부지의 북측에서 뻗어 내려오는 산 능선의 하단부에 자리하고 있다. 도요지의 피복 상태는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도요지에 비해 피복의 훼손도가 덜한 상태이다.

해발고도 120~130m 정도로 구릉 정상부는 약간의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현재 주변에는 하천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시청부지 하부는 과거 계곡부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할 뿐이다. 도요지 북측으로도 계류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도요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포함된다.

② 인문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소유지는 사유지와 국유지로 구성된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378-1임 외 3필지로, 토지이용 상태는 도요지 북쪽으로부터 일부 임야, 밭 경작지, 묘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밭 경작지는 약간씩의 단차가 보이며, 묘지 부문은 지형의 변경이 나타난다.

광주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4차선 포장도로(회안대로)가 남동쪽으로 도요지와 바로 인접하며, 서측은 경기도 광주시 청부지와 인접해 있다. 시청부지 북측에 대형 주차장이 있어 주차공간도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 인문 경관 상 시청부지 북서쪽에서 뻗은 능선의 거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

어 도요지 남동쪽에서 본 경관은 수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단에 묘지가 자리 잡고 있어 자연 경관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 인문적 경관은 밭 경작지와 묘지를 제외하면 접근성과 주차 공간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묘지의 상단 일부가 도요지와 접해있다. 선행조사 결과가 '중'으로 판명하고 있어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중'으로 평가하였다.

송정동 4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송정동 4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378-1임 외 3필지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중
 소유 구분 사유지, 국유지 기타 유구 포함 현재 지번 : 광주시 송정동 378-1, 378-2, 378-7

= 조사표 기초자료 =



해발고도	130~140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능선 하단부	안내판(해설판) 유무	유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40m 도로복개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지 나대지, 묘지	도요지 진입로 유무	유 북서측 주차장
입지 보존 상태	묘지에 의한 지형변경	시설 침입 정도	묘지, 경작지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마터 확인지는 378-1 남쪽에 위치 북측 경작지, 가마터 중앙 나대지(경작 흔적), 가마터 남동쪽 묘지 능선부가 주차장으로 절단 서쪽의 시청 건물 		
종합 평가	중		

(19) 송정리 5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광주시청 북쪽에 위치하는 군월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의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시청사 내의 공원부지에 조성되어 있는 관계로 토지이용은 양호하다. 도요지 가마터의 피복 상태는 잔디로 피복되어 있다. 발굴조사 이후 복토가 잘 진행된 상태이다.

도요지의 해발고도는 85m 정도이다. 남측 50m 거리에 하천이 위치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해당된다. 자연 경관 보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는 미지정되어 있으며, 소유 구분은 시청부지이다. 도요지소재지의 현재 지번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570번지이다. 도요지는 시청부지 내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행정타운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외부로 부터의 접근성은 행정타운로를 통해 광주 시청내의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다. 부지 내부는 잔디로 조성된 공원화되어 있고 표충도 복토 후 잔디조성이 잘 이루어져 있다.

도요지의 북서쪽으로 송정리 6호 도요지와 시청부지 북동쪽의 송정리 4호와 인접해 있다. 특히 송정리 6호는 송정리 5호에서 볼 수 없는 도요지의 폐기장터가 있어 도요지 구성요소의 부족한 부분을 상쇄시키고 있다. 도요지에서 남쪽 행정타운로 건너편에는 각종 도시 편의시설이 입지하고 있고, 행정타운로를 육교 형태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보존 관리적 측면에서 사적비, 해설문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시청부지 내부에 입지하는 관계로 자연 경관은 많이 훼손된 상태이나 북서쪽으로 산사면이 남아 있다. 인문적 경관은 시청부지로 인해 빌딩 숲에 위치하지만 비교적 공원화된 내부 시설 조성 관계로 잘 정비되어 있다. 선행조사 결과가 판명되지 않아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는 알 수 없으나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상'으로 평가하였다.

송정동 5호 위치 및 경관사진

기초조사 도요지 조사

도요지명 송정동 5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산 65-2임
지정 현황 미지정 선행 조사 결과 -
소유 구분 시청부지 기타 지번 오류 또는 변경 / 현재 지번 : 광주시 송정동 570



위치



진입로(전경)



도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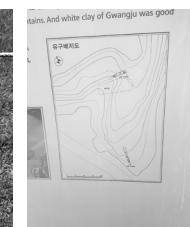
도요지



안내판



해설판



가마터 평면도

해발고도	85m	사적비 유무	유
도요지 지형 특성	산사면 하안단구 상부 남~북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유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하천 복개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유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지와 나대지	도요지 진입로 유무	유
입지 보존 상태	경사면 유지	시설 침입 정도	무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은 시청부지 북서쪽 임야지대로 되어 있음 · 현재 시청부지 내 공원화 조성 · 잔디 피복과 경계구역 표시, 해설판, 사적비, 유구평면도 등 		
종합 평가	상		

(20) 송정리 6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광주시청 북쪽 군월산에서 남쪽 방향 시청부지 서쪽으로 뻗은 능선 끝자락에 위치한다. 시청사 공원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이용은 양호하다. 도요지 가마터와 폐기장터의 피복 상태는 철책으로 보호되어 있다. 발굴조사 이후 복토가 양호하게 진행되어 있다.

해발고도는 90m 정도인 본 도요지는 주변의 하천과 남측으로 약 50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해당된다. 자연 경관 보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는 지정 되어 있지 않으며, 소유 구분은 시청부지이다. 도요지소재지의 현재 지번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570번지로 송정리 5호 도요지와 동일하다. 도요지는 시청부지 내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도요지와 인접하여 행정타운 도로가 남쪽을 지나가고 있다. 외부로 부터의 접근성은 행정타운로를 통해 광주 시청내의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다. 부지 내부는 잔디로 조성된 공원화되어 있고 표충도 복토 후 잔디로 조성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도요지의 동남쪽으로 송정리 5호 도요지와 시청부지 북동쪽의 송정리 4호와도 인접거리에 있다. 도요지에는 가마터와 폐기장터가 있어 도요지 구성요소 중 2가지를 충족시키고 있다. 도요지 남쪽 행정타운로 건너편에는 각종 도시 편의시설이 입지하고 있고, 행정타운로를 육교 형태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보존 관리적 측면에서 해설문, 안내판, 유구

평면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시청부지 내부에 입지하는 관계로 자연 경관은 많이 훼손된 상태이나 북서쪽으로 시청내 진입로 건너편으로 산사면이 남아 있다. 인문적 경관은 시청부지로 인해 빌딩 숲에 가린 위치하지만 비교적 공원화된 내부 시설 조성 관계로 잘 정비되어 있다. 선행조사 결과가 판명되고 있지 않아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는 알 수 없으나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상'으로 평가하였다.

송정동 6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송정동 6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산 65-2임 일원
지정 현황 미지정 선행 조사 결과 -
소유 구분 시청부지 기타 지번 오류 또는 변경 / 현재 지번 : 광주시 송정동 570

= 기초조사 도요지 조사 =



해발고도	90m	사적비 유무	유
도요지 지형 특성	구릉성 서측사면 서~동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유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도로복개로 관측불능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유
현 토지이용 상태	보존 정비 잡풀, 나대지	도요지 진입로 유무	행정타운로 북서측인접
입지 보존 상태	하천 복개	시설 침입 정도	무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은 시청부지 북서측 임야지대로 되어 있음 · 현재 시청부지 내 공원화 조성 · 가마터와 폐기장 표시, 경계구역 표시, 해설판, 유구평면도 등 		
종합 평가	상		

(21) 신대리 8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북동 방향으로 놓인 본 도요지는 현재 방치되어 있으나 경작지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된다. 능선 말단부에 위치해 산으로 이어지는 경사가 급하다. 해발고도는 105m인 본 도요지는 밭 경작지로 평탄하게 정리되어 있다.

도요지 주변의 곤지암천과는 약 300m 이상 떨어져 있으나, 40m 북측 계곡에 작은 계류가 흐르고 있다. 도자기 제작을 위한 물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 자연 경관 보존 상태는 주변의 주택가를 비롯해 표층의 훼손 정도가 심해 불량한 편이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 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산 7임 외 12필지이다. 곤지암천 북동쪽 신대리 마을 동북쪽 산사면에 위치한다. 심대리 마을의 좁은 골목을 통과하여 도요지로 접근이 가능하며, 포장되어 있다.

토지이용상태는 밭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고 경작한 흔적이 남아 있다. 밭 경작으로 지표면이 거의 평坦하게 되어 있다. 도요지 바로 남쪽에는 민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민가의 마당과 접해 있다. 이 민가와 접한 도요지면은 정원석으로 조경되어 있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 인문 경관 상 남측의 곤지암천과 북측의 계곡류로 전체적 입지는 양호하나 도요지의 규모가 작고 급경사의 산사면, 인접한 민가 등 도요지의 자연적 입지 상태로는 양호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인문적 시설로 인한 훼손이 보이며, 표층관리측면에서 표층의 훼손이 매우 우려되며, 이를 위한 평탄화작업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유구의 훼손도 우려된다.

선행조사 결과가 '하'로 판명하고 있어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하'로 평가하였다.

신대리 8호 위치 및 경관사진

= 기초조사 도면선별자료 =

도요지명 신대리 8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산9-12외 8필지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하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위치



진입로 취락 경유



도요지 전경(정원석 축담)



도요지(표층부)



주변 시설(도요지 남측 가옥)

해발고도	105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능선 북사면 하단부 북~남 방향 경사 유실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40m, 계곡류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지 흔적 가건물시설	도요지 진입로 유무	정원석과 나무로 진입차단
입지 보존 상태	개석으로 평탄화	시설 침입 정도	불량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작 흔적과 평탄작업 · 표충 잡목지 		
종합 평가	하		

(22) 신대리 12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북동쪽에서 뻗어 내린 능선의 밀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능선의 동측과 서측의 도로를 따라 민가가 조밀하게 입지하여 있으며, 도요지의 하단부는 경작으로 인해 매우 훼손되어 있다. 도요지 상단부는 잡목지로 방치된 상태이다. 도요지는 해발고도는 100m 정도이다.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오름경사를 유지하고 있다.

도요지 주변 남측으로는 곤지암천이 흐르는데 거리는 300m 이상 떨어져 있다. 경안천의 작은 지류가 도요지의 남쪽 10m 거리에 위치한다. 이 소하천에서 물 공급이 가능해 보인다. 본 도요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 자연 경관 보존 상태는 도요지 하단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도요지가 들어선 산체 능선이 한눈에 보이고, 도요지 능선의 중하단부의 경사면이 보여 자연경관 상 양호한 편이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 구분은 사유지와 국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산 7임 외 12필지이다. 도요지의 서쪽에 포장도로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곤지암천을 건너는 새터교를 이용하면 접근성이 양호하다.

토지이용 상태는 도요지의 중심부는 잡목지로 이용되고 있고 방치되어 있다. 도요지 우측에 묘지 1기가 위치한다. 서측 도로를 따라 민가가 위치하며, 남측과 동측은 민가가 조밀하게 들어서 있다. 도요지 하단은 밭 경작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다. 능선을 따라 접근하기 어려우며 동측의 민가와 민가의 좁은 공간을 이용하

여 접근할 수 있다. 사적비를 비롯한 안내 해설시설이 없고, 보존경계유역 등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인문 경관 상 거시적 관점에서 곤지암천과 지류인 소하천, 능선 등 자연 경관적 요소는 비교적 양호하나, 북측의 공장 시설 등으로 연결되는 포장도로가 도요지에 인접해 있고, 민가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선행조사 결과가 '상'으로 판명하고 있어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도시화의 요소가 많아 훼손의 압박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하'로 평가하였다.

= 조사기록부 도요지 현장 관찰 =

신대리 12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신대리 12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산 7임 외 12필지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상
 소유 구분 사유지, 국유지 기타 신대리 산7-1



위치



진입로



도요지(원경)



도요지(표충부)



도요지(표충)



도요지(표충)



주변시설(빌라)

해발고도	100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능선 끝자락 남~북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10m 북측 소계곡류 잔존 가능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나대지	도요지 진입로 유무	무
입지 보존 상태	지번 주변인접 민가 일부 경작지	시설 침입 정도	양호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주거지의 개석으로 심해진 경사로 진입로 불가, 추가조사 필요 나대지 형태이나 일부 경작지, 주변 경작지와 가옥이 인접 		
종합 평가	하		

(23) 신대리 13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하천변 넓은 계곡 하단부에 위치한다. 동에서 서쪽으로 완만한 경사가 이어진다. 도요지의 해발고도는 105m 정도로, 도요지 주변에는 곤지암천이 위치하고 도요지 서쪽에 곤지암천의 작은 지류가 흐르고 있다. 도요지로의 물 공급은 서쪽의 소하천에서 가능하다. 소하천은 하폭의 규모는 작지만 유량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 자연 경관 보존 상태는 급격한 시가지화의 진행으로 불량한 편이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 구분은 사유지와 국유지이다. 현재 도요지의 소재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153-1과 154-3이다. 도요지는 신대리 북쪽에 위치하여 포장도로가에 접해있다. 도요지 북쪽에는 도로를 따라 많은 공장이 입지하고 있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다. 현재 토지이용상태는 비교적 넓은 계곡 부에 대규모 밭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두 개의 필지 사이에 일반 민가가 위치하고 있다.

외부로 부터의 접근성은 곤지암천을 가로지르는 새터교를 건너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주변 농가의 대규모 경작지로 사적비나 도요지 해설 등 관리 보존시설은 없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인문 경관 상 하천주변 넓은 계곡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시가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주변에 공장 시설 등 인문적 시설이 입지해 있어 경관 상으로 매우 불량하다. 선행조사 결과가 '상'으로 판명하고 있어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지만, 시가지화의 압력을 쉽게 받는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하'로 평가하였다.

신대리 13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신대리 13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산 7임 외 12필지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상

소유 구분 사유지, 국유지 기타 신대리 153-1, 154-3

= 기초자료 도요지 조사



위치



도요지



도요지 근경



도요지근경(신대리 154-3)



주변 시설(지번 사이 가옥)

신대리 13호 조사표

해발고도	105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하천변 넓은 계곡 하단 서~동 완만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20m, 곤지암천 지류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지	도요지 진입로 유무	지방도로 인접
입지 보존 상태	도로인접 가옥	시설 침입 정도	전 지번 내 경작지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3-1, 154-1 사이에 가옥 위치 경작지 토지이용으로 대부분 평탄화 도로 인접 		
종합 평가	하		

(24) 신대리 18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비양산 동측 사면 하단에 위치한다. 주변은 곤지암천과 소하천이 합류하는 곳으로 비교적 넓은 계곡을 이루고 있다. 도요지 동에서 서쪽으로는 완만한 경사가 이어진다. 도요지의 해발고도는 105m로 도요지로의 물 공급은 동쪽의 소하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소하천은 하폭의 규모는 작지만 유량은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위치한다. 도요지 터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복원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소유 구분은 사유지이다. 현재 도요지의 소재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197-19이며 공장이 입지해 있다. 도요지 북동쪽에는 소하천과 도로를 따라 많은 공장이 입지하고 있다. 외부로 부터의 접근성은 곤지암천을 가로지르는 새터교를 건너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주변 농가의 대규모 경작지로 사적비나 도요지 해설 등 관리 보존시설은 없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 인문 경관 상 하천주변 넓은 계곡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시가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해당 도요지 및 주변에 공장 시설 등 인문적 시설이 입지해 있어 경관 상으로 매우 불량하다. 선행조사 결과가 없지만 이미 공장이 입지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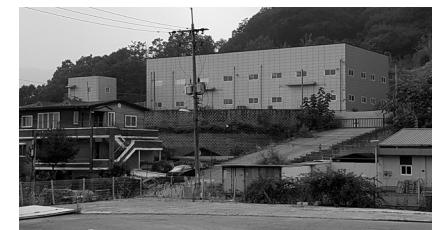
로 추후 조사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하’로 평가하였다.

신대리 18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신대리 18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산 4-7
지정 현황	미지정	선행 조사 결과	-
소유 구분	-	기타	확인필요 / 신대리 197-19



위치



진입로



도요지 근경(공장)

신대리 18호 조사표

해발고도	105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산사면 완만 계곡부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20m, 곤지암천 지류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공장시설	도요지 진입로 유무	무
입지 보존 상태	공장시설	시설 침입 정도	매우불량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지번의 확인이 필요 공장시설의 입지 훼손 가능성 높후 		
종합 평가	하		

(25) 신대리 28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곤지암천의 지류인 소하천이 신대리로 흐르는 하천변 동쪽에 위치한다. 계곡에는 하천을 따라 민가와 농경지가 이어진다. 도요지의 해발고도는 105m이다. 하천의 하류에서 상류방향 즉, 남쪽에서 북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고 있다.

도요지 남측으로 400m 이상 떨어진 지점에 곤지암천이 흐른다. 경안천 지류가 도요지 서쪽 5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소하천에서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 자연 경관 상으로 양호한 위치이나 경작지 훼손 정도가 심하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 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145-12, 146이다. 도요지의 주변지역은 하천을 따라 경작지가 분포하며, 남단은 가옥이 위치한다.

도요지로의 접근선은 신대리 마을 골목을 경유하여 계곡으로 들어 올 수 있다. 토지이용 상태는 도요지는 2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단차가 심하며, 밭 경작을 위해 평탄한 지형으로 개석되었다. 일부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위치한다. 단차와 밭 경작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다. 사적비를 비롯한 안내 해설시설이 없고, 보존 경계유역 등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 인문 경관 상 거시적 관점에서 곤지암천으로 합류되는 소하천 계곡 상에 위치하고 북쪽 계곡으로 인공지형지물이 보이지 않아 양호하나, 경작지의 표층 상태와 단차 등으로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선행조사 결과가 '하'로 판명하고 있어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하'로 평가하였다.

신대리 28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신대리 28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산 9-12임 외 8필지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하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신대리 145-12, 146



위치



진입로(양측 도로)



도요지 전경



도요지 근경



도요지(단자 있음)

= 기초자료 조사 =

신대리 28호 조사표

해발고도	105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계곡부 하안단구 서~동. 북~남 완만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20m 북측 곤지암천 지류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지	도요지 진입로 유무	인접 도로
입지 보존 상태	2개 경작지간 단차 1m	시설 침입 정도	불량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작지 이용 · 경작지간 단차 		
종합 평가	하		

(26) 열미리 5호(북)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열미리 계곡의 소하천 동측 사면에 위치한다. 도요지의 피복 상태는 밭 경작지로 훼손된 상태가 심하다. 표고는 320m로 소하천 최상류 지역에 속한다. 동쪽 사면으로 경사진 구릉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도요지의 서측 하천을 따라 좁은 계곡이 연결되어 있으며, 작은 계곡에는 소량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 도자기 생산에 필요한 용수 확보가 가능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도요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위치한다. 도요지 동측의 산사면 구릉지 상부에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 상태로 되어 있고 소유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5-1 외 1필지이다. 도요지와 인접한 도로는 포장도로가 위치한다. 이 도로를 따라 가옥이 산재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작지이다. 동측에는 블루버드CC의 메이플코스를 공사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진입은 열미길을 따라 6km 정도 계곡을 따라 들어와야 한다.

도요지 내부에는 밭 경작지로 작물을 재배하거나 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있다. 밭 경작에 의한 훼손으로 표층의 훼손이 나타난다.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 안내 및 해설 등의 보존 관리 시설, 보존경계유역 표시 등은 설비되어 있지 않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경관은 산 능선과 계곡이 연결되는 말단부에 입지하고 있어 경관은 양호하다. 주변에 민가의 발달이 적고 대부분 경작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하천의 규모가 작아 곤지암천까지의 도자기 수송도 양호하지 않다. 골프장의 건설이 경관 상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조사 결과가 ‘하’로 판명하고 있으며,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매우 떨어진다.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하’로 평가하였다.

열미리 5호(북)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열미리 5호(북)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25-1 외 1필지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하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열미리 5호(북) 위치



진입로(인접도로)



도요지(북측)



도요지(남동측)



주변 시설

열미리 5호(북) 조사표

해발고도	320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산사면 하단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220m 서측, 북쪽 계곡류가 인접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지 일부 논	도요지 진입로 유무	유
입지 보존 상태	동측 능선 경사부 임야 특히 인접한 하천과 경사면 유지	시설 침입 정도	경작지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 상 동측으로 능선 형태가 남아 있음 북측 계곡류 남아있음 		
종합 평가	중		

(27) 열미리 5호(남)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열미리 계곡의 동측 사면에 위치한다. 도요지의 피복은 밭 경작지로 되어 있다. 부지 내 경작지 간에 단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훼손 정도도 심하다. 표고는 320m로 소하천의 최상류 지역에 속한다. 동쪽 사면의 상부 방향으로 경사지가 나타나 보인다.

도요지의 서측 소하천을 따라 좁은 계곡이 연결되어 있으며 소량의 계류수가 흐르고 있다. 용수 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 도요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 구역 외부에 위치한다. 도요지 북동 측의 사면 위쪽으로 골프장이 공사 중이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 상태로 되어 있고 소유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61-1 외 1필지이다. 도요지와 인접한 도로는 포장도로가 위치한다. 이 도로를 따라 가옥이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작지이다. 동측에는 골프장인 블루버드CC의 메이플코스를 공사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진입은 열미길을 따라 6km 정도 계곡을 따라 들어와야 도달 가능하다.

도요지 내부에는 밭 경작지로 작물을 재배하거나 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있다. 특히 경작지간 2m 단차가 조경석으로 조성되어 있다. 밭 경작에 의한 훼손으로 표층의 훼손이 나타난다.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 안내 및 해설 등의 보존 관리 시설, 보존경계유역 표시 등은 설비되어 있지 않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경관은 산 능선과 계곡이 연결되는 말단부에 입지하고 있고 북동측의 산사면 경관은 양호하다. 주변에 민가의 발달이 적고 대부분 경작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의 규모가 작아 곤지암천까지의 도자기 수송은 양호하지 않다. 도요지 북측에 인접하여 골프장 출입구가 조성되어 있어 골프장의 건설로 인한 경관 상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조사 결과가 '하'로 판명하고 있으며,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매우 떨어진다.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하'로 평가하였다.

열미리 5호(남)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열미리 5호(남)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61-1 외 1필지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하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열미리 5호(남) 위치

= 광주광역시 기초자료 도면선택지



진입로(교량)



도요지(동측상단)



도요지(서측 하단)



도요지 중앙 절개부

열미리 5호(남) 조사표

해발고도	320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산사면 하단부 서~동 경사 단차 있음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5m, 북측과 서측 계곡류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지 심한단차 정원식	도요지 진입로 유무	유
입지 보존 상태	불량	시설 침입 정도	경작지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상 동측으로 능선 형태가 남아 있음 북측 계곡 남아있음 		
종합 평가	중		

(28) 오전리 3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도요지는 약사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 말단부에 위치한다. 하천과 만나는 하안단구의 퇴적사면 지점이다. 비교적 완만한 경사면을 갖고 있다. 도요지의 표층은 주말농장의 경영으로 텃밭 형태의 경작지를 이루고 있다. 도요지의 표고는 150m로 경안천의 지류인 뒷말천 중류 구간에 해당한다.

도요지 남측을 흐르는 뒷말천과 접해 있으며 유량은 풍부하다. 이 도요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위치한다. 평坦한 텃밭 조성으로 본래의 능선 연결이 보이지 않는다. 경관 훼손이 심하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 상태로 되어 있고 소유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리 27답 외 1필지이다. 현재의 토지이용은 주말농장이나 이전 필지가 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는 논으로 이용되었다. 도요지와 인접한 남한산성로는 포장되어 있고 하천의 남쪽에 접해있다. 하천의 폭이 넓고 수량이 풍부하여 도요지 북동쪽에 위치한 다리를 경유하여 주말농장 내부를 지나야 접근할 수 있다.

도요지 내부에는 밭을 경작 중인 상태로 채소 작물 위주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말 농장인 관계로 도요지 바로 인근까지 차량이 진입을 하는 상황이다. 밭 경작에 의한 훼손으로 표층의 훼손이 심하게 나타난다.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 안내 및 해설 등의 보존 관리 시설, 보존경계유역 표시 등은 설비되어 있지 않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경관은 산 능선과 계곡이 연결되는 말단부에 입지하고 있어 경관은 남아있지만 주말농장의 밭 경작지화 한 관계로 능선의 절단되어 있다. 또한 주말마다 방문하는 방문객의 차량이 출입하고 있어 도요지의 훼손이 심하게 나타난다. 선행조사 결과가 '하'로 판명하고 있으며,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매우 떨어진다.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하'로 평가하였다.

오전리 3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오전리 3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리 27답 외 1필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하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위치



도요지(전경)



도요지(근경)



도요지(근경)



주변 시설(주말농장)

오전리 3호 조사표

해발고도	150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하안단구 퇴적사면, 산사면 말단, 남~북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5m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지	도요지 진입로 유무	주말농장 경유
입지 보존 상태	주말 농장으로 훼손	시설 침입 정도	주말 농장으로 경작지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말 농장 경작지로 평탄화 진인로 사유지 경유 		
종합 평가	하		

(29) 오전리 5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두리봉 정상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능선 말단부의 작은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계곡은 그리 크지 않으나 비교적 급경사 산사면에 입지해 있다. 도요지는 현재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변은 밭 경작 흔적이 남아있다. 도요지의 표고는 145m로 경안천의 지류인 뒷말천 중류지역에 입지한다.

도요지의 북측을 흐르는 뒷말천과 40m 거리로 접해 있다. 하천의 수량은 풍부하다. 이 도요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위치한다. 묘지의 입지로 인해 경관 훼손이 심하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 상태로 되어 있고 소유 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리 291-2번 외 3필지이다. 도요지의 바로 북측에는 식당 상가가 위치하고 있다. 인접한 남한산성로는 포장되어 있고 하천의 남쪽에 접해있다. 하천의 폭이 넓고 수량이 풍부하다.

도요지는 이미 평탄화 작업 후 묘지가 들어서 있으며, 지번 내에는 상업시설의 건물이 일부 중복되어 훼손된 상태이다. 주변의 밭 경작지도 경작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 안내 및 해설 등의 보존 관리 시설, 보존경계유역 표시 등은 설비되어 있지 않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경관은 산 능선과 계곡이 연결되는 말단부에 입지하고 있어 경관은 남아있지만 도요지 정 중앙에 묘지가 위치하고 있어 도요지의 훼손이 심하게 나타나며 경관도 훼손된 상태이다. 선행조사 결과가 ‘하’로 판명하고 있으며,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매우 떨어진다.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하’로 평가하였다.

오전리 5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오전리 5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오전리 291-2번 외 3필지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하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지번 오류/ 현재 지번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리 291-2

= 조사주제 =



위치



도요지 원경(묘지)



도요지 근경(묘지)



주변 시설(경작지)



주변 시설(음식점)

오전리 5호 조사표

해발고도	145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능선 말단부 동~서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40m 북측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묘지	도요지 진입로 유무	상가 마당 경유
입지 보존 상태	훼손	시설 침입 정도	불량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지 중앙에 묘지 입지 상가 부속건물 침입 		
종합 평가	하		

(30) 우산리 2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천진암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지형은 천진암로를 따라 흐르는 소하천의 상류부에 해당한다. 천진암 진입로가 포장되어 있어 지형의 전체 훠순도가 아주 심하다. 도요지의 표고는 220m이다. 북측 계곡에 좁고 깊은 계곡부가 존재하며, 계류의 수량은 풍부한 편이다. 이 도요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위치한다. 자연 경관 보존 상태는 매우 불량하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의 지정이 해제된 상태이며 소유 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천진암 427 이다. 도요지의 중앙부가 도로 개설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미 도로로 경관이 훼손된 상태이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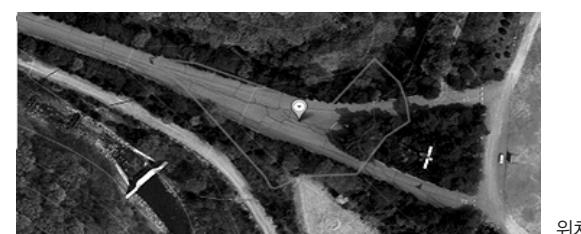
자연 경관은 산 능선과 계곡이 연결되는 경관은 남아있지만 도요지 정 중앙에 도로가 동서로 횡단하고 있어 도요지의 훼손이 심하게 나타난다. 종합의견으로 ‘하’로 평가하였다.

우산리 2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면 우산리 2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천지암 427

지정 협회 해제

수유 구분 – 기타 발굴조사 후 해제



위치

1. 광주 조선백자 도요자| 기초조사



진입로(천진암탐방로)



도요지 근경



주변 시설(천지암 공사 중)



주변 시설(천지암 안내판)

우산리 2호 조사표

해발고도	220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도로로 훠순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5m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도로	도요지 진입로 유무	천진암 도로
입지 보존 상태	훼손	시설 침입 정도	도로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천진암 진입 도로 개설로 훠순		
종합 평가	하		

(31) 우산리 3호 도요지의 경관 틀섬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천진암 부지 내에 위치하며, 이곳 지형은 천진암로를 따라 흐르는 소하천의 상류부에 해당한다. 천진암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북측에 해당하는 이 지점은 매우 급경사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도요지의 표고는 210m이다. 북측 좁은 계곡의 하천 유량은 풍부한 편이다. 이 도요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위치한다. 자연 경관 보존 상태는 불량하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의 지정이 해제된 상태이며 소유 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천진암 428이다. 도요지에는 경작을 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도요지 내부로 진입하는 소도로가 없다. 임야 형태로 방치되어 있는 수준이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경관은 산 능선과 계곡이 연결되는 경관은 남아있지만 종합의견으로 ‘하’로 평가하였다.

우산리 3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우산리 3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천진암 428

지정 현황 해제 **선행 조사 결과** –

소유 구분 – **기타** 발굴조사 후 해제



위치



진입로(천진암 탐방로)



진입로(동측)



도요지(서측)



도요지(동측)



주변시설(도로가)

우산리 3호 조사표

해발고도	210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급경사 산사면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5m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임야, 경작흔적	도요지 진입로 유무	천진암 진입로
입지 보존 상태	포장도로 인접	시설 침입 정도	무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개설로 일부 훼손 · 경작흔적 		
종합 평가	하		

(32) 우산리 4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우산리의 371m 고지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도요지 주변으로는 두 개의 소하천이 합류하고 있다. 농경지 개석에 의해 비교적 완만한 경사의 평탄지형을 나타내 보인다. 도요지의 표층은 밭 경작지로 구성된다. 도요지의 표고는 165m이다.

도요지의 5m 남측에 소하천이 접해 있다. 하천의 수량은 풍부하다. 이 도요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위치한다. 경작지가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어 본래의 능선과 연결이 단절되어 있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 상태로 되어 있고 소유 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우산리 370전 외 2필지이다. 밭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다. 도요지와 접한 포장도로인 천진암가 남쪽에 위치한다. 도로 남쪽에는 민가와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다. 천진암로를 건너 우산천이 흐르고 있다.

도요지 내부에는 밭을 경작 중인 상태로 채소 작물 위주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밭 경작에 위한 평탄작업이 이루어져 있다. 도로가에서 도요지를 바라보면 산사면 하단에 터가 입지하게 되어 경관 상으로 양호한 편이다.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 안내 및 해설 등의 보존 관리 시설, 보존경계유역 표시 등은 설비되어 있지 않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경관은 산 능선과 계곡이 연결되는 말단부에 입지하고 있어 경관은 남아있

다. 인접한 도로로 접근성도 양호하며, 도로를 건너 취락이 위치하고 있어 경작지 를 제외한 인문적 시설에 의한 훼손은 적다. 선행조사 결과가 ‘중’으로 판명하고 있으며,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양호한 편이다. 이상 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중’으로 평가하였다.

우산리 4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우산리 4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370전 외 2필지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중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위치



진입로(도로 인접)



도요지



도요(동측)



주변시설(경작지)

우산리 4호 조사표

해발고도	165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산사면 하안단구 상부 남~북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5m, 우산천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지와 나대지	도요지 진입로 유무	도로인접 천진암로
입지 보존 상태	도요지와 하천 사이에 도로로 차단	시설 침입 정도	보통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마터 부분 경작지 이용 중 · 동측은 임야지 		
종합 평가			중

(33) 우산리 9호(북)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남쪽 산 정상에서 발원한 우산천과 만나는 산사면 상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 지역에는 주택지가 조성되어 있다. 표고 115m의 비교적 급경사지인 이 곳에는 일부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가의 주차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표 층은 주차장 운영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경작지와 주차장 사이에 절토에 의한 심한 단차가 나타난다. 도요지의 표층은 밭 경작지이다.

도요지의 100m 북측에 우산천이 흐르고 있으며, 그 동측으로는 우산천으로 합류해 들어오는 계류가 존재하고 있다. 이 도요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 역 외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이 주택, 상가, 주차장 등으로 혼재되어 있어 보 존 상태가 불량하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 상태로 되어 있고 소유 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 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우산리 272-2이다. 밭 경작지와 최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주차장로 이용하고 있다. 도요지와 접한 포장도로인 배내미길이 천진암로아 만난다. 주변의 대부분이 주택지화 되어 있어 주택과 상가, 경작지가 혼재하는 상 태를 보이고 있다.

도요지 내부에는 밭 경작지는 채소 작물 위주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차장은 나대지 형태로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사적비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데 훼손되어 찾을 수 없다. 도요지에 대한 안내 및 해설 등의 보존 관리 시설, 보

존경계유역 표시 등은 설비되어 있지 않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경관은 산 능선과 계곡이 연결되는 말단부에 입지하고 있지만 주택지와 상가가 혼재되어 자연적 경관은 남아있지 않다. 인접한 도로로 접근성도 양호하지만 인문적 시설에 둘러싸여 있다. 선행조사 결과가 '상'으로 판명하고 있어,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훼손상태가 매우 심하여 종합의견으로 '하'으로 평가하였다.

우산리 9호(북)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우산리 9호(북) 소재지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272-2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상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위치



진입로



도요지 근경



도요지 근경



주변 시설

우산리 9호(북) 조사표

해발고도	115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산사면 하안단구 상부 남~북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100m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지, 주차장	도요지 진입로 유무	매내미길
입지 보존 상태	단차있는 훼손	시설 침입 정도	일부 경작, 일부 주차장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도요지 인접 상가의 주차장으로 이용 중일부 경작지 상태경작지와 주차장 사이에 절초에 의한 큰 단차로 훼손		
종합 평가	하		

우산리 9호(북) 도요지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도요지의 남측의 관산(559.5m) 정상에서 능선을 타고 북쪽으로 뻗어내려와 우산천과 만나는 하단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도요지 인근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 표고는 125m로 절토에 의해 평탄화 되어 있다. 도요지는 주택의 마당과 평탄하게 절개되어 있어 유구의 훼손이 심하다.

도요지의 100m 북측에 우산천이 흐르고 있으며 서측에 50m 지점에 우산천으로 합류해 들어오는 계류가 위치한다. 이 도요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위치하며, 주택의 입지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보존 상태는 매우 불량하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 상태로 되어 있고 소유 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우산리 262-1이다. 주택 뒷마당에 확장으로 도요지터는 심하게 훼손되었다.

절토 당시 도요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다른 곳에 버려졌다고 주민이 전술하고 있다. 사적비, 안내 및 해설 등 도요지에 관한 일절의 보존 관리 시설, 보존 경계유역 표시 등은 설비되어 있지 않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경관은 산 능선과 계곡이 연결되는 말단부에 입지하고 있지만 주택지와 뒷마

당확장의 절토로 능선의 자연적 경관은 남아있지 않다. 인접한 도로로 접근성도 양호하지만 인문적 시설의 침입으로 경관이 남아있지 않다. 선행조사 결과가 ‘하’로 판명하고 있다. 훼손상태가 매우 심하여 종합의견으로 ‘하’으로 평가하였다.

우산리 9호(남)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우산리 9호(남) **소재지**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262-1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하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위치



진입로



도요지 근경



주변 시설



주변 시설

우산리 9호(남) 조사표

해발고도	125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능선 형태 훼손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진입로 하천까지 50m 능선으로 계곡류 확인 불가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가옥의 마당	도요지 진입로 유무	매내마길
입지 보존 상태	매우 불량	시설 침입 정도	매우 불량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지형을 절토하여 평坦하게 되었음 가옥 뒷마당으로 이용 보존상태가 매우 나쁨
종합 평가	하		

(35) 우산리 14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우산리의 408m 고지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이 마을과 만나는 구릉지 하부면에 위치하고 있다. 도요지 주변은 주택지이며, 도요지로 연결되는 능선은 그대로 남아있다. 표층은 밭 경작지로 사용된다. 도요지 표고는 125~145m로 도요지 내부의 경사가 아주 심해 해발고도의 차가 크다.

도요지 5m 동측에 소하천이 접해 있으나 하천의 수량 거의 없다. 북쪽으로는 우산천이 흐른다. 이 도요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부에 위치한다. 도요지 주변부를 경작지와 주택지가 에워싸고 있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 상태로 되어 있고 소유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우산리 370전 외 2필지이다. 밭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다. 도요지와 접한 포장도로인 천진암로가 남쪽에 위치한다. 도로 남쪽에는 민가와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다. 천진암로를 건너 우산천이 흐르고 있다.

도요지 내부에는 밭을 경작 중인 상태로 채소 작물 위주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밭 경작에 위한 평탄작업이 이루어져 있다. 도로가에서 도요지를 바라보면 산다면 하단에 터가 입지하게 되어 경관 상으로 양호한 편이다.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 안내 및 해설 등의 보존 관리 시설, 보존경계유역 표시 등은 설비되어 있지 않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경관은 산 능선과 계곡이 연결되는 말단부에 입지하고 있어 경관은 남아있다. 인접한 도로로 접근성도 양호하며, 도로를 건너 취락이 위치하고 있어 경작지를 제외한 인문적 시설에 의한 훼손은 적다. 선행조사 결과가 ‘중’으로 판명하고 있으며, 도요지 내부의 유물의 가치나 유구 흔적의 중요도가 양호한 편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으로 ‘중’으로 평가하였다.

우산리 14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우산리 14호 **소재지**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71-2전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중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위치



도요지 근경



도요지 근경



주변 시설(주택)



주변시설 (묘지)

우산리 14호 조사표

해발고도	125~145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구릉지 하부면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100m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지	도요지 진입로 유무	주변 철망고하 경작지로 접근이 양호하지 않음
입지 보존 상태	가옥과 경작지로 둘러싸임, 산능선 연결	시설 침입 정도	경작지 비교적 양호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깻잎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가 후면의 구릉지 완사면에 위치 현장에 다수의 도편이 산재해 있음 		
종합 평가	중		

(36) 우산리 17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서쪽의 383고지에서 동쪽을 향해 뻗은 능선이 도로지꼴과 만나는 사면 하단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도요지의 표고는 약 180m이다. 도요지가 사면을 따라 넓게 분포해 약간의 표고 차이가 나타난다.

도요지 50m 동측에 우산천과 합류하는 비교적 유량이 풍부한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다. 도요지 표고가 마을 위치보다 높다.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는 임야, 경작지로 구성된다. 마을 쪽에서 바라보는 자연경관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 지정은 미지정 상태로 소유자는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우산리 도로지꼴 386-12번지 일원이다. 토지이용 상태는 임야와 밭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다. 도요지 동측에 도로지꼴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가 소하천을 따라 포장되어 있으며, 이 도로에서 시멘트 포장도로가 도요지 입구까지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한 접근이 용이하다.

도요지 내부에는 밭을 경작한 흔적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으나 최근은 휴경 상태이다.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 안내 및 해설 등의 보존 관리 시설, 보존경계유역 표시 등은 설비되어 있지 않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경관은 산사면 끝자락에 위치하며 마을과 떨어져 있어 전반적 경관이 양호한 편이다. 인접한 도로로 접근성도 양호하며, 도요지의 표고가 비교적 높아 경작지 흔적을 제외한 인문적 시설에 의한 훼손은 적다. 선행조사 결과가 없어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지만 종합의견으로 ‘중’으로 평가하였다.

우산리 17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우산리 17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도로지꼴 386-12번지 일원
지정 현황 미지정 **선행 조사 결과** -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



위치



진입로(사유지)



도요지 근경(서측)



도요지(중앙)



도요지(동측)



도요지(동측)

= 관광객 및 도로로 인한 환경 오염 =

(37) 유사리 5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유사리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능선의 서쪽과 남쪽에는 두개의 하천이 합류한다. 도요지의 서쪽을 흐르는 하천은 곤지암천의 최상류인 건업리에서 남류하고 있으며, 남쪽의 지류는 유사리의 동쪽에서 서류하고 있다. 도요지의 표고는 135m 정도이다.

도요지의 남쪽을 흐르는 하천은 200m 떨어져 있으나 도요지의 서측으로 작은 계곡부가 형성되어 있어 물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연경관 보존 상태는 도요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 매우 불량하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고 소유 구분은 사유지이다.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유사리 산65-2임 외 1필지이다. 토지이용 상태는 임야와 밭 경작지, 비포장 도로, 묘지로 이용하고 있다. 도요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비포장도로가 위쪽 묘지로 통한다. 하단부는 밭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 비포장도로는 밭 경작지를 지나 도요지 입구까지 개설되어 있으며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만난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한 접근이 용이하다.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 안내 및 해설 등의 보존 관리 시설, 보존경계유역 표시 등은 설비되어 있지 않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경관은 산사면 끝자락에 위치하지만 마을과 떨어져 있지만 도로의 개설과 경작지로 크게 훼손되어 있다. 선행조사 결과는 ‘중’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종합의견으로 ‘하’로 평가하였다.

유사리 5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유사리 5호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유사리 산65-2임 외 1필지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중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65-6

우산리 17호 조사표

해발고도	180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산사면 계곡부 남동~북서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20m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임야, 경작지 흔적	도요지 진입로 유무	입구까지 포장도로
입지 보존 상태	양호	시설 침입 정도	양호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작 흔적은 남아있으나 심하지 않음. 도요지의 보존 가능성이 높음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음 		
종합 평가	중		



위치



진입로(하단)



도요지(도로 개설)



도요지 표시



주변 시설(상단 묘지)

유사리 5호 조사표

해발고도	135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산사면 남단 남서~북동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곤지암 지류까지 100m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말뚝)
현 토지이용 상태	새 도로 관통으로 훼손	도요지 진입로 유무	입구까지 포장도로
입지 보존 상태	도로 관통으로 훼손	시설 침입 정도	양호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적지 북측 동측에 묘지 입지 새로운 도로 개설로 1m 이상의 단차있는 도로 개설로 훼손 가능성 높음 		
종합 평가	하		

(38) 학동리 10호 도요지의 경관 특성

① 자연 경관 특성

본 도요지는 학동리의 서당골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능선 끝자락이 선동리 마을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도요지의 표고는 90m 정도로 마을과 이어지는 부분에서 완경사를 이룬다. 표층은 밭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넓게 개석된 곳도 보인다.

곤지암천의 작은 지류가 도요지의 남쪽 300여m 지점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주변부에는 유량이 풍부한 계곡은 없다. 물 공급이 불리한 지형이다.

② 인문 경관 특성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요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302-6전 외 1필지이다. 현재 도요지 명이 학동리 10호로 학동리 명을 따르고 있으나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선동리 소재지로 변경되었다. 토지이용 상태는 지번 내 모두 밭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다. 잘 정리된 경작지로 주기적 경작이 행해지고 있다.

도요지의 동측, 남측은 마을 주택지와 경계를 이루고 이를 주택으로 인해 별도의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유일하게 도요지의 북쪽 민가 입구에서 진입이 가능하다. 외부 도로에서 마을 골목길을 따라 진입하여야 한다. 도요지에 대한 사적비, 안내 및 해설 등의 보존 관리 시설, 보존경계유역 표시 등은 설비되어 있지 않다.

③ 입지 보존 상태와 종합 의견

자연 경관은 산사면 끝자락에 위치하지만 마을과 인접하고 주기적인 경작으로 크게 훼손되어 있다. 선행조사 결과는 ‘하’으로 평가하고 있고, 종합의견도 ‘하’로 평가하였다.

학동리 10호 위치 및 경관사진

도요지명	학동리 10호	소재지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302-6전 외1필지
지정 현황	지정	선행 조사 결과	하
소유 구분	사유지	기타	행정구역변경으로 현재 선동리에 위치함



위치



진입로



도요지 근경



주변 시설 남측 공장



주변 시설 북측 묘지

학동리 10호 조사표

해발고도	90m	사적비 유무	무
도요지 지형 특성	구릉성산지 완사면 남~북 경사	안내판(해설판) 유무	무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5m 서쪽 인접 계곡류	보존경계구역시설 유무	무
현 토지이용 상태	경작지	도요지 진입로 유무	유 북동쪽 가옥 옆
입지 보존 상태	능선 경사 유지	시설 침입 정도	불량
경관 보존 상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경작지 활용 · 남측에서의 완만한 경사 경관은 매우 좋음 · 서측을 제외한 나머지 경계에 가옥, 공장 등 인접 · 계곡류의 발달이 미약, 학동천까지는 100m 		
종합 평가	하		

5.

평가 의견 및 보존, 관리 방향 제시

1) 경기도 광주시 도요지의 입지 특성

(1) 지질 특성

경기도 광주시의 지질은 주로 흑운모호상편마암과 석영장석질편마암을 비롯해 편암, 규암 등의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기반암은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토산이 잘 발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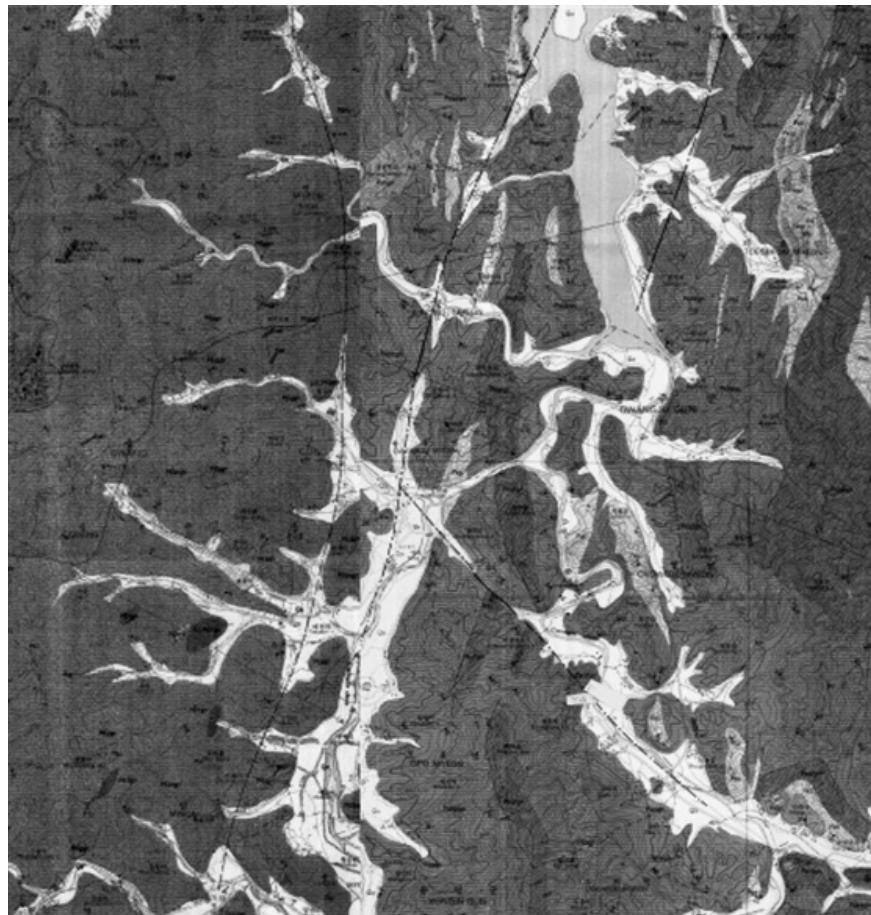
이러한 지질 특성은 이 지역이 화강암 지역보다 토심이 깊어 지하수가 풍부, 그 결과 계류의 유량이 많아 유수의 흐름이 양호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변성암 풍화토는 점토질이 풍부하며, 이 역시 백자의 원료가 되는 토질 성분을 쉽게 구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일원을 중심으로 백토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지형 특성

광주시의 지형은 해발 60~500m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 산세는 대체로 정상부가 둥근 완경사 산사면을 이루고 있다. 작은 계곡에 의한 두부침식으로 인해 산릉은 심한 개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 한복판을 흐르는 경안천 주변에는 비교적 평탄한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하천 상부면에도 하천 주변에 작게나마 하안 단구면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변성암인 기반암의 특성으로 인해 하상에는 모래 대신 각력들이 퇴적되어 있다.

(3) 수문 특성

광주시 수계는 크게 동북부 경계 구역을 따라 서류하고 있는 남한강과 팔당호를 향해 북류해 흐르는 경안천으로 대분된다. 경안천의 지류로는 곤지암천을 비롯해 번천, 우산천, 목현천 등이 있으나, 곤지암천과 목현천을 경계로 한 북측에 광주 도요지가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경기도 광주시 관내 지지도

2) 경기도 광주시 도요지의 경관 평가

광주시 도요지 최종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점이 고려되었다. 우선 본 조사에서 평가한 자연과 인문경관의 평가가 세계유산등재의 평가 기준에 걸맞은 도요지 경관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도요지의 구성요소 중 최소한 가마터, 공방지, 폐기장의 존재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지만 그보다도 이들의 요소를 포함한 공간을 아우르는 주변의 경관 측면, 즉 산 능선과 가마터와의 위치 관계, 하천과의 입지관계, 그리고 이들의 경관을 훼손시키는 각종 인공시설의 침입 정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연경관 요소가 충족되면서 수려하고 인문경관의 훼손이 적으면 적을수록 훌륭한 도요지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보존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의 범위가 중요하다. 2016년 광주 조선백자 요지 1차 종합정비계획의 선행조사에 따르면, 본 조사연구의 38개소 도요지 중 29개 도요지의 보호구역 범위를 ‘적정’, ‘부족’, ‘과다’ 등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그 결과 ‘부족’으로 판단한 도요지는 5개소, 나머지 17개소 도요지는 ‘적정’ 또는 ‘과다’, 유적 미확인 도요지는 7개소 등으로 보고하였다.

등급별 보호구역 구분

구분	상	중	하	미확인
보호 구역 범위	적정	번천리4호 우산리9호(북) 도마리7호 목현동1호	-	학동리 10호
	부족	신대리12, 13호 선동리2호 우산리14호	번천리8호 관음리16호	-
	과다	-	우산리4호 우산리9호(남) 신대리8, 28호 곤지암리3호 무갑리14, 21호 유사리5호 도마리1호 송정동4호	상림리10, 12호 열미리5호(북) 열미리5호(남) 곤지암리6호
유적 미확인	지형변화 및 인위적 훼손	-	-	오전리3호 오전리5호
	지정오류	-	번천리21호	-
				번천리5호

(출처 : 광주 조선백자 요지 1차 종합정비계획, 2016.)

그러나 경관 측면에서 볼 때 도요지의 보호구역은 경관을 유지하는데 넓은 범위이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요지의 유구상태가 ‘상’ 또는 ‘중’으로 판단된 도요지 중 ‘적정’ 또는 ‘과다’로 판단된 도요지는 12개소이며, ‘부족’으로 판단된 도요지가 5개소이다. 과다한 보호구역범위를 갖는 도요지의 보호구역 재설정시 경관 관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보호구역의 범위와 별도로 현재 조사된 경관분석을 통해 기존조사의 도요지 등급과 본조사의 자연 · 인문 경관 상태를 비교 ·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자연·인문 경관 조사 결과		
		상	중	하
기존 조사	상	도마리 7호 번천리 4호	목현동 1호	신대리 12호 신대리 13호 선동리 2호 우산리 9호(북)
	중		관음리 16호 무갑리 14호 무갑리 21호 번천리 8호 송정동 4호 우산리 4호 우산리 14호	도마리 1호 유사리 5호
	하		상림리 10호 열미리 5호(북)	곤지암리 3호 곤지암리 6호 상림리 12호 신대리 8호 신대리 28호 열미리 5호(남) 오전리 3호 오전리 5호 우산리 9호(남) 희동리 10호
	미 평 가	송정동 5호 송정동 6호	번천리 9호 우산리 17호	건업리 2호 관음리 8호 분원리 1호 신대리 18호 우산리 2호 우산리 3호

기존 선행조사 결과 도요지의 평가와 경관 평가가 모두 ‘상’으로 판단한 도요지는 도마리 7호와 번천리 4호 2개소이다. 또한 선행조사 결과가 없는 송정동 5호와 송정동 6호도 상으로 판단하였다. 선행조사에서 상으로 판단한 목현동 1호, 신대리 12호, 신대리 13호, 선동리 2호, 우산리 9호(북) 도요지는 경관조사에서는 중 또는 하로 판단하였다. 이들 5개소는 유구의 상태나 중요도가 높지만 경관 상으로 매우 훼손된 상태이거나 훼손이 진행되는 곳이다.

기존조사에서 중으로 판단한 도요지들은 대부분 ‘중’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마리 1호와 유사리 5호는 비닐하우스 경작지 등 훼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하에 대한 제언은 생략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의 6개 등재 조건은 각기 서로 다른 등재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등재기준 i)~vi)에서 보는 관점에는 경관의 아름다움, 또는 경관유형, 공간배치,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 등 인문적 요소가 자연과 어우러진

경관상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장조사를 통한 경관의 가치는 대부분 매우 불량한 상태이거나 훼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3) 보존 관리 측면의 방향 제시

광주시 도요지 경관 평가를 바탕으로 보존관리의 방안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도요지에 대한 ‘중’ 이하의 평가는 경관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첫째, 이제까지 이루어진 유적에 대한 선행 조사 내용은 주로 유물의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은 유물의 가치보다는 도요지의 유적에 대한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요지의 내부 조사는 세계유산의 잠정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도요지 내부의 유구의 구성요소나 그 가치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판단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조선백자 도요지의 소유는 사유지로 되어있다. 이는 보존관리를 위해 매우 불리한 환경으로, 1차 조사 이후에도 많은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우선시되어야한다.

셋째, 이러한 소유지 매입의 공간적 범위는 가마터 중심이 아닌 주변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적지를 바라보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도요지의 가마터와 공방지, 그리고 폐기장터 등 도요지를 구성하는 최소의 요소들이 위치하고, 그 주변의 배경으로 가마터의 경사나 입지를 반영하는 산능선이나 하천과의 관계, 나아가 도요지를 구성하는 취락까지를 포함한다면, 세계유산의 입지로서의 대부분의 경관 요소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등재 가치가 있는 도요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이에 필요한 사적비, 해설판, 보호방책 등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단지 조사가 끝나고 복토를 하는 정도로는 도요지의 훼손을 막을 수 없다.

1) 국내 유산

(1) 국내 유사 유산 대상의 선정 기준

도자기가 생산되었던 유적은 국내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광주 조선백자요지는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유산들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조선왕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기를 생산했던 중앙 관료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상대적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이러한 관점에서 타 시기와의 중심 도자 생산지로서의 비교가 가능하다. 현재, 알려져 있는 시대별 관료 성격의 생산지로는 고려시대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일대의 고려시대 청자 가마군과 광주의 조선백자요지가 각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진군 대구면 일대는 고려시대 청자생산의 상당수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는 유적과 상품 유물의 발굴 등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조선시대 중앙 관료와 지방 관료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지방 관료의 경우, 대부분 인근 지역의 관리 및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료에 비해 지역별로 적은 수로 소규모로 제작되고, 상당 경 우 유물의 품질 역시 조질(粗質)로 확인된다.

(2) 강진 고려청자요지

강진 고려청자요지는 강진군 대구면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고려시대 문화를 대표하는 고려청자의 생산지를 지칭한다. 대구면 고려청자 도요지는 1963년 사적 제 68호로 지정되었으며,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5백여 년간 집단적으로 청자를 생산했던 곳으로 9개 마을에 180여 개소의 가마터가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 약 18만여 평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고려시대 집단적으로 청자를 생산했던 곳으로 강진과 부안이 가장 대표적이며,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500여 기의 고려시대 가마터 중 70% 이상이 강진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사당리(沙堂里)는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청자의 80% 이상이 생산되었을 정도로 최상급의 청자가 생산되었던 가마가 존재했

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강진은 다른 지방에 비해 태토, 연료, 해운, 기후 등 여건이 적합하여 우리나라 청자 문화를 주도해 왔으나, 고려말기에 청자 기법이 쇠퇴한 후 600여 년 동안 전승되지 못한 채 단절되어 왔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의 고려청자는 백자에 밀려 근근이 명맥만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이어졌고, 일제강점기에는 자본력을 앞세운 일본인의 주도로 생산돼 고유의 전통을 잃어갔다.

강진 청자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1913년 강진경찰서 대구면 주재소 나카시마 요시시게에 의해 당전마을 부근에서 청자편이 발견되면서부터이다. 이 사실이 학계에 최초 보고되었으며, 이듬해 이왕직박물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근대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대구면과 칠량면 일대에서 무려 100여 개의 고려청자 가마터가 확인되었고, ‘조선보물 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따라 강진 일대가 고적 제107호로 지정(1939년 10월 18일)됐다.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를 통해 국가사적 제68호로 재지정(1963년 1월 21일) 하였다.

1960년대 이후 국내 학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실시됐다. 1992년 해강도자미술관에 의해 이루어진 정밀 지표조사를 통해, 대구면 용운리 75개소, 계율리 59개소, 사당리 43개소, 수동리 6개소와 칠량면 삼흥리 5개소 까지 총 188개소의 청자요지가 확인됐다. 이 중에서 계율리 25호(1928년), 박물관 주변 사당리 일대(1964~1965년), 사당리 41호 요지(1973~1977년), 용운리 9호·10호 요지(1980~1982년), 삼흥리 1호·3호·4호 요지(2001~2002년), 사당리 43호 요지(2012년), 용운리 63호 요지(2012년)는 발굴조사가 실시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 강진 일대의 가마 유적을 통해 고려시대 전체의 가마구조 및 유물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구축됐다.

강진고려청자요지는 199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포함됐으며, 2020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전경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43호 발굴조사 현장, 가마 유구

2) 국외 유산 : 일본

(1) 국외 유사 유산 대상의 선정 기준

국외에 존재하는 유사 유산에 대한 선정 기준은 조선시대 도자문화 및 기술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동아시아 일대의 도자문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사가현 일대는 16세기 이후 일본 도자생산의 중심지로 인근의 여러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자문화가 형성되었던 지역이다. 일본 최초의 자기를 생산했다고 알려진 아리타 일대 뿐 아니라, 도자기 무역항으로 명성을 떨쳤던 이마리(伊万里), 가라초(唐津), 다케오(武雄) 등 일본을 대표하는 도자 생산유적들이 남아있다. 특히, 아리타의 경우, 일본을 대표하는 도자문화의 중심지로 지금도 도자마을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 세계유산 등재를 시도하기도 했었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일본 도자기 해외답사에서 다음과 지역을 비교 관찰 대상지로 하였다. 먼저 이동의 편의를 위해 이마리시를 답사하고 그 다음으로 가라초시, 아리다촌, 다케오시를 방문하고 광주시 도요지의 보존과 활용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일본 도자기 해외답사 지역과 비교 관찰사항

일본 도자기 해외답사에서 4개 도시 지역에서 보아야할 대상과 관점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비교 관찰하였다.

이마리시에서는 이마리 시내의 이마리 역에서 강가의 상생교까지에서 도자기의 수출항 지역의 경관과 보존과 도자기 재료의 도시시설물 활용, 그리고 이곳에 입지했던 도가기 유통 조직의 건물 경관과 내부 구조에 대한 보존 상태이다. 이마리시에서 또 하나의 관점은 시내의 동쪽에 위치한 나베시마 도자기 공원에 들러보았다. 이 지역은 광주시와 같이 관요가 입지했던 지역이다. 도자기 관요마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활용되는 촌락경관을 둘러보고 도자기공들의 도자기 파편의 활용상태나 영업경관들을 살펴보았다.

가라초시에서는 가마터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유지인 관계로 이 가마터의 보존 상태와 이르 이용한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리다시에서는 주변에 입지한 백자기광산(채석광)을 들러보고 그 보존 상태와 현재 활용실태를 파악하였다. 한편 시내에서는 조선도자기공의 신사를 들러 도자기공의 예우나 관련 시설의 보존 상태를 파악하고, 시내의 도자기 상점가를 관찰하였다. 시내에 위치한 큐수도자기 문화관에 들러 도자기 관련 자료와 유물의

보존실태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리다시와 접해있는 다케오시의 도자기 유적을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도요지에 대한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에 관한 경관보존의 실태를 확인하였다.

일본 큐슈 도자기 답사 대상지와 관찰 관점

지역		관찰대상지	비교 분석 관점
이마리시	이마리항	이마리역~상생교	도자기의 수출항 지역의 경관과 보존 도자기파편의 활용 유통관련 상점의 보존
	나베시마공원	나베시마 도자기마을	관요의 입지, 도자기 마을의 보존 및 활용
가라초시	가마터		개인 소유 가마터의 보존과 활용
아리다시	백자광	나베시마한요공원	도요지 공간요소의 입지관계
	시내	시가지와 도잔신사	도자기 마을의 관광활용, 자기공의 신사와 묘
다케오시	하다케노하라 도요지		가마터와 주변 자연인문 경관의 보존 사례

(3) 사가현 아리타(有田)

① 개요

일본의 기타큐슈(北九州)의 사가현(佐賀縣)의 아리타초(有田町)는 2006년 아리타초와 니시아리타초(西有田町)가 합병해서 탄생한 지방자치체의 하나로, 2015년 기준 인구 20,854명, 세대수 7,729세대, 면적 65.85km²로 1,727개의 시초손(市町村) 중 소형에 해당한다.

아리타 도자(有田燒)는 일본을 대표하는 도자기 단지로서, 17세기 중엽부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통해 전 유럽과 동남아시아로 수출되어 일본 도자기를 알리고, 지금의 일본을 세계 제일의 도자기 생산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근간이 됐다. 아리타산 도자기란, 사가현 아리타쵸와 그 주변지역에서 제조되는 도자기를 의미한다. 메이지시대 이후에 널리 이용되었고, 에도시대의 도자는 이마리소 혹은 히젠소로 불린다. 17세기 초, 조선인 도공에 의해서 아리타쵸의 이즈미야마로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도석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자가 구워진 산지로서 의미를 갖으며, 이후 400여 년간 식기나 미술 공예품의 생산을 지속하며, 일본의 대표적인 도자기마을로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아리타 도자기는 첫 생산 이후 50년이 지난 1660년부터 유럽으로 수출돼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섬세한 문양, 화려한 색감, 날렵하면서도 견고한 모양새가 서구인들을 압도한 것이다. 아리타 도자기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남색과 적



사가현 아리타쵸 전경



사가현 이마리 전경

색 금색 등이 혼용된 고이마리(古伊萬里), 부드러운 초벌구이에 붉은색 그림을 선명하게 넣은 카키에몬(柿右衛門), 녹색과 적색, 황색 등으로 채색된 나베시마(鍋島) 양식 등이 있다. 현재, 아리타에 현존하는 가마터는 1백60여개, 도자기 상점은 3백여 개에 이르며, 13, 14대에 걸쳐 도자기 가업을 잇고 장인들이 살고 있다.

아리타 도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조선의 도공 이삼평이다.¹⁵⁾ 일본 자기 생산에 있어 중요한 그의 업적을 기려 일본에서는 그에게 ‘도조’라는 칭호로 칭송했다. 오늘날 일본의 사가 현 아리타 지역에서는 도조(陶祖) 이삼평을 초기 아리타, 즉 일본 최초의 백자 창시자로서 신격화하여 그를 모시는 도산신사(陶山神社)를 기리고 있다.¹⁶⁾ 현재, 아리타에는 16~19세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65개소 이상의 가마 유적이 확인됐다.¹⁷⁾

15) 이삼평에 대한 문서 기록을 보면, 어디에도 ‘삼평’이라는 인물이 이씨 성을 가졌다는 내용은 없다. 이는 당시 이삼평이 도공 집단의 수령이었을 것이다. 내지는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석광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식의 해석으로 이씨 성을 붙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16) 임진왜란 당시 가토기요마사(加藤清正)가 밀 그대로 이삼평을 여주 부근에서 납치했다는 설이나 그가 길 안내를 차저했다는 이야기는 가능성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역사적 사실들을 따져보면 무리였을 것이다. 삼평이라는 인물 즉, 초대 가나가에삼페이(金ヶ江三兵衛)가 강와(元和) 2년 즉, 1616년에 아리타 이즈미야마(泉山)에서 양질의 자석광(磁石鑛)을 발견하여 일족 18명을 이끌고 카라초를 굽던 곳으로부터 아리타의 카미시로가와(上白川)에 옮겨 개요(開窯, ‘텐구타니 가마(天狗谷窯)’)했다는 기록이 발견됨에 따라 그가 자석광을 발견하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가 아리타의 창시자라는 것과 그 시기가 1616년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최초의 백자 소성 시기가 1616년이라는 정설이 무너지고, ‘1605년 설’ ‘1610년경 설’이 떠오르고 있으나 이는 텐구타니 가마 발굴 조사 결과에 따른 수정설이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1607년 한·일간 국교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6천여 명의 조선인이 본국으로 송환되었음에도 조선 도공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0년 이상 간직했던 희망을 버리고 타향에서 일생을 바쳐야 함을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따라서 1608년경부터는 카라초와 함께 백자를 굽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 아리타정역사민속자료관(<http://www.town.arita.lg.jp/main/221.html>)

아리타 도조신사 및 마을 전경
(2017년 10월, 직접 촬영)이즈미야마 채석장 전경
泉山磁石場(国指定史跡)

② 현재의 아리타 도자기마을과 아리타도기사

아리타는 인구 2만여 명의 작은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곳이 도자기 마을임을 짐작할 수 있는 도자기 모형들이 눈에 띈다. 아리타 마을 중심지로 난 2차선 도로를 따라 양 옆으로 도자기 공방들이 즐비해 있으며, 아리타지구의 도자기 관련 상점의 수는 모두 260개인데, 이 중 도매업이 113개(43.5%), 소매업이 147개(56.5%)로, 전체 상점 수 527개 중 49.3%를 차지하고 있다(有田町, 2011:8). 지역 내 공방은 대부분 100년 이상 지역의 전통산업으로서 혹은 가업으로 계승돼 내려온 정도로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아리타에는 초립도자기박물관(町立陶磁器博物館)이나 역사민속자료관, 소규모 민간 전시장, 체험공방, 현립규슈도자문화회관, 사가현요업기술센터 등, 도자기의 역사나 기술개발, 체험 등에 필요한 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브랜드 ‘아리타1616’ 등을 개발해 대중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현대의 ‘아리타’는 지명임과 동시에 도자기의 산지 브랜드라는 특수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리타 역시 1990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벼블경제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도자기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축소됐다. 점차 전성기인 1990년대의 7분의 1 수준으로 출하액이 급감했다. 아리타야끼의 제품 출하액과 종사자 수는(伊万里 포함), 1998년 162개 사에서 10년 뒤인 2008년에 120개 사로 감소하고, 그 후 10여 개 사가 다시 폐업의 위기에 몰리는 등, 침체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출하액도 1990년 412억 3천만 엔에서 2000년 207억 9천만 엔으로, 다시 2008년 110억 4천만 엔으로 급감했다. 아리타 지역만의 종사자 수

18) 황달기, 2013, 「일본의 전통공예품 제작기법의 역사·문화적 의미—아리타야끼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8, p.460.

에서도 1990년 4,027(이마리 지구를 포함하면 4,754)명, 2000년 2,554(전체 3,026)명, 2008년 1,935(전체 2,196)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외관상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



큐슈도자문화관 전경



'Arita 1616' 브랜드 이미지

고, 구체적인 산업통계에서도 침체상황은 확인할 수 있다.^{18]} 이러한 침체된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캐릭터의 개발 및 활용, 지역브랜드 개발 및 현대화, 일본유산 신청과 같은 다양한 자구책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의 아리타 도자기 마을은 도자기 시장, 도자미술관 등 도자기 관련 산업이 잘 발달돼 있다. 특히 매년 봄, 가을에는 120년 전통의 도자기 축제(有田陶器市)가 개최된다. 이 행사는 아리타 역에서 가미아리타 역까지 이어지는 약 4키로 미터에 걸쳐 500곳의 가게들이 참여하며, 약 100만 명의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지역축제이다. 특히, 2016년에는 아리타야끼의 400주년을 맞이하여 크고 작은 이벤트가 진행됐다.

③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 전통적건조물보존지구와 일본유산 선정

현재, 아리타 일대의 역사적 경관은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로 선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자기 가마의 유구 및 관련 상점, 인근 거리 등이 잘 남아있으며, 여전히 당시의 거리들이 지역민들의 생활중심지이자 관광지로서 잘 보존·활용되고 있다.

전통적건조물보존지구는 일본의 시정촌이 조례 등에 의하여 결정한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중 특히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을 문부과학대신이 선정한 지구이다.

전통적 건조물군은 성곽을 중심으로 발달한 조카마치(城下町), 역참을 중심으로 형성된 슈쿠바마치(宿場町), 사원이나 신사 근처에서 발달한 몬젠마치(門前町), 농촌, 어촌 등 주위 환경과 일체가 되어 역사적인 풍치를 만드는 취락을 말한다. 이 제도는 문화재인 건조물을 개별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전체(群, 군)를 보존하기 때문에 민가, 사원 등 건축물은

19) 일본유산의 경우, 문화청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2년 열린 <강진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제학술대회>에서 아리타 역사민속자료관의 노가미 타케노리가 아리타가 단독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시도했으나 경과가 좋지 않았고, 문화·역사적 관계가 깊은 요업지 간의 연계를 통해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던 내용을 통해 지역에서도 도자유적을 통한 세계유산 접근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었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대문, 담, 수로, 무덤 등 "공작물"이나 정원, 산울타리, 수목 등 "환경 물건"을 특정하여 보존 조치를 도모하는 것이다. 2009년 6월 기준, 85지구(2017년 기준 114지구)가 선정되어 있다.

또한, 아리타 일대는 사가현, 나가사키현 일대의 도요지들을 연계해 일본유산(Japan Heritage)로 선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전통적건조물보존지구가 도자생산지로서의 진정성과 원형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이라면, 일본유산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역브랜딩의 일환으로, 스토리와 지역 간 연계, 대중적 접근을 통한 문화유산의 재해석과 활용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일본유산의 경우, 단독 유산의 보존 개념이 아닌 유사 유산 간의 관계성에 근거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¹⁹⁾

헤이세이 23년(2011)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 목록

도도부현	시정촌	지구명	선정 시기	종류
홋카이도	하코다테 시	모토마치, 스에히로초	1989년	미나토마치 港町 (항구도시)
아오모리 현	히로사키 시	나카마치	1978년	부케마치 武家町 (무사 거주지)
	구로이시 시	나카마치	2005년	소카마치 商家町 (상인 거리)
이와테 현	가네가사키 정	조나이스와코지	2001년	부케마치 武家町 (무사 거주지)
아키타 현	센보쿠 시	가쿠노다테	1976년	부케마치 武家町 (무사 거주지)
후쿠시마 현	시모고 정	오우치주쿠	1981년	슈쿠바마치 宿場町 (역참)
군마 현	구니 촌	아카이와	2006년	산촌 山村, 요산마치 養蠶町 (양잠 마을)
사이타마 현	가와고에 시	가와고에	1999년	소카마치 商家町 (상인 거리)
지바 현	가토리 시	사와라	1996년	소카마치 商家町 (상인 거리)
니가타 현	사도 시	슈쿠네기	1991년	미나토마치 港町 (항구도시)
도야마 현	다카오카 시	야마초스지	2000년	소카마치 商家町 (상인 거리)
	난토 시	아이노쿠라 (고카 산)	1994년	산촌 山村
		스가누마 (고카 산)	1994년	산촌 山村
이시카와 현	가나자와 시	하가시야마히가시	2001년	자야마치 茶屋町 (찻집 거리)
		가즈에마치	2008년	자야마치 茶屋町 (찻집 거리)
	가가 시	가가하시다테	2005년	어촌 漁村
	와지마 시	구로시마지구	2009년	어촌 漁村
후쿠이 현	오바마 시	오바마니시구미	2008년	자야마치 茶屋町 (찻집 거리)
	와카사 정	구마가와주쿠	1996년	슈쿠바마치 宿場町 (역참)
야마나시 현	하야카와 정	아카사와	1993년	고추야도 講中宿 (종교도시), 산촌 山村
나가노 현	시오지리 시	나라이주쿠	1978년	슈쿠바마치 宿場町 (역참)
		기소히라사와	2006년	싯코마치 漆工町 (칠공예 마을)

도도부현	시정촌	지구명	선정 시기	종류
기후 현	도미 시	운노주쿠	1987년	슈쿠바마치 宿場町 (역참), 요산마치 養蠶町 (양잠 마을)
	나기소 정	쓰마고주쿠	1976년	슈쿠바마치 宿場町 (역참)
	하쿠바 촌	아오니	2000년	산촌 山村
미에 현	다카야마 시	산마치	1979년	쇼카마치 商家町 (상인 거리)
		시모니노마치, 오신마치	2004년	쇼카마치 商家町 (상인 거리)
	미노 시	미노마치	1999년	쇼카마치 商家町 (상인 거리)
	에나 시	이와무라쵸흔도리	1998년	쇼카마치 商家町 (상인 거리)
	시라카와 촌	하기마치 (사라카와고)	1976년	산촌 山村
시가 현	가메야마 시	세키주쿠	1984년	슈쿠바마치 宿場町 (역참)
교토 부	오쓰 시	사카모토	1997년	몬젠마치 門前町 (종교도시)
	오미하치만 시	하치만	1991년	쇼카마치 商家町 (상인 거리)
	히가시오미 시	고카소초 곤도	1998년	농촌 農村
오사카 부	교토 시	가미가모	1988년	사케마치 社家町 (종교도시)
		산네이자카	1976년	몬젠마치 門前町 (종교도시)
		기온신바시	1976년	자야마치 茶屋町 (찻집 거리)
		사가토리이모토	1979년	몬젠마치 門前町 (종교도시)
	난탄 시	미야마초 기타	1993년	산촌 山村
효고 현	이네 정	이네우라	2005년	어촌 漁村
	요사노 정	가야	2005년	세이쇼쿠마치 製織町 (제직 마을)
	돈다바야시 시	돈다바야시	1997년	자이고마치 在郷町 (상인 거리), 지나이초 寺内町 (종교도시)
나라 현	고베 시	기타노초 암마모토도리	1980년	미나토마치 港町 (항구도시)
	사사야마 시	사사야마	2004년	조카마치 城下町 (성곽도시)
	도요오카 시	이즈시	2007년	조카마치 城下町 (성곽도시)
와카야마 현	가시하라 시	이마이초	1993년	자이고마치 在郷町 (상인 거리), 지나이초 寺内町 (종교도시)
	우다 시	마쓰야마	2006년	쇼카마치 商家町 (상인 거리)
돗토리 현	유야사 정	유야사	2006년	조조마치 酿造町 (양조 마을)
시마네 현	구라요시 시	우쓰부키 다마가와	1998년	쇼카마치 商家町 (상인 거리)
오카야마 현	오다 시	오모리 긴잔	1987년	고잔초 鎌山町 (광산 마을)
		유노쓰	2004년	미나토마치 港町 (항구도시), 온센마치 溫泉町 (온천가)
오카야마 현	구라시키 시	구라시키 가한	1979년	쇼카마치 商家町 (상인 거리)
	다카하시 시	후키야	1977년	고잔초 鎌山町 (광산 마을)

[조례 기준에 도요지 선별 지정]

도도부현	시정촌	지구명	선정 시기	종류
히로시마 현	구례 시	미타라이	1994년	미나토마치 港町 (항구도시)
	다케하라 시	다케하라	1982년	세이엔마치 製鹽町 (제염 마을)
야마구치 현	하기 시	호리우치 지구	1976년	부케마치 武家町 (무사 거주지)
	하마사키	하마사키	2001년	미나토마치 港町 (항구도시)
	야나이 시	후루이치 가나야	1984년	쇼카마치 商家町 (상인 거리)
도쿠시마 현	미마 시	와키마치 미나미마치	1988년	쇼카마치 商家町 (상인 거리)
	미요시 시	히가시이야무라 오치아이	2005년	쇼카마치 商家町 (상인 거리)
가가와 현	마루가메 시	가사지마	1985년	미나토마치 港町 (항구도시)
에히메 현	우치코 정	요카이치고코쿠	1982년	세이로마치 製蠟町 (목합 생산 마을)
고치 현	무로토 시	기라가와초	1997년	자이고마치 在郷町 (상인 거리)
후쿠오카 현	야메 시	야메후쿠시마	2002년	쇼카마치 商家町 (상인 거리)
	우키하 시	지쿠고요사이	1996년	자이고마치 在郷町 (상인 거리)
	아사쿠라 시	아키즈키	1998년	조카마치 城下町 (성곽도시)
사가 현	구로기 정	구로기	2009년	자이고마치 在郷町 (상인 거리)
	가시마 시	하마소즈마치 하마카 나야마치	2006년	미나토마치 港町 (항구도시), 자이고마치 在郷町 (상인 거리)
	하치훈기슈쿠	하치훈기슈쿠	2006년	조조마치 酿造町 (양조 마을)
나가사키 현	우레시노 시	시오타쓰	2005년	쇼카마치 商家町 (상인 거리)
	아리타 정	아리타우치야마	1991년	세이지마치 製磁町 (자기 생산 마을)
	나가사키 시	히가시야마테	1991년	미나토마치 港町 (항구도시)
미야자키 현		미나미야마테	1991년	미나토마치 港町 (항구도시)
	히라도 시	오시마무라 가노우라	2008년	미나토마치 港町 (항구도시)
오이타 현	운젠 시	고지로쿠지	2005년	부케마치 武家町 (무사 거주지)
미야자키 현	히타 시	마메다마치	2004년	쇼카마치 商家町 (상인 거리)
가고시마 현	니치난 시	오비	1977년	부케마치 武家町 (무사 거주지)
	휴가 시	미미쓰	1986년	미나토마치 港町 (항구도시)
	시바 촌	도네가와	1998년	산촌 山村
오키나와 현	이즈미 시	이즈미후모토	1995년	부케마치 武家町 (무사 거주지)
	사쓰마센다이 시	이리키후모토	2003년	부케마치 武家町 (무사 거주지)
	미나미큐슈 시	지란	1981년	부케마치 武家町 (무사 거주지)
다케토미 정	도나키 촌	도나키 섬	2000년	농촌 農村
	다케토미 정	다케토미 섬	1987년	농촌 農村

(출처 : 전통적 건조물 군보존지구 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denken.gr.jp>)

아리타정 전통적건조물보존지구 상세 내용

	佐賀県	기입일 : H23. 4.20
시정촌	有田町	
자구명	有田町有田内山	
중전건선정년월일	H 3. 4.30	
확대선정년월일		
종별	製磁町	
면적(ha)	15.9	
선정기준	(三)	

			1	2	3	4	5
기본 사항	조례	명칭	有田町都市景観条例				
		공포일	H18. 3. 1				
		최신교부일					
	지구결정	결정고시일	H 3. 4.30				
		최신변경고시일					
	보존계획	책정고시일	H 2.12. 8				
		최신개정일	H 2.12. 8				
	물건수	전통적건조물 (건축물)	161	주옥145, 부속옥13, 사사3			
		전통적건조물 (공작물)	5	문5			
		환경물건	129	돈바이벽20, 수목5, 석원8, 석단3, 석조물79, 석문주 6, 렌가병2, 우물5, 문1			
관련 지정 등	관련조례	명칭	有田町 길거리보존기 김조례				
		공포일	H 3.12.26				
	지구내문화재수	건조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지정			1		
		현지정	1				
		시지정					
		국등록					
	지역 · 지구등지정	지역 · 지구명	일주, 근상	법22조구역	역사적경관 형성지역, 풍치보전지구		
		근거법령등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유전정도시 경관조례		
기타	지구내공개시설	명칭	적회좌	有田館	소로암		
		문화재종별	전통적건조 물	기타	전통적건조 물		
		공개상황	그림첨부체 험공방으로 서의 통년 공개	통년공개	기간한정공 개		
	보존회 · 마을만들 기 단체	명칭	有田内山の 町 길거리 보존회				

== 관리자 도요지 기초자료 관리 ==

간행물 (당해년도에 입수 가능한 것)	주로, 선정 을 위한 선 진지사찰을 중심으로 활 동함.	결성년	S63.10			
		구성원	45			
		주요활동				
지구내행사	제목	전통적건조물 군보존대책조 사보고서	有田内山 경관카탈로그(내부편)	有田内山 경관카탈로그(내부편)	有田内山 의 거리 5년간의 기 록)(1991~ 1995)	
		발행자	有田町 교육위원회	有田町	有田町	
		발행년				
	행사명	有田陶器市	추도자기만 들기	有田雑(히 이나)자기 만들기		
	개최일	4/29~5/5	11/23을 끈 5일간(요일 에부정기개 최)	2/11(건국기 념일)경~ 3/21(춘분 일)경 (요 일에 부정 기개최)		
작년 도 실적	주최	유전정상공 회의소	有田町	有田町		
	내용	10회 역사를 가진 전국적 으로도 유명 한 도시, 2.5 km 시가지에 650점포도자 기시가 있음	町가단풍으 로 물들 때, 자연을 만 끽하면서 거리산책을 함.	자매도시. 와 그 외 주 인형(자기 제)가 집결. 원도우 디 스플레이 콘테스트개 최		
	현상변경허가건수	건		9		
심의회위원회	학식경험자			2		
	지구주민대표			9		
	행정관계자			3		
	기타			4		
	회			1		
지구내사업	문화정보조			2		
	기타			1		
	문화정보조			1		
	기타			0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년도					
	내용					

*지명을 제외한 일본어를 한글로 번역함.

(출처 :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denken.gr.jp>)

(4) 국내외 유산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① 일본 도요지 유산과 광주시 도요지 유산의 보전관리 비교

일본 도자기 해외답사에서 4개 도시 지역을 답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도요지의 전체적 경관을 비롯한 도요지의 가마터, 촌락 등의 보존 상태를 경관 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일본 도요지 · 가마터 · 촌락 경관 사진



도요지 자연경관: 다케오



도요지 자연경관: 다케오



도요지 자연경관: 다케오



가마터와 가마 유적: 가라초



가마터 유적: 다케오



가마터와 가마 유적: 이마리



도자기 촌락: 이마리



도자기 촌락: 아리타 전경



도자기 촌락: 아리타 시내

다케오 지역의 도요지 하다케노하라(畷ノ原) 도요지는 이번 해외답사지 중에서도 도요지의 주변 경관이 그대로 유지된 자연경관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도요지이다. 산사면의 임야와 수녹이 그대로 남아 있고 도요지 부근의 경사면의 훼손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도요지 터 우측의 도자기공의 주택이 위치하며, 아래쪽으로는 하천과 논이 전개되어 전체적 도요지의 경관이 충족된다. 하천을 따라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하나 전체적 경관의 요소가 충족된 편이다.

가라초의 하젠(肥前) 도자기공은 17세기 만들어진 가마로 도자기벽과 화구부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된 채 보존되어 있다. 또한 이마리의 나베시마번요(鍋島藩窯公園) 마을 내에도 가마터와 가마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비해 광주는 가마터의 흔적은 남아 있으나 가마가 보존된 것은 없다.

도자기공 관련유적 사진



도자기공 신사 : 아리타



무명도자기공 무덤 : 이마리



고려인 무덤 : 이마리

II.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기초조사



도자기공 신사 : 아리타



도자기공 추모비 : 아리타



이삼평 도자기상 : 아리타

이러한 가마터나 가마가 보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자기를 제작하던 도자기공과 관련된 유적이 남아있다. 유명 도자기공을 기리기 위한 신사, 그리고 그들의 묘지, 무명의 도자기공의 묘지비, 추모비 등 다양한 유적들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

아리타, 이마리 등지에는 단지 도자기를 생산하는 도요지의 흔적뿐만 아니라 도자기를 생산하고 이동하여 외국에 수출하기까지의 제반 관련시설들의 유적이 현재도 유지되고 보존되어 활용된다. 도자기의 자료가 되는 광산, 도자기를 수출하기 위해 유송과정의 집결지인 이마리항구의 제반 시설, 특히 그때 도자기의 수송을 담당하던 상가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러한 문화유적을 살려 마을 거리 곳곳에는 도자기와 관련된 다양한 활용사례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적이 아닌 역사자료와 역사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다양한 자료관과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다.

도요지 관계적 입지 관련 사진



도요지와 채광산 : 아리다



도요지와 수출항 : 이마리



수출항의 선착장 : 이마리



수출항의 상생교 : 이마리



수출항의 하수구 덮개 : 이마리



유통상가의 내부 : 이마리

도요지 관련 자료와 유물 전시



가마터 실습장 : 가라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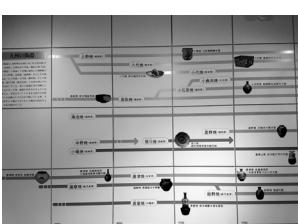
향토자료관 : 아리타



유통시설 전시관 : 이마리



도자기 이동 지도 : 아리타



도자기역사 자료 : 아리타



도자기문화관 : 아리타

이상의 사항을 정리하면, 광주시와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표 8 참조). 도요지터의 부분적 보존이 아닌 주변 자연경관 및 인문 경관을 총체적 제도화 정책에 따라 보존·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광주시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일본 도요지 답사 결과와 광주시 도요지 비교 결과

구분	광주 도요지	일본 도요지	일본 비교 대상지역 사례
도요지 자연경관	다수 훼손	보존 양호	다케오 도요지
가마터 유적	대부분 방치	보존 양호	가라초 도요지 다케오 도요지
도자기 출락	유적 없음	유지 및 활용	비요마을 아리다 도요지
도자기공 관련 유적	유적 없음	묘지, 신사 보존	비요 아리타 도요지
가마터와 주변의 관계적 입지 보존 및 연계와 활용	대부분 훼손	1) 도요지와 산간 2) 하천 관계 보존 3) 수송과 유통관계	아리다 이즈미야마 채석광이마리 유통상업시설 이마리 수출항 주변경관
전시관 및 유물 보존	곤지암도자공원 분원백자자료관	향토자료관, 박물관 운영	아리타 박물관 이마리
보존지구 설정 및 운영 실태	없음	법·제도·정책실행	자료참조
시행법과 제도	법제도는 있음 상세 내용 없음	법·제도·정책실행	자료참조

= 광주 도요지 답사 결과

특히 도요지의 자연경관의 보존은 매우 힘들지만 아직 남아있는 도요지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마리7호나 무갑리의 2개 도요지 등은 능선 위쪽에 위치하는 관계로 훼손이 덜하다. 이러한 주변 자연경관을 유지할 때 도요지의 전체적 이미지를 살릴수 있겠다. 광주시의 경우 가마터 유적지는 많으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가마가 그대로 보존된 사례는 없다. 허지만 그 가마터의 모습은 도요지의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유적이다.

이와 같이 도요지의 근접 주변의 요소만이 도요지의 경관요소를 충족하지는 않는다. 도자기공이 삶과 죽음을 도요지와의 유기적관계로 이해하고 그들과 관련된 유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들을 보존하는 법과 제도를 상세히 설정하고 그에 근거한 관리는 광주시에서도 가능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3) 국내외 유산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1)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따른 비교

① 등재기준 ii) : 기술의 전래

세계유산 등재기준 ii)는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

요한 교환을 반영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적용할 때, 해당 유산들은 광주 조선백자 요지를 중심으로 연관성을 갖는다.

강진 고려청자요지의 경우, 광주 조선백자요지의 이전 시기 한국을 대표했던 청자문화의 흐름을 주도했던 지역으로서 고려시대의 관요에 해당하는 도자문화의 중심지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려와 조선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수용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아리타의 경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의 도공들을 통해 처음 자기생산을 가능하게 했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물론, 이 때 일본으로 간 도공들이 광주 관요 출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분원의 운영 체계와 구조 등을 미루어볼 때, 광주 분원의 도자기술이 지방의 도공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과 그 기술들이 일본으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유추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를 갖는다.

이들 각각이 광주 조선백자요지와 갖는 관계성은 확장된 의미에서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기술 전래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② 등재기준 iv) : 시기별 가마유적의 존재

해당 유산들은 세계유산 등재기준 iv)는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이라는 기준에 있어서도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시·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과 유물들의 존재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다. 특히 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가마유구의 시대별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경기도 광주의 경우, 기존의 조사 결과를 통해 조선전기, 중시, 후기의 흐름 속에서 가마 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계속해서 관련 유구들이 확인되고 있어, 유적으로서의 진정성의 확인 뿐 아니라, 관계사적 측면에서 시공간에 의한 기술간 교류의 근거를 추정할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

국내의 비교대상인 강진 청자요지와 국외 비교대상인 아리타 일대 역시 단독 유적이 아닌, 유적군의 형태로 시기별 가마 구조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가마들이 다수 남아있어, 이들 유적들이 기술의 발전사 속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준다.

* 고려의 제자(制磁)기술 수용



조선시대 가마구조

	조선전기	조선중기	조선후기	
가마 구조				
1. 도마리 7호	2. 번천리5호	3. 송정동 5호	4. 신대리18호	5. 분원리2호



* 조선 전/중기 도자문화와 기술 전래



17C 일본 사가지역 가마구조

가 마 구조	17C 일본 사가지역
-	
1. 히라야케유적 1610~1630	2. 텐구다니 1640
3. 카키에몬유적 1660	



1) 세계유산 등재 조건

세계유산으로서 등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등재기준의 총족

문화유산으로서 등재기준 i)~vi)까지의 등재기준 중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등재기준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희소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른 국내와 국외의 유사한 유산과 비교하여 등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해당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탁월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백자와 청자와 같은 도자기는 인류의 진화 단계에서 단백질 섭취를 가능하게 한 그릇의 사용과 관련하여 미학적이고 장식적인 요소를 가진 예술품으로 승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중에서 한국의 도자기, 또 왜 광주의 백자요가 중요한지에 대한 논리적 명확성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 중요성은 등재기준 ii), iii), iv)와 관련하여 결국 문화의 교류, 사라질 문명의 탁월한 증거, 시대별 발달 단계와 결합하여 해석이 되어야 한다.

세계유산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유산을 의미하며, 기념물, 고고학적 유적, 건축물(군)에 한정하여 세계유산 등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광주 백자요의 경우에도 유물 중심이 아니라 고고학적 유적, 특히 백자를 생산하는 시설인 가마터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언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현존하는 백자가마터 중에서 광주분원이 차지하는 생산기술의 증거로서의 탁월성과 기술의 발달 단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2) 완전성과 진정성의 총족

완전성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나타내는 구성요소를 온전하게 포함하여야 하는 온전성(wholeness)과 훼손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무손상성(intactness), 파괴나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위협 요인이나 위협 요소의 부재(no threat),

그리고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지리적 규모(appropriate scale)를 전제로 한다. 진정성은 거짓 없는 정보의 출처를 의미하며, 자재와 구성물질, 입지와 환경, 기술과 전통적 관리체계, 무형의 가치 등의 8개의 요인에 대하여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3) 보존관리 체계

법적이나 제도적인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주관 부서의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사적 지정,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등으로 나타내는 요소이다. 보존관리에서는 유산구역과 유산구역을 둘러싸고 각종 개발이나 위협 요소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는 완충구역(buffer zone)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 백자 도요지 기초 조건

(4) 지역 공동체 참여

최근 세계유산의 등재에는 해당 주민들이 세계유산의 보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참여를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한다. 따라서 광주분원과 가마터 일대의 주민들의 보존을 위한 노력들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지킴이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의 광주 백자 도요지의 등재조건에 대한 평가는 다음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현재의 보존 상태로는 광주 백자 도요지의 세계유산 단독 등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유적지의 정비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일본의 아리따 등의 백자도요지와 연계시켜 아시아에서의 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한다면 초국경유산으로서 등재 추진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 요건	평가	평가 및 보완사항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등재기준 충족	양호, 적용 가능	등재기준 ii), iii), iv) 적용 심화 연구를 통한 과학적 증거 수집이 필요
완전성과 진정성 충족	미흡 추가적인 노력 필요	완전성의 무손상성, 온전성, 적절한 보호규모 등 모두 미흡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적지 훼손 및 방치 진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필요
보존관리 체계	미흡 추가적인 노력 필요	사적 지정, 점으로서의 한계, 면으로서 재지정 필요 고고학적 유적지 훼손 발생,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 부재
지역공동체 참여	미흡 추가적인 노력 필요	사유지 대부분 주민 호응이 미약

2) 연속유산으로서 등재할 경우

(1) 유산 성격 – 연속유산

광주 백자 도요지는 사적 하나로 지정되어 있으나 내부에 필지별로 78개의 가마터가 입지하고 있어 연속유산으로 파악되며, 대상 가마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사적 경계에 대한 재설정이 요구된다.

연속유산의 등재를 위해서는 연속유산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망라할 수 있는 등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즉, 임의의 선택에 의한 연속유산이 아니라 연속유산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등재기준 iv)을 적용할 경우에는 유산의 시대별 발전단계를 몰 수 있는 프로토타입으로서 연속유산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마터의 경우 연속유산으로 선정된 유산이 조선시대 가마터의 모든 정형적 요소를 모두 망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등재기준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광주 백자 도요지는 한국을 뛰어넘어 동아시아에서의 도자기 산업, 특히 백자산업에서의 관요로서의 광주요가 가지는 독특성과 보편적 성격 규명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증명을 위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증명을 위해 다음에서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광주 백자 도요지는 우리나라 백자생산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조선시대 다른 관요나 사요와 비교하여 어떤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광주 백자 도요지는 동아시아 도자기 산업, 특히 중국의 경강요, 조선의 도공이 건너가서 일으킨 일본의 아리다요 등과 비교하여 제작기술과 가마터구조 등에서 어떤 한국적인 특색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백자 생산에서 어떤 가치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특히, 광주 백자 도요지는 16세기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도자기 생산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과의 도자기제작 기술의 상호 교류의 증거를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주 백자 도요지에서 발굴 조사되는 가마터는 15세기부터 1884년 민간업자로 운영권이 이양되기까지 시대별 가마터의 구조적 특징이 변화하였으며, 시기별로 유형화가 가능한가? 동아시아 백자도요지의 가마터의 기술 발달 단계에서 뚜렷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만약, 광주 백자 도요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국내외의 경계를 벗어나 중국과

일본과도 연결될 수 있다면 초국경유산(transnational boundary property)로서 일본이나 중국과 연계하여 등재를 추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전제 조건은 충족한 학술연구를 통하여 등재기준 ii), iv)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계유산의 등재를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6개의 등재기준 중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등재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위의 논점에 대한 정답을 얻었다는 전제에서 등재기준 ii), iii), iv)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① 등재기준 ii)

등재기준 ii)는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등재기준 i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광주도요지의 가마와 제작기술 등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이나 일본과의 상호 교류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즉, 가마의 축조 방법, 생산된 도자기에서 발견되는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광주 백자 도요지는 중국 경강요를 모델로 하여 광주지역에서 안정적인 도자기 공급을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한 관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일시기에 중국과의 가마터의 제작기술, 도자기 제작 기술에서의 상호 교류의 증거를 밝히고, 아리다요와 같이 일본과의 도자기 산업의 교류 증거를 밝힌다면 동아시아 청화백자 제작을 위한 제작 기술의 상호교류의 탁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등재기준 ii)에서 광주백자요는 백자 생산을 위해 동아시아 도자기 기술의 상호간의 교류의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세계유산은 부동의 유산(immobile heritage)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주요에서 생산한 도자기들은 세계유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발굴 유물과 발굴지가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가마구조와 일본의 가마구조, 한국의 가마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등재기준 iii)

등재기준 iii)은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이다. 등재기준 iii)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광주분원에서 생산된 청화백자의 제작 기술이 실전되어 사라진 문화의 범위에 속하거나 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청화백자의 생산이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청화백자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조선왕조에서 운영하였던 관요가 130여년 이상 변창했던 곳으로 보존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등재기준 iii)의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광주지역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도자기산업유산을 함께 제작 기술이나 도자기 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료와 땔감 산지, 시장 등과의 관련성을 증거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초국경유산으로서 공동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자기 산업의 중심지로서 동아시아 도자기 산업의 발달에서도 예외적인 증거라는 점에서 광주 백자 도요지의 가치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등재기준 iv)

등재기준 iv)는 건축, 기술 등 발달단계를 증거이거나 대표적 유형화의 사례다. 등재기준 iv)의 적용을 위해서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광주지역에서 이루어진 가마터의 구조의 발달 단계나 유형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78개 가마터를 검토하여 가마터의 구조를 유형화하고 생산제품의 기술적 발전 단계 등을 체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조선백자 도요지는 15세기 전반인 1467년부터 19세기 1884년까지 지속되어온 조선 관요인 사옹원 분원의 제작 기술의 발달 단계와 가마터 구조의 발달 단계에 따른 도자기 가마터의 유형과 기술 발달 단계를 증거 하는 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기별 발달단계와 유형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발굴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작 기법, 가마터 구조, 생산품의 시기별 특징 등에 대한 면밀한 학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도자산업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서 해석이 가능하다면 초국경유산으로서 등재기준 iv)의 적용을 고려하여 공동 등재를 추진할 수 있다.

3)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입증의 방향성

(1) 진정성에 대한 평가

진정성이란 ‘베니스 현장’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한 정보 출처에 유산가치가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진정성은 진실성과 신뢰성을 의미하고 있다. 1994년 일본 나라에서 진정성에 대하여 정의한 나라현장(Nara Document)에서는 진정성을 표출하는 항목으로 형태와 디자인, 자재와 구성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기술·관리체계, 입지와 주변 환경, 언어와 다른 비물질적 전통, 정신

과 감정 및 기타 내외적 요인들을 증명하여야 한다.

첫째, 형태와 디자인은 변화와 변화 정도, 디자인과 형태의 정확성, 변화 자체가 가치인지에 대한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자재와 구성 물질은 자재의 대체정도, 수리나 복원의 원형과의 유리 정도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광주조선백자도요지는 고고학적 유적으로서 복토가 이루어져 있어 제한된 발굴보고서에 의존하여 가마터의 형태와 디자인을 파악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용도와 기능은 관련 대상의 변화 정도와 원인을 설명하고, 그 바탕이 되는 사회적 체제를 밝히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 자료에 의거하여 용도와 기능을 밝혀야 한다.

셋째, 전통, 기술, 관리체계 항목에는 유산을 유지하는 사회적 메커니즘, 변화 여부와 정도, 이유, 수리 여부와 관련성 및 정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당시의 관요의 등장배경, 관요에서 주로 발달하였던 도자기 제작기술과 기법, 관요 운영의 체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입지와 주변 환경에 대한 항목에는 환경 변화 여부와 정도에 대한 서술과 경계 확정에 대한 서술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입지적 특색과 가마터의 입지 요인, 입지 요인에 따른 가마터의 유형화 등에 대한 학술적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도자기 가마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환경적 요소로서 경사도, 용수와의 관계, 원료 존재 여부, 한강 수운과의 관련성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다섯째, 언어와 다른 형태의 비물질적 전통의 항목에는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변화와 유산과 관련한 사회적 기제, 지역공동체의 특성과 위협 요소 등이 포함되어 설명된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부터 형성되어 온 가마터와 관련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연구, 도기공의 임진왜란 이후의 일본으로의 이주, 전국으로의 기술 전파의 과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정신과 감성 및 기타 내·외부 요인들에는 백자도요지와 관련하여 주체가 누구인지, 유산의 상태 변화와 정도, 유산의 쇠퇴 여부, 이를 둘러싼 사회 메커니즘과 이해당사자가 되는 집단의 특성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최근 독일 본에서 개최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진정성의 조건에 규모(mass and scale), 색채와 재질(color and texture)이 포함되도록 권고되었다. 이밖에도 초국경유산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자기산업과 조선백자도공과의 이주사 등이 무형의 가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일본의 도자기 가마터와 광주분원요로 나타나는 관요 또는 주변의 민간이 운영한 도자기 가마터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통해 정보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완전성에 대한 평가

완전성은 구성요소, 영역의 완전성, 보존관리상태 등, 온전성, 무손상성, 위협요소의 부재를 의미한다. 광주 백자 도요지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만, 모든 가마터가 포함되는 면적인 접근을 하기 보다는 필지별로 따로 점의 형태로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가마터 주변 경관의 훼손이 심각하며 가마터의 원형 경관이 거의 남아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필지가 사유지로서 개발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광주조선백자도요지는 광주시청 부지 안에 있는 일부 유적지를 제외하고는 보존 상태에 따른 완전성의 요건 충족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먼저 산재되어 있는 402개의 요지, 사적으로 지정된 78개의 요지도 주변의 도시화의 개발 압력에 의해 원형을 상실하거나 훼손이 진행된 요지가 다수 있어, 온전성, 무손상성, 위협요소의 부재라는 완전성의 요건 충족이 미흡하다.

OUV를 만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의 보존을 위해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는 점에서도 사유지가 대기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사유지 매입과 경관 보호 등의 장기적인 계획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발압력이나 환경압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고고학적 유적지에 치명적인 도시화의 압력이나 개발압력에 의한 유적지 훼손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보존관리 우선 사항과 절차를 반영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산구역의 경계설정도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규모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존 관리 계획 수립의 방향성

(1) 사적 경계의 보완을 통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설정

세계유산등재를 위해서는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명확한 경계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가마터가 사유지이므로 체계적인 토지매입과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연속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가마터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이 필요하다.

사적지 78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형경관의 훼손여부, 사유지 여부, 보존상태의 양호성, 가마터의 가치성 등에 따라 선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세계유산의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본 보고서에의 평가에 의하면 5개 소 정도의 유적을 제외하고는 보존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현재 상태로는 등재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

(2) 종합정비계획 마련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적지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주 백자 도요지의 경우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제원칙을 반영하여 보존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광주시에서 남아있는 유적지에 대한 토지매입 방안을 포함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매입과 주변 경관 관리 등에 대한 사이트별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3) 지역공동체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세계유산 등재에서 지역공동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광주 백자 도요지 인근의 도자산업 공동체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유산의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유적지 인근의 주민들에게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활동과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과 함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참여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 강경숙, 2005,『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아트.
- 강혜천, 2011,『도자요지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강진 대구면 도자요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경기도 광주시 · 한울문화재연구원, 2016,『광주 조선백자 요지 1차 종합정비계획』.
- 경기도자박물관, 2009,『광주 신대리 29호 백자가마터』.
- 경기도자박물관, 2013,『번천리 8호 · 선동리 2호 요지 일원』.
- 경기도자박물관, 2015,『경기도의 도요지』.
- 박정민, 2014,『조선 전기 관요의 성립과 그 명칭에 대한 일고찰』,『미술사와 문화유산』, 3, 문화유산연구회.
- 이종민, 2015,『조선시대 官窯로의 백자원료 조달방식』,『역사와 담론』, 73집.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1986,『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 - 번천리 5호 · 선동리 2, 3호-』.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006,『조선시대 마지막 관요 광주 분원리 백자요지』.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경기도 광주시, 2007,『廣州 檜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
- 전라남도 · 강진군, 2012,『강진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제학술심포지엄 보고서』.
- 조선관오박물관, 2007,『조선시대 도자가마의 구조』.
- 조선관오박물관 · 경기도 광주시, 2004,『廣州의 朝鮮陶磁窯址 -廣州市內 朝鮮時代 磁器窯址 分布現況-』.
- 조선관오박물관 · 경기도 광주시, 2008,『광주 송정동 5 · 6호 백자가마터』.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韓國 白磁陶窯址』.
- 한정현, 2013,『도자가마의 유형과 구조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해강도자미술관, 2000,『광주 건업리 조선백자요지 : 건업리 2호 가마유적 발굴조사보고서』.
- 황달기, 2013,『일본의 전통공예품 제작기법의 역사 · 문화적 의미 – 아리타야끼를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 48.

-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관리지도 <http://gis-heritage.go.kr>
- 文化庁 <http://www.bunka.go.jp>
- 有田町歴史民俗資料館 <http://www.town.arita.lg.jp>
- 全国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協議会 <http://www.denken.gr.jp>

경기 문화유산 세계화 기초조사 연구
세계유산 편

발행인
설원기 |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기획
김성환 • 이지희

연구용역 수행
(사)ICOMOS 한국위원회

필진
연구책임자 최재현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책임연구원 김숙진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연구원 홍현철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박종관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이상현 |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동주 | 백제고도문화재단 책임연구원
정수희 | 건국대학교 박사
연구보조원 정학성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한승우 | 건국대학교 사학과

편집
페도라 프레스

디자인
디자인 이응

인쇄
사회적기업 디자인나무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일
2018년 6월 1일

©2018 경기문화재단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문화재단과 저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 978-89-999-0114-0
978-89-999-0113-3 [세트]